



8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8호

(루게 490)



◆◆◆◆◆◆◆◆◆◆ 차 례 ◆◆◆◆◆◆◆◆◆◆

시인들은 당정책관철의 나팔수가 되자!	4
개선문앞에서	6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곳에	6
불멸의 모닥불	7
불멸의 꽃	8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기념일	11
우리는 청년전위	11
꽃이여, 만발하라	12
새벽노을	13
답사숙영소의 밤에	23
《조국-생명》	24
함께 온 사람	25
속담풀이	32
당원들 앞으로 !	33
그 마음 그 진정에 받들려	33
그날의 그 불굴의 전사들처럼	34
로병의 초상	35
조선사람 그 이름	36
한 연구사의 편지	37

빛나는 세대	45
위훈속에 행복이 있다고... ..	47
감사를 드린다, 나의 병사시절에	48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애정륜리문제의 설정과 그 해명.....	49
들국화 핀 고향의 언덕에서	54
안골의 새 경치	55
전변의 날에 (외 1 편).....	58
가촌벌의 종다리야.....	58
나는 평양의 아들 (외 1 편).....	59
전쟁의 간고함 다는 몰라도.....	59
작가의 문체	60
딸애의 운명을 안고	65
200 일전투로 들끓는 광복거리에서	73
금 강 산 (외 1 편).....	74
왕 들	74
눈보라와의 인사.....	75
읽히우는 시와 읊어지는 두 시의 양상.....	76
처녀들의 꽃이야기.....	78
영원한 삶	79

시인들은 당정책관철의 나팔수가 되자!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40년이 되는 올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200 일전 투쟁들에서 계속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충성의 일념과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상은 당의 원대한 구상이 펼쳐진 대건설장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오늘의 혁명적 현실은 당과 수령의 구상따라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는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된 혁명적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의 의지를 신념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무적의 힘으로 산악도 통채로 들어옮기고 노호하는 격량도 마음대로 길들이고있다.

올해 우리 인민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함에서도 큰 결음을 내디디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시기를 마련하는 력사적인 해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을 실현하려는 열정은 더없이 높다.

혁명적 열정이 타번지는 생활의 격류속에 뛰어들어 시대의 숨결과 맥박을 간직하고 시대를 노래하여야 할 우리 시인들의 사명감은 자못 높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인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부름따라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투쟁모습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열망으로 들끓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창작에 힘을 넣는것이다.

우리 시문학이 현실에 뒤떨어지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지 못한다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할수 없다.

창조와 충성의 열정으로 들끓는 혁명적 현실은 우리 시인들로 하여금 시대와 함께 숨쉬며 시대의 지향과 요구를 담은 혁명적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혁명적인 시작품을 많이 창작하는가, 못하는가 하

는것은 전적으로 시인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시인은 당의 가수이며 로동계급의 가수이다.

그러므로 시인들은 당이 요구하는 작품, 당정책을 관철하는 시작품을 창작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데서 시대의 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당에서 요구하는 시를 쓰는 시인이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끝없이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을 무한히 사랑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추동하여 앞으로 떠밀어나가는 불타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시는 시인의 심장의 도가니를 거쳐나온 약동하는 80 년대의 우리의 생활이며 그의 맥박, 그의 숨결이다.

시인의 열정, 실로 그것은 시인의 심장가운데서 불태워지며 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정신의 불길이다.

시인은 현실보다 더 높이 서야 한다. 그래야 수많은 현실생활중에서 본질적인것을 선택할수 있으며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을 시대적인 높이에까지 끌어올릴수 있고 일반화할수 있을뿐아니라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쓸수 있다. 시인이 생활에 대하여 열렬히 공감하고 깊은 사색을 거쳐 탐구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긴장하고 완강한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야 만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격동시키는 위력한 시작품들을 창작해낼수 있다.

우리 시인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고 농촌체제의 완전한 실현을 가까운 몇해안의 일로 확고히 내다보며 나아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줄기찬 로력투쟁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생활적으로 소리높이 힘있게 구가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사회주의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벌려 마감단계에 들어선 200 일전투의 결속을 승리적으로 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당과 수령이 주는 과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그것을 자기자신의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간직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와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이 대건설행군이 진행되는 일터마다에서 수없이 자라나고있다.

대기념비적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발휘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정신, 시대의 지향을 높은 차원에서 노래하는 여기에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우리 시인들의 끝없는 영예가 있다.

시인들이 시대를 주름잡아 비약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기적과 혁신으로 수놓아지고있는 혁명적현실을 심장으로 체험하고 생활이 안겨주는 커다란 충동을 안고 생활적이고 철학적인 시를 썼을 때 그것은 그대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새로운 위훈에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된다.

큰 충격을 주고 깊은 인상을 남긴 좋은 시들을 보면 거기에는 레외없이 마음의 금선을 튕긴 뜨거운 느낌과 진정이 고여있다.

시대정신을 가장 재빨리 반영하며 당정책관철에서 나팔수가 되어야 할 우리 시인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몫은 매우 크다.

시인들은 시에 대한 시대와 인민대중의 요구를 자각하고 혁명적 기상이 나래치는 들끓는 오늘의 현실속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 느끼고 감동을 받을수 있는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강력적 의의를 가지는 방침들과 방안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얼마나 빨리 앞당기느냐 하는것은 전적으로 통일문제해결의 직접적 당사자인 북과 남의 공동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원칙적 문제들과 그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혁명적 현실은 우리 시인들로 하여금 필봉을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시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새로 천명된 조국통일의 방침과 방안을 높이 받들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 북남인민들의 성스러운 투쟁을 반영한 전투적이고 기동적인 형식의 시작품들을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새로운 조국통일방침과 방안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야 한다.

또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이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며 대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적 요구라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당의 군축제안의 정당성을 작품에 구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사파쇼독재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통

일을 이룩하기 위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전개되고있다.

우리의 문학은 남반부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반미, 반파쇼자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작품을 통하여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인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사회적 변혁에 대한 념원도 실현될수 없다는 경험과 교훈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력량이 자신의 단합된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미자주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야 한다는것을 시작품을 통하여 힘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우리 시작품들은 40 여년동안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야말로 민족분열의 고통과 비극의 화근이며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이라는것을 더욱 철저히 폭로하며 미제국주의강점자들을 남조선에서 내쫓지 않고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절대로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는데 힘을 기울이어야 한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이다.

시대정신에 민감한 우리 시인들은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전인민적 투쟁에 적극 뛰어들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시대앞에 제기된 숭고한 의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장엄한 대건설행군으로 들끓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열망으로 뿔뿔하고있다.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과의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지는 전조선에서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살고 같이 숨쉬면서 그들의 영웅적 투쟁모습을 노래하던 종군작가들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시대의 영웅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동시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앞으로 떠밀어주는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시인들은 영화혁명, 가극혁명을 수행하던 그때의 그 열정과 기백으로 현실에서 생활하며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시인들은 시대의 맥박이 약동하는 오늘의 대건설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시대를 안고 살아야 하며 시대의 지향을 들끓는 현실에서 꽃피우는 대건설행군에 떨쳐나선 인간들을 깊이있게 노래함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개신문앞에서

김휘조

하늘 높이 솟은 처마밑에
너는 간직했어라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빛없던 강산에 빛을 주시려
우리 수령님 항일의 횃불 드시고
대오를 이끄시고 천리 또 천리
해방의 그날에로 걸어오신 자옥

봄빛이 좋아
이 땅에 꽃이 피더나
땅이 좋아
풍년열매 주렁지더나

네 간직한 발자욱우에
그 빗발아래
꽃은 피고
열매는 주렁저
거리와 마을에
행복의 웃음은 넘치나니

개신문이여
압록강가 멀고먼 웃음많은 나의 집도
너의 처마밑에 있구나
풍년가을 설레는 내 고향 넓은 벌도
너의 처마아래 안기여있구나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곳에

변홍영

령너머 먼곳
첩첩 산들에 에워싸인
깊은 골안에
네가 있었구나, 창성이여

언젠가는 와보리라
마음속에 늘쌍 그려오던곳
내 오늘 너를 찾아왔노니
내 나서 처음 밟아보는 고장이건만
한없는 정다움이 가슴에 넘쳐나누나

아담한 다층살림집들이
해빛속에 웃고있는 너의 거리를
내 걷고 또 걷는다
영주천 맑은 물가에
그림처럼 비껴 솟은 공장들을
내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들려다오, 너의 하늘땅에
언제부터 정다운 기계소리 가득차 흐르고
행복이 나래편 공산주의리상촌이
너의 산기슭에 꿈같이 솟아올랐는지

말해다오, 수많은 사연을

첩첩 골안마다 안고있는 땅이여
머루, 다래를 따서 보짐에 싸이고
삭주장마당을 찾아가던 아낙네들의
그 구슬픈 한숨은 그 언제 구름처럼 사라졌느냐

아, 산골사람들의 살림을 꽃피주시려
저 험한 고개를 넘어오시던
아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그 해와 해들에 베푸신 사랑이
너의 천지개벽의 력사로 펼쳐졌나니

내 걷고 또 걷는 이 거리
내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저 공장들
그 어느 건물, 그 어느 기대앞에도
아버이수령님의 자애넉친 손길 어려웠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어린 시선이 빛나고있어
창성이여, 너는 걸음마다 내 가슴에
뜨거운 이야기 속삭여주는것이나

제고장 특산물을 자랑하듯
갖가지 상품들이 쌓인 매대앞에서도
아버이 그 은덕을 내 후덥도록 새겨안는다
꽃핀 저 과원에서, 봄이 온 들판의 이랑우에서
복된 삶을 가꾸는 창성사람들의 그 눈빛에서도

다함없는 감사를 나는 읽는다
아아, 령너머 먼곳
천천 끝안에 네가 있건만
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넘치는곳에

조국이 자랑하는
락원의 모습으로 솟아있구나
창성이여
영원한 해빛이 머물러있는 땅이여 !

불멸의 모닥불

-창성군 유평혁명사적지에서-

김광호

푸르른 전나무 설레이는
키낮은 수수한 농가집마당가에
오늘도 꺼질줄 모르고 타오르는듯
마당가엔 작은 모닥불

삼태성도 기울어 깊어가는 밤
천리 포연속을 헤쳐오신 수령님
그날의 숭엄한 영상이 떠올라
이 가슴 한량없이 설레이여라

이 밤중에 우리가 들어서면
주인에게 폐를 끼칠수 있다고
오늘밤은 밖에서 숙영하자고...
손수 불을 피우시며 이르시던
수령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
아, 지금도 귀에 쟁쟁해

군량미 나르고 돌아온 집주인
단잠을 깨울세라 념려하시여
찬서리 내리는 마당가에서
한밤을 지새우신
모닥불자리 !

오, 준엄한 전화의 그날

위대한 전략을 펼치시는
최고사령관동지 !
그이를 더운 방에 모시지 못한
인민들의 송구한 마음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에 사무치나니

못잊을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강사는 목이 메어 말 못하는데
천년바위 다듬어 비를 세운
충성의 저 글발들이 다 말해주누나

천년세월이 흐른다고
우리 어찌 잊으랴
만년 눈비가 내린다고
그날의 그 불이 꺼지랴
인민의 가슴속에, 온 조국땅우에
의리의 불길을 지퍼주는 모닥불 !

아, 모닥불, 모닥불
영원한 사랑의 모닥불
충성의 불길로 천만심장을 불태우며
주체의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일심단결의 대오우에 붉은 빛을 얹어주며
너는 언제나 타오르리

불멸의 꽃

류인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력사와 인류앞에 세운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과 국제로동계급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고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시즈오카현 가께가와시 가모 꽃창포주임 가모 모도데루의 꽃시힘포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때는 아직도 이 세상에 이름없는 꽃들이 자라고있었다.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원예학자의 탐구로 벌써 수십번을 피고지는 꽃들이다. 이 꽃들은 청년시절에 중앙아메리카의 안데스산맥의 깊은 골안에서 가모 모도데루가 그 종근을 채취하여 온 후손들이었다.

세월은 흘러 젊음이 넘쳐나던 그도 이제는 귀밑머리가 희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꽃은 안데스산맥에서 야생하던 자태를 영영 잃어던지고 전혀 새롭게 변모된 아름다움을 간직하게 되었다.

시험꽃온실에 들어선 원예학자 가모 모도데루는 온습도계의 눈금을 확인한 다음 지금 한창 피고있는 꽃들을 돌아보고있었다. 시원하게 넓은 이마며 안경알속에 번뜩이는 사색적인 눈, 선을 넘은 사람같잖게 젊음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였다.

가모 모도데루는 바야흐로 젊은 시절에 간직했던 자기 념원이 실현될 날이 박두해오고있다는것을 느끼며 가슴벅찬 흥분을 학자다운 리성으로 다스리고있었다.

(아니, 아직은...)

붉은 꽃에 각별한 정력을 다하여 연구를 심화시켜온 그는 색깔에 있어서나 품격에 있어서 보다 완성미를 보여주는 꽃이었지만 새 품종의 꽃을 육종해내었다는것을 확신하자니 자꾸만 미흡하게만 느껴져 이렇게 주저하고있는것이였다.

언제 들어섰는지 안해가 조용히 묻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저... 이젠 때가 되지 않았어요?》

《...》

모도데루는 잠시 대답을 앓고 후미꼬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일생에 두번다시 없을 행복의 순간을 마련하고자 수십년을 애써온 자기를 누구보다도 깊이 리해하고있는 안해였다. 안해의 물음은 이제는 꽃의 이름을 선포할 시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벌써 9 월이니 학계에 꽃이름을 **《김정일화》**로 정식 공개하며 준비를 갖추노라면 래년 2 월이 금시 눈앞에 닥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탄생 45 돛, 그 큰 기념일에 **《김정일화》**를 선물로 올리려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성했던 그들이였으니 안해가 이렇게 묻는것은 당연한것이였다.

《이것보오 후미꼬. 아무래도 아직은 때이른것 같소.》

《 ? ... 》

후미꼬는 의아한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얼마전까지만도 이제는 자기 념원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흥분해마지 않던 남편이었던것이다.

《후미꼬! 우리가 이 꽃에 기울인 우리의 심혼을 어떤 분에게 바치자고 하는것이겠소. **김정일!** 그의 존함은 20 세기 현세계의 가장 걸출한 위인, 위대한 지도자의 존함이요. 력사는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게 될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한두해 늦어지는게 큰 문제가 아니요. 오늘뿐아니라 후대들앞에, 시대앞에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게 완성시킨 꽃을 그이께 올려야 하는거요.》

후미꼬는 벌써 그 몇번 남편에게 이 말을 듣게되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남편의 심장에 고동치는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학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에 공감되군하였다.

《그리고말이요.》

모도데루는 말을 이었다.

《바로 그렇게 최대의 성의를 다하는것은 우리 어머니의 뜻이기도 한거요.》

(옳다, 모도데루야. 넌 결코 오늘의 일을 후회하지 않을거다.)

모도데루의 귀전에는 이미 세상에 안계시는 어머니의 애무의 목소리가 속삭이는것 같았다.

(어머니, 고무적인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순간 모도데루는 어머니가 무척 그리웠다.

지난해 모도데루는 조선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송도무역관리국 부국장의 안내를 받아 해안도시 원산의 송도호텔에 든 그는 이른아침 눈을 떴다.

그는 어제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던 그해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때 일본의 선진적인 부인회 대표단이 유럽 사회주의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었다. 어머니는 대표단 성원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기회에 혹시 사회주의 조선에 가보았으면...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 혹시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뵈울수도 있지 않겠니.》

《어머니, 조선에 그렇게도 가고싶어요?》

《그렇지 않구. 새 세계대전을 막아내신 영웅! 평화의 수호자 **김일성**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를 받들어 싸운 영웅적 인민이 있는 나라가 아니냐. 인간 생활에 평화는 얼마나 귀중한거냐! 너도 2차세계 대전의 살육전과 히로시마의 핵참화를 모르지 않겠지?》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간절한 소원을 안은채 어머니는 갑작스레 병으로 돌아가신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와보고싶어하던 조선에 와서 어이 잠들수가 있으랴. 밤은 깊었고 쳐놓은 창가림 틈새로 높다란 가을하늘의 못별들이 가웃이 들여다 본다. 억만년 번치 않고 빛을 뿌린다는 저 못별이다. 아, 이밤따라 어머니가 이토록 가슴미여지게 그리워나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어머니, 어머니는 저의 가슴에 인류가 낳은 세계적인 위인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씨앗을 심어주시었지요. 그 흠모의 감정은 저의 가슴에 홀로 흐르는 감정이 아니였습니다. 그 감정은 온 지구를 휘감아흐르는 역사적 감정이였습니다. 원예전문가인 저는 직업상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나 흠모의 그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세차게 굽이치고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감정속에 현대조선의 걸출한 지도자 **김정일**비서에 대한 흠모의 감정이 굳게 결합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인류는 자주화된 새

세계에 대한 미래를 환희롭게 내다보고 있는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께서 건재하신다면 틀림없이 저와 마찬가지로 **김정일**비서에 대한 무한한 흠모를 간직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모도데루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못견디어 심중을 조용히 토로하고 보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는것 같았다.

어머니의 속삭임이 그의 귀전에 들리어왔다.

(모도데루야, 네가 그렇게 확신했다면 그 확신을 저버리지 말이라. 그래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 하지. 그 신념이란 정의롭고 숭고한것이여야 하고 못 인생이 위인을 따르려면 위인을 위해 제 할수 있는것을 다 해야만 하는 법이니라.)

가모 모도데루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일성주석탄생 기념일에 참가 올린 14 품종의 꽃이 그래 원예학자로서 내가 할수 있었던 모든것이었던말인가. 생각하니 너무나도 보잘것없어보였다. 그는 부끄러웠다. 피로웠다.

사실 이번에 평양에 며칠 묵으면서 그리고 원산으로 승용차로 달리면서 그는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던가.

꽃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비서이시였다.

조선의 꽃 목란꽃! 이 꽃을 **김일성**주석께서 사랑하신다고 한다. 가모 모도데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란꽃을 두고 생각해보았다. 희디흰 꽃살은 예로부터 간직해왔다는 이 나라 인민의 순결한 녀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흰 꽃살속에 웅위된 붉은 자웅은 오늘날의 영웅적 조선인민의 붉은 마음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두 색같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피어나는것이다.

원예학자의 뇌리에는 목란꽃이 세계적으로 여러가지 품종이 있다는것이 떠올랐다. 세계의 모든 목란꽃을 모두 조선에 옮겨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리의 가로수를 모두 목란꽃으로 바꾸어 심었으면 좋으련만 목란꽃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하여 그것이 불가능한것이 얼마나 애타는 노릇인가.

목란꽃! 가모 모도데루는 **김일성**주석을 기쁘게 해드릴 방도를 찾고야말리라 결심을 다지는것이였다. 그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비서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되리라 생각하니 이제야 자기 할바를 찾은듯한 보람을 느끼는것이였다.

밤은 자꾸만 깊어간다. 허나 가모 모도데루의 눈은 더욱 초롱초롱해지는듯싶었다. 원산으로 달리는 승용차를 내가 그 몇번 세웠던가? 차에서 내린 그는 사진기 셔터를 누르곤했었다. 가는곳마다 도로연변의 가로수밑에 혹은 공공건물의 록지들에 무성하게 잎새를 벌리고 자라고있는 비비추를 보았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비서께서 좋은 화초이니 많이 심어 가꾸라고 하셨다는 비비추! 가모 모도데루는 집에 돌아가면 안해 후미꼬에게, 아니 전체 일본인민에게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어 비비추를 찍고 또 찍은것이였다.

그 이야기는 이 가슴을 격동케 하듯이 만사람의 심금을 울릴것이였다.

(아! 해돋이! 해돋이가 시작되는구나!)

창가에 선 가모 모도데루는 생각에서 깨여났다.

생의 기원을 준 만물의 령장인 붉은 태양이 설레는 바다를 물들이며 불쑥 떠오르기 시작한것이다. 눈이 부시여 낮에는 감히 마주볼수 없는 거룩한 태양이다.

아, 저 붉은 빛갈! 태양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것인가!

가모 모도데루는 자기가 젊은시절부터 육종하기 시작한 새로운 꽃에 만물을 다스리는 령장의 빛갈을 옮겨놓으려고 고심해왔었다.

모도데루는 자기 가슴에 파도치는 흥분을 안고 급히 책상으로 다가가 백지를 꺼내어 활달한 필체로 이렇게 써보았다.

《김정일화》!

가슴이 벅찼다. 심장은 세차게 들먹거렸다.

평양의 중앙식물원에 들렸을 때 아름답게 피여난 《김일성화》앞에서 저도 모르게 《아, <김일성화>는 피여 났는데 <김정일화>는 어찌하여 피여나지 않았을까?》 하고 안타까와 했던 그였다.

(허나 이름없는 식물학자가 연구한 꽃에 감히 그이의 존함을?!...)

생각만 해도 격동에 숨이 가쁘다. 그렇듯 큰 희망을 내가 이룰수 있을까? 아직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불과하다. 이걸 너무나도 큰 문제이다. 다시한번 심중히 생각해보자.

가모 모도데루는 누를길 없는 걱정예 휩싸여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바다우에 솟아오른 붉은 태양

을 심혼을 다하여 바라보았다. 잊지 말아야 한다. 저 은혜로운 태양의 빛갈을! 태양의 빛갈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내 어찌 자주세계의 걸출한 지도자 **김정일**비서의 존함을 꽃에 모실수 있으리란 말인가!

그이는 진보적 인류에게 태양의 빛을 주신다. 그이는 인생다운 인생의 길을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다. 그이에 대한 흠모는 현 세계에 굽이치고있는것이다!

가모 모도데루는 다시 붉은 해살이 비쳐든 책상앞으로 다가가 백지우에 자기가 써놓은 《**김정일화**》라는 글발을 감격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렇다. 내가, 내가 꼭 해내야 한다.)

가모 모도데루는 굳게 마음다지는것이였다. 아마도 원예학자가 력사와 인류 앞에 이처럼 무겁고도 숭고한 사명을 자각한 레는 없을것이다. 그렇다, 이 력사적 사명을 감당해낸다는것은 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가모 모도데루는 아직도 탐구의 먼길을 가야 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해도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 먼길끝에 인간이 누릴수 있는 행복중의 가장 큰 행복이 있음을 그는 확신했던것이다...

온습도계가 정해놓은 눈금을 가리키고있는것으로 보아 시험온실의 대기는 정상인것 같았다. 계단식으로 심어 가꾸는 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있다. 활짝 핀 꽃송이며 금방 봉오리를 문 화분이며 아직 애어린 싹으로 돌아나는것 등 모든 심혈을 기울이는 꽃들이다.

시험온실을 돌아보고 난 가모 모도데루는 이렇게 말했다.

《후미꼬, 우리 이렇게 합시다. 친애하는 그이의 탄생 45 뉘에는 450 가지의 꽃들을 가꾼 선물꽃 포전을 올립시다. 그리고<**김정일화**>는 미흡한 점을 다 가시고 티없는 우리 마음을 담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꽃이 되게 합시다.》

《...》

후미꼬는 남편의 가식없는 모습을 존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것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일

알라싼 프라오레 주니오르

우리 앞길 밝히는 유일한 빛발
우리 나아갈 유일한 방향
우리 가야 할 하나의 길
우리 반드시 따라야 할 가르치심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주신다네

근로자들은 의식화되고
나날은 대전투로 이어지거니.
혁명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출판보도일군들 성과를 이룩하여라

우리 소리높이 칭송한다네
우리 신심에 넘쳐 말한다네
동지이시며 스승이신 **김정일** 동지
그이의 현명성에 대하여

반제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부르끼 나파썸의 기자들
그이를 따르며
더 잘 알게 되었어라

우리의 임무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김정일 동지
그이는 우리의 등대
오늘도 래일도 우리의 령도자
싸우는 기자들의 아버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언제나 존귀하신분
그이의 탄생기념일은 영광 넘치고
그이의 위업은 백전백승하리

우리 앞길 밝히는 유일한 빛발
우리 나아갈 유일한 방향
우리 가야 할 하나의 길
우리 반드시 따라야 할 가르치심
그이께서 주신다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필자는 부르끼 나파썸 출판총국 기자임)

가사

우리는 청년전위

리광선

혁명의 붉은기 날린다
대오를 지어라 전진이다
갈 길은 멀어도 가슴에 피끓는다
향도의 해발을 따라 준령을 넘고넘어
우리는 간다 광활한 미래로 발걸음도 씩씩히-

나래를 펼쳐라 혁신이다
발걸음 힘차게 높여라
투쟁의 길은 험치 않아도 신심은 불타다

산악도 뚫고 바다도 막아 세기를 놀래며
우리는 세운다 공산주의 새 세계 기세도 드높이-

지혜와 힘을 다 합치자
불구름도 뚫고 헤쳐라
주체의 기치 하늘가에 더 높이 날려라
청춘의 열정을 화불로 밝혀 조선을 빛내며
우리는 간다 영광빛내며 걸음걸음 승리해-

꽃이여, 만발하라

한원희

세상에 다시없는 위인이 나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따라 피는가
만민이 우러르는 령도자 계시면
만민이 사랑하는 꽃이 만발하누나

아, 꽃이여 꽃이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존함 모신

《김정일화》

하늘땅의 아름다움 다 안고 피었구나

어찌보면 신비로워
어찌보면 숭엄해
어이 그리도 활짝 웃는구나
웃으시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미소처럼

붉게 타오르는 해불과도 같이
인민을 이끄시여 한생을 바치시는
그이의 뜨거우신 마음과 같이
송이송이 열정을 다해 피는 꽃

위인중의 위인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꽃중의 꽃인 **《김정일화》**

인류력사에 처음으로 그이 맞이했으니
수천년 세월에 처음으로 피었네

력사의 갈피속에 영웅호걸도 많았다지만
그 이름들 가진 꽃은 피지 않았네
세상은 넓고 세월은 흘렀어도
오로지 그이 모신 이 시대에 피었네 진귀한 꽃

나는 몰라라
우리의 지도자동지처럼 위대한분을!
그이의 향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행복을!

아, 세상에 한분 위인이 나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 따라 피누나
아버이수령님 존함 모신 **《김일성화》** 피더니
오늘은 또 아름답게 피어났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존함 모신 꽃

만발하라, 꽃이여 꽃이여
다함없는 축원과 인민의 념원 안고
후손만대 길이길이 만발하라
노래불러 끝없는 **《김정일화》**여

새벽노을

장동일

1938년 2월 27일

어제밤에 많은 눈이 내렸다.

나는 밖에 나가서 너가래로 마당의 눈을 치기 시작했다.

내가 한참 눈가래질에 정신이 팔려있는데 등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허리를 펴고 뒤를 돌아보니 진자주색 저고리에 깡장치마를 받쳐입은 너자가 서있었다.

《저- 이 집이 한대섭선생님 댁이 옳습니까?》

《? ...내가 한대섭이요. 그런데 어디서 왔소?》
하고 나는 그 너자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나이는 스물네댓에 났을가? 동글납작한 얼굴에 새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가만- 몹시 낮이 익은 얼굴인데...)

이때 그 너자가 나의 기억을甦겨주었다.

《제 박현숙입니다.》

《아, 현숙씨!!》

《대섭씨... !!》

우리는 한참후야야 마음을 다잡을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와있다는걸 어떻게 알았소?》

《이 상화마을의 서예에 능한 서울집 한선생님이 라면 우리 평남마을에서도 모르는이가 없습니 다.》

《하-그러니 이 세상은 결코 넓은것이 아니구만. 우리가 헤여진지 몇해이던가?》

《5년이에요.》

《5년이라... 길지 않은 세월인데 난 처음에 현숙씨를 몰라보겠더군, 스물네댓살안팎의 새파란 처녀로 보이질 않겠어.》

내 눈앞에는 불현듯 박현숙이와 헤여지던 5년 전 일이 떠오르는것이였다.

...내가 박현숙이를 알게 된것은 서울배재학교 3학년때였다. 그때 나는 량심적인 의원의 딸 송경아와 이미 친교가 깊었었다. 몸매가 쭉 빠진데다가 살결이 희고 속눈썹은 류다르게 길다란 그 너자와 나는 아직 고백하지 못한 뜨거운련정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었다. 하루는 송경아가 해사한

얼굴에 두눈이 새까만 몸매 자그마한 단발머리의 처녀를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무라고 소개했다.

이름이 박현숙이라고 하는 이 처녀는 종성읍거리의 자그마한 포목가게 주인인 아버지가 근근히 보태주는 학비로 고학을 하고있었다. 그들은 서로 대조적인 외모와 성격을 가졌음에도 늘 그림자처럼 붙어다니였다.

우리는 몇번 학생데모에도 함께 나갔었고 류치장에도 간혀본적이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이때 박현숙은 장차 유명한 시인이 되겠다고 교단우에서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절규하기도 하던 서봉찬이라는 열혈청년을 사모했다.

사회주의를 동경하며 맑스의 서적을 탐독하던 박현숙이고 보면 그들의 사랑이 십분 리해되였다.

배재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송경아와 결혼하였고 그의 아버지의 소개로 고명한 어학자 양필주의 조수로 들어갔다. 장차 훌륭한 어학자가 되어 보겠노라고 학창시절부터 남달리 그 분야에 관심을 두었던 나는 훈민정음의 창제로부터 우리 나라 문자의 발생발전과정과 고유성을 체득해나가면서 탐구에 열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연구소》에 낯선 사나이들이 들이닥쳤다. 그자들은 식민지 민족이 조선어학연구는 무엇인가고 하면서 깡필과 묵지까지 죄다 차압해갔다. 《연구소》는 하루저녁에 망하고 양필주는 어데론가 국경을 넘어 망명했다.

이러한 비극에는 관계없이 나의 안해 송경아는 해산을 했다. 그러나 나는 자기 《리념》에 미쳐서 산후병을 만난 안해를 이끌고 경성읍 어데선가 고고학을 연구한다는 삼촌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아- 참, 그때 서울을 떠나 술가해오면서 겪은 고생을 말하자면 끝이 없소.》

나는 긴 한숨을 내쉬다가 불현듯 현실로 돌아왔다.

《이거 내가 자기 말만 하다나니 반가운 사람을 몰라보았군. 자, 어서 들어갑시다. 어서.》

내가 두세번이나 곱씹어 재촉해서야 그 너자는 머리에 둘러감았던 목수건을 벗어들고 내뒤를 따라섰다.

그는 정지에 올라와 가마목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내가 올라와 편안히 앉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냥 사양하면서 치마폭으로 가지런히 눕힌 두무릎을 감쌀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등잔불에 까맣게 그슬린 천정을, 그다음에는 어수선한 구름노전바닥과 어둡시그레한 방구석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재민지가 뽀얗게 앉은 가마뚜껑이며 부시지 않은 빈 그릇들이 담겨져있는 옹배기를 이윽도록 굽어보는것이였다.

그러다가 불쑥 물었다.

《송경아는 어디 갔어요?》

《…》

나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박현숙이를 만나는 첫순간부터 이젠가저젠가 마음을 조이던 바로 그것을 물어보자 나는 전신의 피가 일시에 멎은듯 눈앞이 캄캄했다.

《대접씨,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박현숙은 그제야 모든것을 감촉했는지 두손을 가슴앞에 모두어쥐었다. 그는 먼지오른 가마뚜껑이며 가지지 못한 그릇가지들을 다시금 휘둘러보고나서 성급히 따지고들었다.

《경아는 어디 있어요?》

그제야 나는 천천히 머리를 쳐들면서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때 원고들과 목지까지 차압당하고 스승까지 잃어버린 나는 민족적 의분을 참을수 없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길을 떠났소. 그런데 경성일판에는 고고학을 연구한다는 삼촌이 없었소. 경성사립여자중학교 잡부로인의 말에 의하면 삼촌이 온성쪽으로 술가해갔다는것이였소.

나는 다시 길을 떠났소. 그러나 큰길로는 갈수가 없었소. 일본수비대가 두만강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무작정 검속하여 문초를 한다는것이였소. 그 소문을 들으니 떠날 때 짐보따리속에 감추어가지고 떠난 사전류들과 입문서적들이 걱정되었소. 자칫하다가는 본의아닌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될수도 있지 않겠소. 그래서 다른 행인들의 뒤를 따라 소대가리가 깨진다는 부령바람을 맞으며 창평고개를 넘었소. 때는 11월이라 사정없는 판북땅의 혹한에 경아는 손과 발을 얼ку었소. 나는 웅근 사흘동안이나 삼촌을 찾아헤매다가 온성우편국 체부령감을 만나 삼촌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것을 알게 되었소. 나는 전신의 맥이 풀리어 일어서고싶지도 않았소. 그렇게 주저앉은게 이 상화마을이요. 짐을 푸는날 밤, 경아는 자리에 누웠소. 그 너자는 산후병에 동상까지 입고 1 년동안이나 신고하다가 그 이듬해 겨울에 영영 세상을 떠나고말았소. …》

나는 여기서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자신에 대한 환멸감과 안해를 잃은 슬픔이 한데 엉키여 목구멍을 막아버렸다.

하염없이 앉아있던 나는 비애에 젖은 목소리로 뇌까렸다.

《…아-참, 송경아라는 녀자가 나같은 무기력한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며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갈것인데 그 마음씨 착한 녀자는 내 꿈을 지켜주겠다고 수천리길을 따라와서 이 바람세찬 두만강 류역에 억울하게 묻히웠소. 송경아의 귀중한 령혼과 육체를 찾아낸놈은 나요…》

《대접씨, 진정하세요. 대접씨가 그렇게 설분을 토한다고 해서 마음속의 슬픔이 가셔지는게 아니잖아요.》

《…》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노라면 경아가 누구때문에…어째서 땅속에 묻히게 되였는가를 알게 될거예요.》

박현숙은 마디마디 끊어질듯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래입술을 깨물며 비통함을 참으려 했으나 끝내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돌아앉았다. 그 녀자의 어깨가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이때 딸애가 방으로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박현숙은 송경아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 녀자는 옷고름으로 얼른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앉았다.

《아니, 그때 낳은 딸애가 이렇게 컸어요?》

《그렇소.》

내가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어디 보자 애야, 이리 오너라.》

박현숙은 딸애의 새빨강게 언 손을 잡아 이끌었다.

《…너 어머니를 닮았구나. 이름이 뭐지》

《한옥희.》

《몇살이지?》

《다섯살.》

《그래! -》하며 박현숙은 아이를 제 품에 꼭 껴안았다. 순간 그 녀자의 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물줄기가 고여올라 랑불을 적시며 소리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다.

…

방안에는 서로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무거운 침묵이 오래동안 드리워져있었다.

《그래 서봉찬이와는 이젠 가정을 이루었겠구나.》

내가 그의 마음을 녹잡혀주려고 화제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더 피로운 표정으로 방문쪽을 바라보았다.

《대접씨. 난 그 서봉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상기고싶지두 않아요.》

순간 나의 눈앞에는 머리를 길게 기른 서봉찬의 시뻘건 얼굴이 나타났다. 그때 박현숙은 이 나라의 운명을 두고 분통을 터뜨리던 서봉찬을 따랐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나는 즉흥적인 감정으로 충만된 그 서봉찬이가 박현숙의 순박하고 깨끗한 마음을 어떻게 리용했으리라 하는것이 가히 짐작되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오?》

《저 령남부락에서 잡화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나라 력사와 지리도 가르치고 노래도 배워줘요.》

나는 그 녀자의 어조에서 자기 신변에서의 상실감을 찾아볼수 없었다.

1933년 3월 20일

떨나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점심참이 다 지나서야 드덜기를 한집 해지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두해전까지만 해도 나무지계를 진채 몇번이고 개울에 곤두박혔었지만 지금은 제법 지게 지는 요령이 터득되었다.

나는 세선고개마루에 올라 나무짐을 내려놓고 지게목에 작심대를 번쳐놓았다.

내가 땀을 들이며 앉아있는데 두사람이 불쑥 고개마루에 나타났다. 한사람은 온성일관의 유지인 최창민이 그뒤에 따라선 사람은 신사복을 입은 매논의 사나이였다.

《아- 이거 한선생, 고생이 막심합니다.》

최창민이 나를 보자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그는 이 일대의 땅을 소유하고있는데다가 상화지구의 일부 삼림경영권도 가지고있었다.

《그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그러저럭 살아가지요.》

《소문을 듣자니 선생의 살림이 말이 아니라는데 짬을 내서 사람을 하나 보내슈. 내 입쌀을 뒤말 보내주리다.》

《말씀만 들어두 감사합니다. 허지만 사람이 제오룩이 성한 이상에야 어떻게 남의 신세를 지겠습니까. 죽을 먹어두 그저 제 힘으로 조용히 살아가는게 제일입니다.》

나는 혼연히 대답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신사복을 입은 매논의 사나이가 나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저쪽 작은 봉우리로 걸어갔다. 그는 거기서 두만강을 유심히 굽어보고있었다.

내가 눈으로 동행하는 사나이를 가리키며 누구인가고 물었다.

《저 사람은 두만강과 량수천자로 가고오는 통행인들을 검속하는 온성과출소 형사요. 요즘 저 왕채산수림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무슨 비밀회의가 있었는데 그후부터 두만강 일대에 유격대정치공작원들이 더 많이 퍼졌다고 하오. 그래서 오늘 이 일대를 밟아보겠다고 찾아와서 나도 겸사겸사 이렇게 고개를 넘어오는길이요.》

(아, 세월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고 뒤를 쫓고...)

나는 최창민과 형사를 공교롭게 만난것을 후회하였다. 누구도 만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리라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고개를 넘어간 다음에도 한참이나 멍청히 서있다가 나무지계를 지고 일어섰다. 웬일인지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가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딸애가 쪼르르 달려나오며 소리쳤다.

《아버지- 아미미가 왔어.》

《그래...》

나는 서둘러 나무짐을 벗어놓은 다음 공연히 사방을 휘둘러보며 급히 방으로 들어섰다.

부엌에는 뽕얇게 뜯김이 서러있었는데 그속에서 박현숙이가 동자질을 하고있었다. 먼지가 앉았던 가마뚜껑은 알른알른 윤기가 돌고 가시물옹배기에 되는데로 담겨져있던 그릇가지들도 하얗게 닦아져서 찬장안에 가지런히 얹혀져있었다. 방안에 여기저기 널려있던 물감등숙이며 버루와 붓가지들도 앉은뱅이 책상우에 차례로 놓여있었다.

박현숙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어찌나 일에 정신이 팔렸는지 방안에 사람이 들어선줄도 모르고있었다. 딸애가 그 녀자의 치마폭에 붙어돌아가며 해해거리다가 아버지가 돌아왔다고 일러주는것 같았다.

그제서야 박현숙이 급히 팔소매를 내리우며 방에 올라왔다.

《아이, 오셨군요. 수고했어요.》

그 녀자는 전번에 왔을 때처럼 가마목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잠시 숨을 돌리었다.

《미안해요, 주인도 없는 집에 이렇게...》

《뭐 일있소. 아는 사인데... 집안이 환해졌구만. 좌우간 고맙소.》

나는 딸애더러 밖에 나가 놀라고 이르고나서 더운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다. 그 녀자의 따뜻한 인정이 가슴에 흘러들면서 피곤이 일시에 가셔지는듯했다.

내가 방에 올라와 앉자 박현숙은 생각깊은 눈길로 나를 한참동안이나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혼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적적하지 않아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일없소. 지금처럼 세월이 하수선할 때에는 그저 두문불출이 제일이요.》

그러자 박현숙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이 상화마을에 야학을 내오려고 하는데 대접씨가 도와주셔야겠어요.》

《야-학울?? 공연한 고생을 사서 하지 마시우.》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안해를 잃고 고독하게 홀로 지내는 나를 동정하여 저녁마다 우리 집에 사람들이 마실을 왔었다. 그들은 한겨울에 산짐승을 잡아먹는 상식같은것을 들려주기도 하고 세상에 귀신이 있는가 하는 허망한 질문을 해오기도 했다. 이때 나는 무지몽매한 이 판북땅의 촌민들에 대한 동정심을 누를길 없어 의국충신들의 무훈담도 들려주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우리 나라 문자의 발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온성과출소 순경이 나타나서 나를 불온사상을 보급하는 수상한 야학훈도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호송해갔다.

《…결국 본의아닌 공산주의자의 감투를 뒤집어 썼소. 웅근 이틀동안 파출소류치장에서 콩밥을 먹으며 문초를 받으면서 나는 학창시절부터 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는것을 곱씹어 설명했소.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손가락도 장까지 찍고나왔소. 손가락도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식민지에속국가에 태어난 백성은 유식하든 무식하든 자기의 한생을 운명에 맡기는수밖에 없소. 야학? 계몽? 다 필요없소. 이름 석자를 쓸줄 알면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땅이 있고 물이 있으면 되오.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묻히는거지.》

내가 벌겋게 상혈된 얼굴을 쳐들고 력설할 때 박현숙은 나를 처음보는 사람처럼 마주보며 굳어진 듯 앉아있었다. 부지중 그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대접씨는 타락했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거예요. 대접씨가 숙명론자가 되다니…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그 녀자는 이 말을 자기자신에게 하였다.

내가 의아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는데 그는 말을 이었다.

《야학을 어떻게 사람들의 무식을 깨우쳐주는 단순한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알고 자기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 성스러운 사업의 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해요. 얼마나 보람찬 일입니까. 바로 거기에 대접씨의 지식이 필요한것이예요.》

낮으나 안타까움에 젖은 그 녀자의 호소는 나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문득 한시간전에 세선고개 마루에서 최창민유지가 요즈음 두만강 일대에 유격대공작원들이 퍼졌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나는 공포어린 눈길로 박현숙을 바라보았다. 물불을 모르는 사춘기시절에는 즉흥적인 감정에 포로되어 맑스의 《자본론》이요. 공산주의 《이데올로

기》요 하고 웨칠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도 있고 지난날에 있던 일이지만 개인생활의 비극까지 안고사는 녀자가 아닌가! 그런 기구한 운명에 유격대정치공작원이라니? 그럴수가 없다.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현숙씨. 철썩니 투쟁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우. 그러다가는 하루아침에 교수대에서 이슬로 되고마오.》

《대접씨처럼 산다면 천년을 산대도 죽은 목숨이예요. 대접씨는 유지들의 청탁을 받고 죽자를 쏠것이 아니라 경아가 묻힌 저 앞산의 나무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조선독립만세라는 글발을 남기는것이 보람찬 일일거예요.》

《조선독립만세? 아- 참, 아직도 학창시절의 그 천진성이 남아있구만. 현숙씨는 애국렬사 리준이가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만국평화회의 연단에서 할복자살을 한 헤그밀사사건의 민족적 비극을 모르고 있었소? 그래 안중근이가 이등박문을 저격할 때 그 열혈청년의 가슴속에 뚫어번지던 애국심이 과연 현숙씨의 그 의협심보다 못한것이였겠소?》

나는 박현숙의 눈치를 재빨리 살피고나서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내 생존방식이 어떻게지간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제발 나를 다치지 말아주오. 현숙씨도 잘 아다싶이 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요. 속세에 휘말려들지 않고 자기의 리념을 지켜 깨끗한 양심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것이 나의 신념이요.》

《아니예요. 대접씨, 인간이 사회의 구속에서 해방되기전에는 절대로 자유로울수 없어요. 그러자면 반드시 이 사회를 뒤집어엎고 주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현숙씨는 자기의 신념대로 제 갈길을 가시오. 나는 민족적 리념을 간직하고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겠소.》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나는 다시금 박현숙의 얼굴을 여겨보았다. 보매 그는 내 말뜻을 음미해보는 모양인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방금전까지 현숙이 불을 때고 닥달질을 한 방안은 더욱 아늑했다. 가마뚜껑짚에서 이따금씩 푸푸거리며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릴뿐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져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들러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박현숙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높게 방안을 울리었다.

《대접씨는…어학으로 민족의 뉘를 지킨다던 그 불같은 열정은 어디다 집어던지고 이 산골에 은퇴했는가요? 남편의 리념을 지켜주겠다고 불원천리 따라나선 안해의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한 대접씨가 민족적 리념을 지킨다구요? 송경아가 낫설은 북방의 험한 령길에서 동상을 입고 산후탈에 죽은것이 바로 일제놈들때문이라는것을 모르고있는 선생에

게 과연 민족의 얼이 살아있다고 보아야 할가요?
그리구...》

《그만하우!》

나는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앓은병이 책상모
서리를 힘껏 내리쳤다.

붓통이 넘어지고 벼루에서 먹물이 튀어올랐다.

《인간의 량심을 모욕하지 마우. 내 안해를 모욕
하지 말란말이요. 송경아의 죽은 녀은 남편인 내가
지켜주지 박현숙씨-당신더러 지켜달라진 않소!》

나는 먼길을 달려온 사람처럼 숨을 헐떡거리었
다.

오래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문밖에서 딸애가 사금파리를 가지고 노는 소리
가 들려왔다.

박현숙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었다. 그는 가
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생각을 고르는것
같더니 나직이 말했다.

《제가 지나쳤으면 용서하세요. 전 다만 대섭씨
가 말하는 민족적 량심을 지키는 길은 일체와 맞서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것을 빨리 깨달았으면 해서
...》

박현숙은 천천히 일어나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
를 한다음 조용히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가 나간다음에도 그자리에 굳어진듯이
한참동안이나 앓아있었다.

(도대체 저 녀자는 어떤 녀자인가?...)

나는 딸애가 방으로 들어와 무르팍을 잡아흔들
어서야 비로소 깊은 상념의 세계에서 깨어났다.

딸애의 얼굴에는 눈물자욱이 력연하였다.

《너 누구하구 싸웠니?》

내가 놀라며 물었다.

《아버진 왜 아지미를 쫓아보냈나?》

《쫓아보내다니? 너 그게 무슨 말이나?》

《아지민 울면서 뒤산을 넘어갔다.》

《뭐-라구??》

나는 박현숙이가 나간 부엌문쪽을 멍하니 바라
보았다.

《아버지, 저거,》

이번에도 멍청하니 앓아있는 나를 딸애가 깨우
쳐주었다.

《?...》 나는 딸애가 가리키는 찬장열을 여겨보
았다. 거기에는 베보자기를 덮어놓은 닭다리소반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안해가 생시에 남편을 위해 이
사집우에 없어가지고 다니면서 소중히 여기던 가장
집물의 하나였다.

나는 무릎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베보
자기를 벗기었다. 그런데 소반우에는 뚜껑을 덮은
나와 딸애의 밥사발이 놓여있었고 접시에는 두부구
이와 고사리볶음 그리고 어디서 구한것인지 세마리
의 가재미썰이 담겨져있었다.

《이진 뭐냐? 너 밥 해달라구 졸랐니? 아버지가
아침에 나무하러 갈 때 네 점심은 밥가마안에 있다
구 일러주지 않았느냐.》

내가 딸애를 돌아다보며 말했다.

그러자 딸애가 초롱초롱한 눈동자로 나를 뵈히
올려다보며 대꾸했다.

《아지미가 그러는데 오늘이 아버지생일날이래.
저기 밥상아래 술병이 있다.》

그제야 나는 소반다리밑에 세워놓은 술병을 띄
워볼수 있었다.

(아! -)

나는 오른손바닥으로 이마를 부여잡으며 두눈
을 감았다. 사실 그랬다. 오늘이 내 귀빠진 날이었
다. 나는 1902년 3월 20일 서울시 서대문동 18
번지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학창시절의 어느날,
나는 박현숙이와 송경아를 이끌고 장마당에 가서
그들에게 빈대떡을 사주면서 생일턱을 낸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날을 박현숙이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던것이다.

나는 최면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밥상
우에서 눈길을 땔수가 없었다.

벌써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 나 배고파.》

딸애가 칭얼대었다.

《그래, 그래 우리 저녁을 먹자.》

나는 소반을 조심스럽게 옮겨놓고 딸애와 마주
앉았다.

내가 술병을 집어들자 딸애가 그것을 빼앗아들
며 종알거렸다.

《아지미가 그러는데 오늘 저녁은 이 술을 내가
꼭 아버지한테 부어드려야 한다구 했어.》

《그래! ... 원 자식두...》

나는 갑자기 두눈에 막을수 없이 고여오르는 뜨
거운것을 감촉하며 떨리는 손으로 밥사발뚜껑을 벗
겨들었다.

딸애가 일어서서 두손으로 술병을 기울여 밥사
발뚜껑에다 술을 부었다.

《옥희가 올해 다섯살이던가?》

《다섯살이지 뭐.》

《아 그렇지, 다섯살이지, 정말 용쿠나. 고맙다!
...》

나는 술과 함께 두눈귀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
물을 삼키었다.

나는 딸애의 손목을 꼬당겨 그 애를 나의 품에
꼭 그리안았다. 그리고 나의 젖은 볼을 그 애의 보
드라운 볼에 마구 비비었다. 그러면서 정신나간 사
람처럼 중얼거렸다.

《옥희야,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말처럼 아버지
가 아지미를 쫓아버렸다. 아- 하지만 그렇게밖에
할수가 없었구나. 그렇게밖에...》

밤은 아주 캄캄해졌다.

박현숙이가 넘어갔다는 뒤산에서 소쩍새가 울기 시작했다. 그 산너머에서 이그리진 보름달이 솟아오르자면 아직 멀었다.

팔애가 석유등잔에 불을 켜달았다. 이 일은 팔애가 매일저녁 일과처럼 하는 일이었다.

희미한 등잔불빛에 처음 눈에 띄우는것은 낮에 박현숙이가 닦아놓고간 가마뚜껑과 그릇가지들이었다. 그것들은 마치도 그 무슨 여운의 감정을 가진 생물체와도 같이 씩씩이 반짝거리고있었다.

《아버지, 아지미가 나한테 창가를 배워주었어.》

문득 팔애가 자랑했다.

《창가를? 참 우리 옥희가 창가를 잘 하지. 그때 무슨 창가를 배워주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 어디 해봐라.》

나는 취기를 느끼며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잠시후에 팔애의 여리고 맑은 목소리가 조용히 방안에 울려 퍼졌다.

...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

(고향도 버리고 민족의 열도 버리고 산설고 물설은 이 산간오지에 와서 안해마져 버린 아- 이 무력한놈아! ...)

나는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1983년 3월 25일

어제밤 내가 사는 상화마을에도 농민상조회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나는 그 회합에 가지 않았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 마을에 농민상조회와 야학을 합법적으로 내오려고 하는데 온성과출소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동요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애를 먹었다는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령남잡화상 박현숙이라고들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근 열흘동안 지척에 와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민상조회나 야학을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조직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녀자의 몸으로 남의 집에서 때식을 얻어먹고 쪽잠을 자면서 고생이 많았으리라는것만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그 녀자는 그 모든 고생을 참으면서도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사실 이 상화마을에서 그한테 우리 집만큼 가까운 집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는 오지 않았다. 그가 오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를 오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

마음이 괴롭다.

허나 우리는 서로 다른 리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쩔수가 없지 않는가.

이런 때는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팽이로 터발을 두지기 시작했다.

이제 이 터발에다가 감자를 심고 돌레에는 줄당콩도 심으며 이랑사이에다가는 강냉이도 심으리라. 그리고 날씨를 봐가며 진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 땅은 노력한 인간에게 그 대가를 줄것이다. 인간들도 땅처럼 서로 속이고 의심하며 죽일내기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1933년 3월 31일

나는 일생 처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 모질게 욕지거리를 했다. 분김에 한 일이지만 가슴이 내려가지 않는다.

바로 엿그제 저녁이었다. 마을앞 산자락에 띠엌 띠엌 자리를 잡은 초가집들쪽에서 난데없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그러자 방문이 발칵 열리면서 팔애가 달려나왔다.

《아버지, 나 아지미 만나러 갈래. 아지미가 오늘 야학생들한테 공책이랑 나누어주는데 나두 주겠다구 했어.》

《뭐라구??》

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마을에 농민상조회와 야학이 조직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여기가 질리는것 같아 한순간 뿔뿔치 못한 감정에 사로잡혀있었으나 인차 잊어버리고말았다. 그런데 정작 종소리가 울리고 팔애까지 떨쳐나서자 아연해지는 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옥희야. 네가 거기에 가면 아버지가 혼자서 심심해 어찌겠니? 아버지가 공책두 주구, 연필두 주구, 글두 배워줄테니 가지 말아라.》

나는 팔애를 부드럽게 열리였다.

《아니야, 아지미는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알아. 노래두 배워주구.》

《아버지두 노래를 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난 그런 노래 싫어. 자유의 강산에... 하는 노래가 좋아, 거긴 풍금두 있어. 아지미는 풍금두 잘타.》

이때 또다시 종소리가 울리였다. 땅거미가 지는 마을에 긴 여운을 남기며 한번 또 한번 울려퍼지는 그 종소리는 마치도 그 무슨 마술의 힘을 가진듯이 나의 팔애를 마당에서 끌어내었다. 나는 팔애를 다 쫓아가 그 애의 손목을 그려잡았다.

《안된다. 넌 거기 못가!》

《싫어, 난 갈래.》

《안돼, 못가!》

《난 갈래. 난 갈래 씨...》

《뭐가 어째? 이놈의 제집애야. 애비속은 모르구 …》

그다음엔 나도 리성을 잃었다.

딸애는 엉엉 울면서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이날밤 딸애는 저녁도 안먹은채 아버지를 등지고 누워서 흐느낌을 그치지 못하였다.…

이튿날 해가 서산에 기울자 내 마음은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마을에 땅거미가 지면 엇그제처럼 저 산자락초가집 아근에서 또다시 종소리가 울려올것이며 그 청아한 메아리는 집집의 피창문들을 두드리고 평온하던 나의 사색과 생활에 파문을 일으키며 내 품에서 딸애를 불러내갈것이다. 박현숙이가 이 상화마을에 나타나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내가 그처럼 완고하게 지탱해오던 《상아탑》의 울타리가 뒤흔들리우고있다. 도대체 그 녀자에게 내재하고있는 무엇이 그러한 무서운 힘을 날게 하고있는가?…

내가 환각에 잠긴채 토방우에 앉아있는데 웬 더벅머리 총각애가 내앞으로 급히 다가왔다. 그 애는 내앞에 와서 코가 땅에 닿게 절을 한 다음 꺾꺾 막히는 숨을 몰아쉬며 떠름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누님이 정신을 잃고 자리에 누웠수다.》

《너의 누님이 누구냐?》

《저… 령남잡화장사를 모르심둥?》

《령남잡화장사? … 현숙씨한테는 너같은 동생이 없는데 …》

《예. 우리는 며칠전에 마을에 <친목회>를 있었는데 령남잡화장사누님과 나는 서로 의형제를 맺었수다.》

《그래?… 그래 어째서 앓아눕게 되었느냐?》 하고 나는 토방에서 벌떡 일어났다.

《글쎄 우리 누님두 사람인데 무쇠덩인들 건디여 내겠소다? 야학방 바람벽 흠대질을 한다, 흑판을 만든다, 저 종성읍에 넘어가서 달구지에다 풍금까지 실어왔수다. 돈두 적지 않게 먹이는것 같습디다 … 그러다가 그만 오늘아침에 자리에 누웠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오다. 이따금 헛소리를 하군하는데 서울집 옥희이름하구 한대섬씨라는 이름을 번갈아 곱씹어 부르군하오다. 그 정상을 굽어보던 우리 할아버지가 아무래두 무슨 연고가 있는것 같은데 어서 서울집에 가서 알리라구 해서 이렇게 왔소다.》

《가만… 빨리 나를 거기루 안내하라구. 옥희야, 아지미가 아파서 누웠단다. 자 총각이 어서 앞서라구.》

나는 저도 모르게 부산을 피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참후에야 세칸들이 복도식 초가집앞에 가닿을수 있었다. 그 집의 높지 않은 굴뚝쪽 처녀에는 장짜개단지만한 구리종이 매달려있었다.

나는 더벅머리를 따라 옷방으로 들어갔다. 구름노전을 깬 방안의 오른쪽 벽에는 자그마한 흑판이 걸려있고 왼쪽에는 조선지도가 걸려 있었다. 그 아

래구석에 낫은 발풍금이 있었다. 그옆에 자리를 펴고 박현숙이 누워있었다. 의식을 잃은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였는데 환자의 머리맡에서는 외태머리에 빨간 땀기를 들인 처녀애가 뽕수찜질시중을 들고있었다. 거기에서 멀찌감치에 턱수염이 기다란 백발의 로인이 울방자를 틀고앉아서 심란한 표정을 짓고 장죽을 빼금빼금 빨고있었다.

그 량옆에 처녀총각애들과 나이지숙한 사람들이 묵묵히 박현숙의 얼굴을 여겨보고있었다. 그들 중에는 오래전에 나한테 세상에 귀신이 있는가고 허망한 질문을 해오던 아낙네도 있었다.

《아무래두 안되겠다. 의원을 불러와야지. 인사불성이 된 사람을 눕혀놓구 뽕수찜질만 하다니 …》

백발의 로인이 장죽을 뚫재털이에 털며 혼시를 했다.

이때 더벅머리가 로인앞으로 다가가며 알렸다.

《할아버지. 서울집선생님이 오셨수다.》

《음- 이제사 오셨구만! 애 쌍가매에미야. 선생께 방석을 가져다드려라. 야학방이 아직 어지럽지만 날래 거기 편안히 앉읍소.》

《예 고맙습디다.》

나는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박현숙의 옆에 두릐를 꿇으며 엉겨주춤 앉았다.

로인의 옆에 앉은 여러 쌍의 눈들이 나를 지켜보았다.

《이 귀인은 저 까막눈들을 띄워주겠다고 불철주야로 때식마저 건드면서 혼자서 애를 쓰더니 저렇게 인사불성이 되었소. 얼마나 서울집선생을 기다렸겠는지 헛소리를 해두 곱씹어 외웠는데 이제사 이렇게 왔구만! …》

로인이 박현숙의 얼굴을 굽어보며 시조를 읊조리듯이 말했다. 석식한 그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화황 달아오르는 얼굴을 쳐들수가 없었다.

옥희가 어느새 살그머니 박현숙의 머리맡에 가앉아서 그 녀자의 머리를 짚어준다.

한식경이 지났으리라고 생각될 때에 박현숙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녀자의 갈라터진 입술이 약간씩 움직이는가싶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옥희가 왔구나! …》

《아지미, 어디가 아프냐?》

옥희가 박현숙의 손목을 꼭 잡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아니, 아지미는 아프지 않다 … 아- 대섬씨, 오셨군요! 이렇게 누웠습디다. 용서하세요.》

그 녀자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진정하오, 현숙씨.》

《음- 이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군!》

백발의 로인이 무릎걸음으로 박현숙의 머리맡에 나앉았다.

박현숙은 로인을 올려다보며 두눈을 깜박거렸다.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야학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 정말 야학시간이 되었지.》

《그러면 종을 올려야지요.》

《옳거니! 종을 올려야지. 쌍가매야, 종을 올려라-》

그러자 더벅머리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후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땡- 땡- 땡...》

박현숙의 조깅이 인 입술사이로 흰 이가 보였다.

그는 행복의 미소를 짓고있었다.

《!...》

나는 그 여자앞에서 움직일수가 없었다.

1933년 4월 4일

오늘은 한식이다.

나는 아침일찌기 딸애의 손목을 잡고 안해의 산소를 찾아 떠났다.

안해가 묻힌 저 양지마을 앞산에는 벌써 푸릿하니 봄빛이 짙어간다. 멀리서 불어오는 미풍에 만물이 소생하는 숨결이 들리는상실기도 하다. 이 봄과 함께 안해도 소생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산소까지는 십리도 훨씬 넘는 길이였으나 어느새 저 로송아래에 안해의 분묘가 보인다.

이렇게 빨리 와달게 된것이 아마도 저 땅속에 누워있는 안해의 넋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기때문이다. 아닌가고도 생각된다.

안해의 무덤을 지적에 바라보며 걸어가던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진듯 서버리고말았다. 웬 녀인이 나의 안해의 무덤앞에 쪼그리고 앉아있었기때문이었다. 흰 목도리, 자주색 저고리에 잠장치마...

(아니 박현숙이가?!...)

그렇다. 그는 바로 박현숙이었다. 그 녀자는 마치도 무덤속에 누워있는 나의 안해와 무슨 이야기를 속삭이는듯이 동그란 어깨를 낮추고 앉아있었다. 그의 앞에는 매화나무꽃뭉음이 놓여있었다.

그것은 생전에 경아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아지미!-》

이때까지 박현숙을 지켜보던 딸애도 마침내 그를 알아보자 내 손목을 뿌리치고 그 녀자한테로 새처럼 달려갔다.

박현숙이가 깜짝 놀라 일어서며 이쪽을 향해 돌아섰다. 그 찰나에 옥희가 그 녀자의 품에 와락 안기었다.

《옥희야!...》

내 딸애의 등어리를 쓰다듬어주는 그 녀자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묘지앞에 다달은 나는 박현숙이가 가져다놓은 매화꽃송이를 이윽도록 내려다보았다. 그 녀자도 옥희도 우리 세사람은 약속이나 한듯이 매화꽃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현숙씨, 고맙소!...》

나는 아직 완쾌되지도 못한 몸으로 이처럼 나의 안해를 찾아준 박현숙에 대한 감사의 감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지 몰라 그의 수척한 얼굴만 마주볼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묘지앞에 앉았다.

나와 옥희가 묘지에다 차례로 술을 부었다.

그다음, 박현숙이 옥희의 손에서 술잔을 받아쥐었다. 내가 그 녀자의 술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박현숙은 그 술잔을 들고 무엇인가 망설이는것 같더니 무덤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경아야, 학창시절에 나는...》

그 녀자의 목소리는 비감에 떨리고있었다.

《학창시절에 나는 너한테 내 고향 회령에 함께 와서 백살구를 따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나는 너한테 이렇게 술을 붓는...》

그 녀자의 눈에서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방울방울 그가 든 술잔에 떨어져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박현숙은 눈물을 씹어삼키며 계속했다.

《...우리는 조선사람에게 온갖 고통과 재난을 들썩은 일제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너의 원쑤를 갚아주마!》

말을 마치고나서 그 녀자는 묘지에다 떨리는 두손으로 술을 부었다.

약 한시간후에 우리들은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개울을 지나 달구지길에 나섰을 때 박현숙이 걸음을 천천히 하며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대섭씨, 한가지 긴요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무슨 부탁인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그럼 후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어요.》

나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1983년 4월 21일

요즈음은 마음이 산란하다.

《상아탑》의 울타리속에서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던 나였지만 사람이 그리워진다. 이 마을에 야학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 그날부터 그 누구도 우리 집 마당에 발길질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박현숙이한테서 떨어질 줄 몰랐으며 그 녀자는 무서운 힘으로 마을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제는 딸애도 막아낼 힘이 없다. 오늘도 그 애는 늦게야 돌아와 저녁술을 놓기가 바쁘게 네활개를 펴고 깊은 잠에 푹아 떨어졌다.

그러나 나는 잠이 오지 않는다.

나는 딸애에게 배개를 베워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바로 이때 문밖에서 귀에 익은 녀자의 목소리가 나직이 옥희의 이름을 불렀다,

《?! …》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엌문을 열었다.

나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박현숙이었다.

그 녀자는 부득불 이렇게 늦게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몹시 미안해했다.

《원 별소릴 다하누만. 못을 집에 온것같이. 자, 어서 편안히 앉소.》

나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고 나서 등잔심지를 돌려놓았다. 불빛이 밝아지면서 그의 얼굴을 비쳐 주었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그때에 비하면 얼굴도 훨씬 좋아졌다. 감스레한 살결에 약간 두드러진 광대뼈, 새별같이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며 꼭 다문 입술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리라는 억센 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 녀자는 잠든 옥희의 얼굴을 굽어보다가 흐트러진 그 애의 머리칼을 쓸어넘겨주고 나서 나를 향해 마주앉았다.

《대접씨, 제가 일전에 말하던 부탁을 가져왔어요.》

《무슨 부탁인데?》

《이제 며칠 있으면 만국의 노동자들의 명절인 5.1 절입니다.》

《5.1 절이라… 그래, 그날은 메데의 날이지.》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여 반일인민유격대에 축하를 만들어보내자는 의사가 온성지구내 여러 농민 상호회들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에 축하를?》

《그래요. 바로 그 축기에 선생님의 필체를 담으면 좋겠다고 농민들이 요청해왔습니다.》

(반일인민유격대, 반일인민유격대…)

나는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명사를 곱씹어 외워보며 박현숙의 얼굴을 주시해보았다.

(그러니 이 녀자는? …)

나의 눈앞에는 송경아를 숨지게 한것은 일제놈들이라고 하면서 비통해하던 박현숙의 모습과 진정한 민족의 녀를 지키려면 일제식민지쇠사슬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절규할 때 그 새별눈동자에 비졌던 증오의 빛발이 삼삼했다. 그리고 송경아의 묘지앞에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맹세하던 눈물에 젖은 목소리와 그 녀자가 배워주었다는 혁명가요의 메아리는 내 딸애의 청아한 목소리와 더불어 아직도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현숙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불쑥 물었다.

《이제 와서 대접씨한테 뭘 숨기겠어요. 저는 반일인민유격대정치공작원이예요.》 하고 박현숙은 한마디씩 쏘아박듯이 말했다.

《?! …》

나는 그만 자리를 드리워앉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녀자는 나의 돌변된 감정에는 아랑곳없이 침착한 어조로 계속했다.

《학창시절에는 혁명을 머리속에 그려보며 말로만 웨쳤지만 지금은 혁명하는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보람있게 살아가요. 나에게 오늘과 같은 참된 삶을 주신분은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나는 흥벽이 뿜- 울리는듯한 느낌을 안고 저도 모르게 환성을 내질렀다.

《저, 백두산에 장수가 났다더니…》

요즘 향간에서 전설처럼 퍼지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박현숙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 유격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죽치십니다.》

박현숙의 어조는 부드럽고 조용했으나 나는 어떤 거인앞에 앉은 착각이 일었다.

이어 가슴이 파도처럼 설레이기 시작했다.

잠시후에 박현숙은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헤쳤다. 거기서는 폭이 넓고 긴 붉은 천이 나왔다. 그 천의 세기슭에는 벌써 노란실로 수실까지 해달았었다.

《이 기복의 맨 우에 오각별을 그리고 그 빛발을 배경으로 <축하>라고 크게 써주세요. 그리고 …》

박현숙은 구도와 내용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일러 주었다.

그러나 나는 붓을 들 대신 깊은 상념의 세계에서 헤어나올수가 없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리념을 가졌으니 각자는 제갈 길을 가자고 하면서 박현숙을 쫓아버렸으며 그 녀자가 혼자서 야학을 꾸리다가 쓰러질 때까지 돌아다보지 않으면서도 유지들이나 촌아낙네들의 청탁을 받고 세태적인 의미를 가지는 족자따위를 써주지 않았는가. 거기에 되는데로 휘갈겨쓰던 필체를 어떻게 감히 이 신성한 기발에 옮길수 있단말인가? ...

《현숙씨, 당신은 어떻게 나같은 사람한테 이처럼 중대한 부탁을 하게 되었소?》

내가 부지불식간에 물었다.

그러자 그 녀자는 나를 믿음어린 눈길로 마주보며 확신에 넘쳐 대답했다.

《대섭씨, 민족의 넋을 지키겠다는 그 지향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과 결코 떼여놓고는 생각할수가 없어요... 나는 대섭씨를 지난날에도 믿었고 오늘도 역시 믿습니다.》

《!...》

나는 말없이 벼루에 먹울 갈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지니고있으며 배워온 지식과 재능과 열정을 다하여 붓끝을 달리였다.

...

나는 매개 글자들의 획과 점들에 넘치는 기지를 확인하고나서야 천천히 붓을 놓았다. 그리고 머리를 들어 박현숙을 건너다보았다.

그런데 그 녀자는 벌써 아까부터 나의 얼굴을 주시해 보고있었다.

우리의 눈길은 허공에서 마주친채 떨어질줄 몰랐다.

등잔불은 이밤따라 더 세차게 타오르고 박현숙의 얼굴에는 붉은 기복에서 비쳐주는 진분홍색갈에 어울려 여직껏 그 어느 순간에도 볼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어려있었다.

(아! 혁명이 인간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는것인가!...)

새벽 3시 박현숙이와 나는 약속한대로 왕재산 기슭 타막골너럭바위밑에서 만났다.

우리들의 발밑에서는 검푸른 두만강물결이 유유히 흘러가고있었다.

오늘밤, 박현숙은 온성지구 농민상조회대표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에 보내는 축기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간다.

우리는 벌써 오래동안 마주서있었다.

그러나 무슨 말을 주고받아야 할지 선뜻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대섭동지!》

박현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섭동지,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우면 상화 마을에도 농민상조회와 야학이 조직되어 인민들의 반일감정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다시 두만강을 건너올 때까지 야학을 부탁드립니다. ...》

《현숙동무!》

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현숙동무, 야학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아주우. 가거들랑 김일성장군님께 우리의 인사를 꼭 전해주우! ... 그리고 몸성히 꼭 두만강을 건너오우. 상화 마을의 모두가 기다리오...》

《알겠어요.》

잠시후 박현숙이 아래로 내려갔다. 이때 강기슭의 나무밑에서 기다리고있던 더벅머리가 다른 한 사나이와 함께 쪽배를 밀고 소리없이 나타났다.

미구하여 박현숙이 탄 쪽배는 강기슭을 떠나 차 어둠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쪽배가 시야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그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어제는 박현숙이가 이 자리에서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맞아들이고 또 떠나보내었을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박현숙이가 섰던 자리에서 그를 떠나보내고있는것이다.

(현숙동무,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인간이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넓은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 펼쳐나서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소!)

나는 나를 《상아탑》의 율타리속에서 구원하여 혁명의 길에 내세워준 나의 《선생》- 박현숙이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보며 바람부는 두만강 기슭에 오래오래 서있었다.

1933년 4월 27일

답사숙영소의 밤에

한호

파란 이빨나무잎새사이로 수은등불빛이 은은히 흐르는 답사숙영소의 밤...

하얀 봇나무 아지들에서 밤새들이 온다.

지저귀는 새들이 무엇을 노래하는지 다는 알수 없어도 백두산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며 삼지연못가에 이른 나의 가슴에 하많은 생각을 불러준다.

꼭신한 잠자리, 장마비에 습기가 조금이라도 있을세라 따스하게 덮힌 방... 투사들이 쉬어간 숙영지천막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안은 행복은 너무나도 큰것이다.

이밤 나는 항일혁명투사들이 걸어온 백두의 그 길을 생각하며 잠들수 없었다.

자나깨나 그려보며 달려오고싶던 조국땅, 청봉숙영지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이 찾아온것은 밀영에 신록이 짙어가고 진달래가 떨기떨기 붉게 피어나던 봄이었다.

너대원들은 너무나도 기뻐 진달래송이에 불을 비비며 맑은 이슬을 떨구었고 말수적은 기관총수는 한줌의 흙을 움켜쥐고 구수한 흙내를 맡으며 좀처럼 놓을줄 몰랐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숙영준비를 서둘렀다. 단발머리의 너대원들은 박우물을 판다, 산나물을 뜯는다 분주했고 다른 대원들은 하루밤 쉬어갈 천막을 쳤다. 그 천막밑에 땅에서 올라오는 랭기와 습기를 막기 위해 묵은 락엽을 모아 깔았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잠자리는 바로 이러하였다.

기나긴 항일의 나날에 어찌 이런 잠자리만 있었으랴.

혹한의 긴긴 밤을 이기며 가는 혁명의 길은 참으로 멀고 험난한 시련의 자욱자욱이었다.

사면팔방으로 기를 쓰며 달려드는 적들을 무찌르며 혈전의 언덕 넘어가던 길, 대오에 식량마저 떨어져 풀뿌리, 나무껍질로 끼니를 에우며 설령을 뚫아오르고 오르던 길...

고난이 산악처럼 막아서는 시련속에서도 투사들의 언 몸을 따스히 녹여준것은 그래도 우등불이었다. 눈우에 쪽잠들 때에도 우등불만 있으면 아름다리나무들이 썩! -썩! - 얼어터지는 강추위가 녹아내렸고 적들의 포위속에서 뚫고나갈 새 힘이 솟았다.

그러나 그 우등불마저 어느 숙영지에서나 피울수 있는것은 아니었다. 적들을 눈앞에 두고 숙영하

는 밤이면 대오의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눈속에 굴을 파고 거기서 지새워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럴때면 그리운 조국으로 광복의 봄을 안고 돌아갈 그날을 생각하며 모든 난관을 다 달게 여기었고 항일대전의 충성을 높이 올릴 마음의 불을 지피고 지피었다.

장구하고 준엄한 항일의 길에 투사들이 지핀 우등불은 그 몇몇이요 밀영의 숙영지는 그 얼마이라! ...

낮에 우리가 답사하여온 숙영지들을 돌이켜보는 나의 가슴은 청아한 밤새들의 울음에 실려 밀림처럼 설레이기만 한다.

밀영의 귀틀집들처럼 형식미를 갖춘 답사숙영소의 포근한 요람에 누웠으나 내가 낮에 본 청봉과 건창 숙영지천막에 깔았던 딱딱한 나무껍질이 몸에 마치는것 같다.

나는 해방후 태어난 새 세대로서 고난과 시련을 모르고 자랐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기도전에 나의 어깨우에 내릴 눈비마저 투사들이 백두산에서 다 막아주어 나에게는 포근한 요람과 해빛, 따사로운 맑은 하늘만이 펼쳐져있지 않는다.

그렇다! 은빛철탑들이 하늘높이 일떠서고 풍년나락이 설레이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었고 송아지떼 풀을 뜯는 언덕을 넘어 어린시절 내가 동무들과 손잡고 학교로 가던 그 길이 백두의 그 피어린 자욱자욱에서 이어졌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잊는것보다 더 속된것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혁명의 뿌리가 마련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이 움터온 백두의 그날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잊는것이며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잊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들은 우리 혁명의 거창한 발자취를 따라 여기 백두산지구로 끝없이 찾아오고있으며 숯 한덩이, 구호목 하나, 천막자리 하나에서도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세계를 뜨겁게 받아안는다.

밤새가 온다. 항일대전의 그날을 상기시켜주며 우리 삶이 얼마나 값높은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하며 삼지연답사숙영소의 숲속에서 밤새가 온다. 밤새가...

《조국-생명》

홍창원

세월의 눈비도
씻어가지 못했구나
백두밀영 원시림속
《조국-생명》
구호목의 빛나는 글발이여

배낭속
한줌 흙에 실린
그처럼 소중한 운명이어서
목숨같은 맹세로 새긴 글발이어서
백두의 설한풍도 지우지 못했구나

정녕 떠날 땐
너무나도 비참했던 노예의 운명
한자루의 총도
한줌의 쌀도
줄수 없었던 조국이었던단

어이하여, 어이하여
가랑잎 깔고 자며, 생 눈을 삼키며
혈전만리를 헤쳐야 했던가
서슴없이 한목숨도 내대야 했던가

오, 진정
노예의 쇠사슬에 엉키고
꺼져가던 초불처럼
세계지도우에서 영영 빛을 잃고
사그러져갈 때

아, 우리 수령님
백두의 그 모진 눈바람속에서도
가슴에 안고 잠 못드신 조국이였기에

불길도 시련도 이기시며
필승의 신념으로 안고계신 조국이였기에

가난해도 비참해도
남아준 그대를 떠난 삶을
순간이라도 생각한적 있었던가
판가리 결전의 시각에도
홀로 남은 절해고도에서도

그래서 때로는 속영지의 우등불가
은은한 사향가속에 담아 부르기도 하고
한떨기 진달래 향기속에 그려보던 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너만은 지켜야 했던 그 녀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만리 타향 눈우에 쓰러져
그대 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서도
조국을 생명으로 지켜냈구나

조국이여, 그대의 아들들이 지닌 녀이
백두원시림속에 뿌리내리고
세월의 년륜속에 거목으로 자라
오늘에 물려준 불멸의 글발
내 또한 운명처럼 받아안나니

투사들 한목숨도 서슴없이
조국위해 바쳤듯이
무궁한 세월에 우리 보여주리라 !
아, 《조국-생명》
가장 엄혹할 때일수록
그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함께 온 사람

한익훈

그러지 않아도 숨이 찬데 총국에서 예상치 않은 새 지령이 또 떨어졌다. 지금 몇시게 이제 지령을 주면 어찌느냐고 사령장 권우혁이 딱한 소리를 했으나 소용없었다. 특별지령이니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계획사령들과 이마를 맞부딪치며 간신히 그 대책안을 세워놓고나니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가까이하고 있었다.

권우혁은 방안이 너무 무더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 열어제꼈다. 쇠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소슬한 밤대기가 창밖의 부산스러운 소음을 싣고 훑 끼쳐들었다.

5월의 밤은 깊어가도 조차장은 잠을 잇고 있었다.

불빛이 점점이 널려있는 역구내를 드렁드렁 울리며 메아리쳐가는 운전사령의 곱살긋은 목소리, 외눈배기 전조등으로 앞을 쏘아보며 야단스럽게 드달리는 차갈이 내연기관차들이 때없이 내지르는 기적소리, 멀리 가까이에서 어둠의 장막을 휘저으며 차량들이 이어지는 덜커덩소리... 이밤따라 조차장은 더 중뿔나게 숨가빠하는 것 같았다. 하긴 눈코 뜰 새 없는 판에 또 새 지령을 받아안았으니 그럴 수밖에.

권우혁은 바투 다가붙은 두눈에 코날이 류달리 성깔진 길쭉한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창가에서 물러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등받이에 허리를 기대니 돌처럼 무거워진 몸에서 쇠진한 기력이 죄다 바닥으로 잦아드는 듯싶게 나른했다. 전에는 몇밤을 지새워도 끔찍없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얼핏 잠을 설쳐도 피로가 전신을 나른케 하면서 눈에 피발이 서고 별치 않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못내 서글픈 일이지만 이제 확실히 늙은 모양이다.

담배생각이 났다. 주머니를 뒤져 누렇게 도금한 담배곽을 꺼내드는데 길쭉한 종이장이 하나 꺼물어나왔다.

저녁 교대직전에 받아넣은 막내딸의 지급전보였다. 며칠 후에 백두산 답사를 떠난다는 소식편지에 이어 래일아침 여기 역을 통과한다는 간단한 내용의 이 전보가 날아왔으니 가는 려정에 잠깐 만나 보고싶다는 소리다.

끝 끝한 두 아들녀석 밑으로 고맙게도 막내둥이 딸을 보게 되었는데 애비를 얼마나 끔찍이 따르는지 그도 외동딸에게 각별한 사랑이 간다. 얼굴이 해반주그레하고 몸매가 고와서 장차 춤대학에 간다고 나폴대던 그 애가 돌연 아버지의 대를 잇겠다면서 철도대학을 지망해나섰을 때 권우혁은 목이 껍 잡기기까지 했다.

몇달만에 귀여운 막내딸을 만나보게 될 래일아침이 조금하게 기다려졌다.

담배를 붙여물고 흐뭇이 한모금 빠는 데 책상 위의 지령전화종이 청승맞게 울부짖었다.

(또 무슨 《반가운》 전환가?)

권우혁은 미간에 두눈섭을 잔뜩 모아붙이고 서답지 않게 송수화기를 들었다.

의례 또 총국에서 오려니 했는데 뜻밖에도 관리국의 최승규국장이 걸어오는 전화였다.

《금방 총국지령을 받고 쿵튀뮈 할 줄 알면서 또 렴치없이 달려들어 안했네. 하두 일이 딱해서 그러니 리해해주게.》

부접 좋은 관리국장은 이쯤 변죽을 쳐놓고 금방 광복거리 살림집건설장에서 시외전화가 왔는데 사연인즉 그 사람들이 200 일전투에 진입하여 달라붙은 새로운 건설시공법이 드디어 성공을 보게 되었다면서 처음부터 권우혁의 먹을 단단히 물고늘어졌다.

《긴말 앓겠네. 거기 조차장에 광복거리에 보낼 세멘트가 아직 수십차량 남아있을거네. 수고스러운 대로 하루 앞당겨서 래일아침에 보내줘야 할 것 같애. 그래서 광복거리 건설자들의 사기를 부쩍 올려 주자는 결세.》

(? ... 렬차편성을 하루 앞당긴다구?)

권우혁은 응당 이쪽에서 덩석 받아물것처럼 이야기하는 국장이 너무 턱자없어 허허 웃고말았다.

《국장동진 꼭 자기한테 경사라도 난것 같수다.》

《암, 새로운 시공법이 도입되면 그만큼 건설속도가 빨라지겠는데 그게 어찌 그 사람들의 기쁨으로만 끝날 일이겠나. 광복거리의 건설속도가 빨라지는건 결국 우리모두의 기쁨이구 경사지.》

《거야 그렇지요. 사실 여기서도 광복거리를 언제나 첫자리에 놓고 사령지휘를 하우다. 초저녁에 떠나보낸 화차들중에서도 광복거리의 철강재렬차가 제일먼저 떠났다우. 그런데 지금은 교양이목에 방울달긴것 같수다. 총국에서 내리먹인 특별지령도 이제껏 겨우 비집어넣었는데요.》

《그랬을테지. 그럼 이것도 특별지령인셈치구 좀 풀어주세나.》

《...》

(하 이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권우혁은 손바닥으로 뽀족한 턱만 슬슬 쓸며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 듣고있수다.》

권우혁은 태연하게 응수하며 앞에 놓인 현차판을 끌어당기었다.

거기에는 조차장의 긴장한 현실태가 일목로연하게 함축되어있었다. 어느 선에나 화차번호들이 깨알같이 팍 들어차다. 선밖으로 넘쳐난것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국장처럼 막무가내로 해내라고 내려먹일라치면 권우혁은 쓰다달다 더 싱갱이질 않고 현차판의 수자들을 침착하게 내리엮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리 우직한 저쪽이라 해도 두세선의 수자도 다 귀안에 들이밀지 못한채 손을 털고 나갔었다. 그래서 은연중 그에게는 이 현차판이 어쩔수 없는 객관적 실태를 구구히 설명하지 않고도 대뜸 상대를 석연하게 납득시키는, 말하자면 최종방어의 묘술을 가진 호신부와의 같이 귀중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오늘은 그 《호신부》의 폭지도 떼기전에 국장이 먼저 선손을 썼다.

《그만두라구, 그 현차판이야 들어나마나 또 만탄창이겠지.》

《그러기에 하는 말이우다. 여기 일이 긴장한걸 번연히 아시면서 아님밤중에 흥두깨내밀듯하는 부탁을 또 덜컥 받아놓을건 뭐란말이우...》

《별수 있나, 그 사람들이 버쩍 사기가 충천했는데 찬물을 끼얹을수야 없지 않아. 이복세 사령장, 좀 틈을 띄워보세나.》

《뭇뭇뭇, 틈이라구요?》

권우혁은 불이나 맞은것처럼 펄쩍 뛰었다. 이럴때면 성미가 마른편인 그의 말허두는 한때 동료들이 《뭇뭇뭇》로 별명을 붙였을만치 버릇으로 굳어진 《뭇뭇뭇》로 의례히 번져지기마련이다.

《뭇뭇뭇, 솔직히 말해서 자신없수다. 조차장 여가처기에 백허있는 그 세멘트화차들을 이제 어떻게 일일이 뽑아낸다구 그러시우. 더구나 지령에도 없는 일을...》

《이보오 사령장.》

높지는 않으나 저력있게 울리는 어성에 권우혁은 뒤말을 삼켜버렸다.

《전쟁때 그래 사령장이 지령을 받구 불붙는 포탄화차에 날아올랐었나?》

《...》

너무나도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권우혁은 말문이 껍 막히여 헛기침만 깃었다.

《그 전쟁때의 배심으로 한번 내밀어주게나.》

《?!...》

권우혁은 아연실색했다.

언제나처럼 허물없는 익살로 레사롭게 건네는 국장의 그 롱말속에 뇌리를 자극하는 그 무엇인가가 섬찍하게 번뜩였던것이다. 높고 지친 자신에게서 젊은 시절의 권우혁을 기대하는 국장이 짜장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가슴을 짝- 허비우는것 같은 아픔이 전신을 착잡하게 휩쌌다.

(전쟁때의 배심이라니. 그래 지금은 이 권우혁이가 뭐 제앞처리를 잘못해서 말밥에나 오른단말인가, 흥!)

그는 괜히 축잡허노는것 같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반감에 까닭모를 울화가 불끈 치밀었다.

《뭇뭇뭇 그래 언제 일리게 그러시우. 그때야 젊지 않았수.》

《그러니 지금은 늙었다?!- 사령장이 벌써 60 똥생일상 받을 생각을 하는게 안야?》

국장의 익살은 점점 더 결죽해졌다. 권우혁은 저르기 기분이 언짢았다.

《늙은거야 사실이지요. 나이 권여섯이 어디 작수. 그러나 아직 60 똥생일상 받을 생각은 없수다.》

《성났구만. 룡일세. 그래 정 안된다는건가?》

《뭇뭇뭇 말은 바른대로 곤난하우다.》

《에끼 사람두, 평생 함께 차바퀴를 굴러먹으며 지내온 사이에 너무 매정하구만. 알겠네.》

전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검질긴 국장이 이쯤에서 물러선것은 자못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했고 무엇인가 몹시 불만스러웠다. 국장에게 끝내 시원

한 대답을 주지 못한 마음속의 부담때문만도 아닌 것 같았다.

부지중 세월과 함께 몽롱해져버린 전쟁때일까지 넋 떠들쳐내가지고 통을 먹이던 국장의 전화생각이 떠올랐다.

전쟁때의 배심 ! ... 국장이 한 그 말속에 어쩐지 통답으로만 넘겨버릴수 없는 심중한 그 어떤 암시가 잔뜩 뿔을 돋우고있는듯싶었다.

권우혁은 알지 못할 속박감에서 벗어나려고 방안을 서성거렸다.

전쟁때의 배심 ! ... 전쟁때의 배심 ! ...

참 그때는 권우혁이 최승규의 기관조사로 임명받은지 반년도 되나마나한 흥안의 젊은 시절이었다.

...조사 권우혁은 역장실에 간 최승규기관사를 기다리며 기관차의 옆창턱에 팔굽을 고이고 마라초를 맛나게 태우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을이 피같이 타는 서녘하늘로 적구라망편대가 시꺼멓게 떠올랐다. 그것들은 곧장 조차장으로 달려들었다.

급강하하는 적기들의 날카로운 엔진소리, 눈부신 섬광과 하늘땅을 진동하는 폭음의 연속, 파편들이 공간을 찢는 소름끼치는 휘파람소리... 위협적으로 엄습하는 공포에 짓눌려 어쩔바를 모르던 권우혁은 자기도 모르게 《앗 ! 》 부르짖으며 기관차에서 뛰어내렸다. 자기들이 수송해갈 포탄화차에 붙어 달린것을 띠어본것이다.

이 땅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에게 멸적의 철퇴가 되어야 할 그 귀중한 포탄들이 전선에 가닿지 못한채 여기서 허실된다는것이 분했다.

(저게 어떤 포탄들이라구... 안된다 ! ... 안된다 ! ... 안된다 ! ...)

그는 입술을 피나게 깨물며 불붙는 포탄화차로 달려갔다.

포탄상자들이 만재된 유개화차의 지붕을 파먹으며 불기둥들이 하늘높이 치솟는 화염의 바다, 금시 살가죽이 졸아들며 뒤틀리는것 같은 참기 어려운 뜨거움, 열을 받은 포탄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일발의 순간, 순간이었지만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 포탄화차를 구원해내지 못하고 덜컥 의식을 잃을가봐 겁났을뿐이다.

전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있는 어느 날 전선길수송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최승규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도 이번 수송길에 위험한 고비를 겪었던 모양으로 목에 결맨 붕대피에 한팔을 의지한 부상당한 몸이었다. 온통 팔을 하얗게 휘감고있는 그 붕대투성이에에는 여러군데 빨간 피가 말라붙어있었다. 웃으며 전선길에 떠났다가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한 기관사가 한둘이 아닌 준엄한 그 시절이었다.

최승규는 건너편 침대에 걸터앉으며 흥분해서 말했다.

《축하한다, 우혁이 ! 신문에 기관조사 권우혁에게 국기훈장 제 1 급을 수여한다는 정령이 났더구만.

인젠 나라가 아는 권우혁이다.》

그 말에 권우혁은 눈굽이 찢릿하였다...

거의나 체념해버리다싶이 했던 그 시절이 어찌면 이밤엔 이리도 야릇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죽음도 두렵없이 펄펄 뛰던 그 시절의 젊음을 언제인가싶게 살같이 빠른 세월에 먹혀버린것이 놀라움고 그리고 서운하기도 했다.

전쟁때의 배심 ! ... 전쟁때의 배심 ! ...

정말 그때의 배심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맡겨져도 겁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름지기 국장의 그 간절한 부탁도 군말없이 수나름게 척 받아줄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화차번호가 선박에까지 넘쳐나 있는 현차판이 아물거리며 두눈을 아프게 찢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어떤 어처구니없는 환각세계에 멍청하니 잠겼다나온듯싶은 심정이였다.

그는 허거픈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전쟁때의 배심... 원 천만에, 저 조차장을 대번에 두세배로 불쿠는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라도 빌려오면 몰라라 별 배심을 다 부린다 해도 지금 당장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전화통에 불이 일게 날아드는 지령들, 파업들... 그 하나하나가 200 일전투의 승리를 크게 좌우할수도 있다는것을 난들 왜 모르겠는가. 하나 객관적 조건도 무시할수가 없는것이다. 그래 시원한 대답을 척척 못하는 이 사령장의 마음은 편안할줄 아는가? ...

그는 깊이 타들어간 담배가 손톱눈을 따갑히는 바람에 황급히 열린 창밖으로 내던졌다. 시커먼 공간으로 호를 그리며 날아가던 담배공초가 그만 무엇에 부딪쳐 불꽃을 튀기였다.

방안에서 새어나간 전등불빛에 아름이 번 향오동나무의 줄기가 휘뿔영게 건너다보였다. 전쟁때 조차장역이 폭격을 당할적마다 불에 타고 파편에 찢기면서도 오늘까지 용케 견디여낸 향오동나무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이젠 늙고 기진했는지 구새가 먹어 어린 아이 하나쯤은 얼마든지 비를 그을수 있으리만치 줄기한편으로 움푹 꺼져들었다.

어쩐지 늙고 병든 그 나무를 볼 때면 이 조차장역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늙어오는 자신이 그 어떤 상서롭지 못한 계시를 암시받는듯한 맹랑한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저즈기 언짢았다.

이해봄에도 저 늙은 향오동나무가지들에 새 이 파리들이 피여났던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피여났던것 같기도 하고 피어나지 않았던것 같기도 했다. 어느해나 여불없이 다른 나무들이 시퍼렇게 이 파리를 들쓸때에야 겨우 늦잡에서 깨어나는 향오동

나무인데다가 요즘 일에 쫓겨 별로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었다.

그 향오동나무너머로 못별들이 한가득 널리어 야릇한 웃음을 흘린다. 저멀리 세상 한끝의 밤하늘을 썰며 별찌가 하나 길게 꼬리를 끌며 떨어지다가 꿈속에서처럼 사라진다.



전화가 있는지 얼마 안되어 사령실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은띠가 굵다랗게 돌아간 장령모를 꼭 눌러쓴,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에 우선우선한 얼굴의 관리국장이 성큼 들어섰다.

《그냥 일들 보오. 일들 보라니깐.》

국장은 술뚜껑같이 커다란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령들의 어깨를 다정히 짚었다.

국장의 출현은 권우혁에게 있어서 천만뜻밖이었다. 전화에서 리해시킬만큼 리해시켰는데 무슨 미련이 있어 예까지 또 찾아온것일까? 아니, 여기 온다고 해서 뭐 뻔죽한 수가 생길줄 아는가?

《자, 이걸 좀 보시우.》

권우혁은 빈의자를 내어주며 책상위의 현차판을 가리켰다.

국장은 손수건을 꺼내어 땀발이 선 실박한 목이며 얼굴을 닦으면서 거울진 몸을 의자에 앉았다. 두툼한 입술에 담배를 한대 붙여물고는 머리를 수긋한채 현차판이 구멍나게 한동안 세세히 들여다보았다. 련속 뿔어대는 희뿌연 담배연기가 현차판우에서 파도를 일으키며 그물그물 퍼져갔다.

이윽하여 수염자리가 시퍼런 든든하고 넘죽한 턱이 권우혁을 향해 천천히 쳐들렸는데 담배연기때문에 한눈을 찌긋한 국장의 얼굴에는 별로 시름겨워하는 빛이 없었다.

《만탄창이구만. 그래도 어떻게 좀 공간을 띄워보세나. 독틈에도 용수가 있다잖나.》

《독틈이구 뭐구 저 현차판이 넘쳐난걸 보시면서도 그러시우?》

《...》

국장은 잣게 고개방아를 찢으며 애매한 미소로 응대했다.

권우혁은 가늘게 한숨을 짓고 손등으로 현차판을 울리면서 조차장의 긴장한 실태에 대해서 력설하기 시작했다.

《술직히 말해서 고양이발이라도 빌리고싶은 심정이우다...》

일단 불을 토하기 시작한 권우혁의 《련발사격》은 중단을 몰랐다.

국장은 등을 구불한채 어둠이 드리운 창밖만 우두머니 응시하고있었다. 매듭진 손가락짱에서 허연 재를 위태롭게 쌓아올리며 담배가 저혼자 물물 타들었으나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따금 의혹스러운 표정이 실린 커다란 두눈이 권우혁을 찬찬히 올려다보았다. 짙은 눈섭이 꿈틀

거리는 그 눈길과 마주칠 때면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 무엇인가 암시받는듯한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수가 없어 자못 마음이 심란해졌다.

최승규관리국장은 불타는 화차에 뛰여오른 그 영웅적 위훈으로 하여 권우혁이 사람들을 크게 공감시킨 얼마후에 전시수송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공로로 나라에서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사람이다.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어 불비속을 넘나들던 그 시절의 젊음은 혈기와 용맹이 지금도 그대로 뻗치는지 도무지 일에 지칠줄을 모른다. 과시 영웅이 다르구나 하고 내심 혀를 차게 되지만서두 너무 마음이 헤쳐 어디서 무엇이 제기되면 할건 하고 할건 못하겠다고 랭정하게 잘라낼줄 모르는게 큰 탈인것 같다. 나이도 자기보다 두살우인 그가 모르쇠해도 될 일까지 힘겹게 말아안고 애를 쓰는게 하도 민망스러워 사서 고생한다고 권우혁이 충고한적도 있다. 했더니 국장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어찌겠나, 하고싶은걸. 고충이 있어두 그걸 해내면 그만큼 나라일이 퍼일게 안야.》

이런 사람에게 과연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짜장 이밤에도 인정해폰 국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온(달리는 생각할수 없었다.) 광복거리 사람들에게로 화부리가 날카롭게 돌아갔다.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우다.》

그는 불이 부어 내불었다.

《우린 뭐 팔짱끼고 앉아있는줄 아는가보지요? 그쪽만 그쪽이라니 원 이거야...》

《그만하게.》

국장이 허리를 펴며 두손을 뻗쳐 내저었다. 그냥 내쳐두면 권우혁의 입에서 별소리가 다 쏟아질것 같은 두려움이 든 모양이었다.

《여기 일이 바쁜거야 내 눈으로 다 보고 오는 길이야. 현실은 사령장말보다 더 긴장한것 같더구만.》

《글세말이우다.》

권우혁은 그럼 그렇겠지 하는 표표한 기상으로 가슴을 짝 폈다. 그냥 억지손을 쓸줄 알았던 국장이 여느때없이 인차 리해해주니 무등 반가왔다. 마음의 긴장을 풀며 그는 담배 한대를 뿔아물었다.

《하지만.》

국장은 눈길을 들어 권우혁의 얼굴을 지그시 쏘아보았다.

《어떤 수를 쓰든지 해보자우.》

《예?!》

권우혁은 두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국장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진담으로 하는 소린지 룡담으로 하는 소린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 태연자약하고 혼연한 표정으로 봐서 룡담은 아닌것 같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믿고 해보자는 건가?

《뭘뭘뭘, 해보자구요?》

피우려고 꼬나물었던 담배가 저절로 입귀에서 뿜히여 방바닥에 나떨어졌다.

《이 현차판을 보시구 하는 말씀이지우?》

《건 백번 봐두 뭐 나올게 없네. 난 현차판을 믿고 여기에 온게 아닐세. 내가 광복거리 사람들의 부탁을 자신있게 받아물고 또 여기까지 온것은 전적으로 사령장을 믿은때문이야.》

국장은 또 주머니를 뒤져 담배팩을 꺼내었다.

그러나 담배가 다 떨어졌는지 팩을 우왁지게 줍으로 몽그러서 재떨이에 던지고 손을 내밀었다.

《한대 주게나.》

국장은 권우혁이 내주는 새 담배를 또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불고 방바닥 한 점을 망연히 내려다보면서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뇌었다.

《저쪽에선 그냥 해내래, 이쪽에선 안된대, 이거 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닌가. ...내 눈을 꼭 감구 총국의 지령에 물려 내려떨굴수도 있지만 사령장이 있는데 당초에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지.》

권우혁은 갑자기 국장이 더 늙어버린것 같았다. 성미가 험하고 통질이 심하고 그러면서도 억지손이 센 국장으로만 여겨왔는데 온 얼굴이 무거운 고뇌의 주름고랑으로 주그럭주그럭 패어들어 목메는 동정조차 자아내는것이였다.

권우혁은 이렇게 실망에 빠진 최승규를 처음 보는것 같지 않았다. 그렇다. 그 언제인가도 이처럼 울적해있는 최승규를 보았다.

부지중 정전직후 어느 야유회에서 있는 이어달리기경기가 엇그제일처럼 떠올랐다.

기관사와 조사가 한조가 되어 이어달리기하는 그 경기에서 처음으로 기관사인 최승규가 달렸다. 그런데 워낙 몸이 거울진 그는 저쪽편의 기관사보다 형편없이 뒤떨어졌다. 온 얼굴이 빨갛게 팜투성이가 되어 뚱지작뚱지작 달려오는 최승규더러 권우혁은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좀 빨리 뛰여오구레! 어째 그렇게도 못뛰우... 빨리요... 빨리!》

헐떡이며 뛰여오는 최승규의 손에서 권우혁은 이어달리기봉을 빼앗듯 나꿔챘다.

저쪽편은 벌써 아득히 앞서 달리였다. 고중시절에 시적으로도 이름난 룡상선수였던 권우혁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저쪽편을 따라앞서서 결승선에 들어섰다.

그때까지도 최승규는 잔디밭에 퍼터버리고 앉아 헐떡이며 숨을 토포고있었는데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모르고 한번이지... 아참... 숨이 딱 맥히는줄... 알았다니깐... 어휴...》

최승규는 손을 해해 내저었다.

그 순간 권우혁은 자신보다 최승규가 몇급절이나 더 힘겨웠다는것을 의식했다. 달리기재능이 없

다나니 오히려 힘을 더 뿜으면서도 소득이 없어 쥔 쥔 맨 최승규였다. ...

곰처럼 웅크리고앉아 벌써 줄담배 석대나 뿌렇게 피워올리는 국장이 이어달리기경기에서 망신하고 우울해졌던 그때처럼 몹시 측은하게 여겨졌다. 실상 자기를 믿고 광복거리 사람들과 약속했고 예까지 왔다는 국장을 자신이 너무 노엽힌것 같기도 했다.

아무리 무릅없이 지내는 사이지만 진정에는 무쇠도 녹는다고 국장이 저처럼 속을 태우며 울적해있는데 그냥 강건너 불보듯 아닌보살할수가 없었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으며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이 활짝 꽃피는 광복거리 건설장에 약속대로 세멘트화차들을 보내주지 못할가봐 그토록 안타까와하는 국장의 마음, 그것은 그대로 자신의 심중에도 뜨겁게 마쳐오는것이였다.

그는 두눈섭이 맞붙을 정도로 미간을 잔뜩 모으고 현차판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무리 눈을 밝히고 뜯어보아도 틈새기가 좀처럼 트이지 않았다.

그는 계획사령들한테 다가가 현차판의 선들을 세세히 재검토해가며 심각한 그리고 진지한 의논을 했다. 전례없이 비상한 인내성으로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어 겨우내 틈새기를剔워놓고 건듯 쳐든 권우혁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내번지였다.

그는 두눈을 지그시 감고 최대의 신중성과 치밀성을 기울여 타산한 세멘트화차무이안을 다시 꼼꼼히 음미했다. 화차무이는 그런대로 인젠 전망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다시 얼굴이 굳어지며 무거운 한숨을 내불었다. 마침 조차장에 수리가 끝나 평양 방향으로 떠날 기관차가 한대 있고 세멘트화차무이 방도도 그럭저럭 타산된셈이었으나 당장은 기관사가 문제였다. 대기하고있던 기관사까지 총국에서 떨어진 새 지령을 집행하는데 돌렸은즉 이제 어디 가서 새 기관사를 《모서은다》는건가?

해야 한다는것은 명백했으나 가망성은 매우 적었다. 하지만 요즘 내내 관리국이나 현장에 붙어살다싶이하는 국장의 가슴을 바질바질 태우며 여기에 그냥 꼭 앉혀둘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자신은 없으면서도 이렇게 건네었다.

《좋수다. 해는 보겠지만 기관사가 당장 걸리우다.》

《영?!》

국장의 놀라움이 비친 얼굴이 번쩍 들리였다. 우울해있던 두눈에 정기가 돌고 주름고랑이 패이여 컴컴하기만 하던 얼굴에 혈조가 번지였다.

그는 텅겨나듯 자리에서 일어나 권우혁의 두팔을 덥석 부둥켜안았다.

《그래 기관사만 있으면 풀리겠나?》

《글세 우선은 당장 걸리는게 기관사우다.》

《그럼 됐네. 기관사는 마음놓게나. 기관사는 나와 함께 왔으니깐.》

그때 벽시계가 한점을 땡 쳤다.

《이크, 서둘러야겠네.》

국장은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재털이에 꼭 눌러버렸다.

《그런데 어느 기관사를 데리고 오셨수?》

《어느 기관사?》

국장은 일순 어정쩡해있다가 능청스럽게 한눈을 찔끔했다.

《어느 기관사랄게 있나. 우리 관리국에 기관사 출신일군이 좀 적었어. …서로 오겠다고 야단치는 걸 겨우 한명 선출해서 데리고 왔지.》

《여하튼 됐수다. 그럼 우리 어찌하나 해보겠으니 국장동진 어서 집에 들어가보슈. 며칠내내 현장에 붙어살았다는데 오늘은 꼭 집에 가서야 하우다. 몸도 좀 돌보아야지 젊었을 때와 다르우다.》

《그래 그래, 인제야 발을 쭉 펴고 자볼판이지. 사령장, 정말 고맙네. 그럼 수고해주게.》

권우혁은 국장이 황황히 사라져버린 출입문을 열없이 지켜보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울진 몸집을 흔들며 달려나가던 국장의 모습이 문가에 여전히 그대로 어려있는듯싶었다. 국장이 나가고보니 이상하게도 사령실이 행뎡그레 빈감이 든다.

그는 계획사령들과 이마를 맞대고 구체적인 세멘트화차무이대책을 짜기 시작했다. 일단 해야 할 일로 결심된 이상은 조차장의 체면문제로 심중히 여겨졌다. 쉽지 않은 신고끝에 드디어 차무이표가 작성되어 운전사령에게 넘어갔다.

레도조명판앞에 앉아있는 운전사령이 곧 세멘트화차무이를 지휘했다. 그 특징적인 억양의 곰살궂은 목소리가 확성기를 드렁드렁 울리며 조차장에 메아리쳐갔다.

《최승규관리국장동지와 함께 온 기관사동무… 빨리 <붉은기> 506 호에 올라 5 번선을 차치하시오. … 곧 세멘트화차무이를 시작합시다…》

×

활시위처럼 팽팽히 썩었던 한밤은 그 문제의 세멘트화차무이까지 끝내는것으로써 순조롭게 지나갔다.

권우혁은 너무 무더워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 열어제겼다. 탁하던 방안이 푸름하니 눈을 뜬 5월의 달콤한 새벽훈향에 시원하게 젖어들었다.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일별하는데 시커멓게 마주 서있는 늙은 향오동나무가 비상한 힘으로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그는 창턱을 움켜잡고 갈래갈래 뻗어나간 나무 가지들을 눈여겨 살폈다. 저절로 안도의 숨이 내뿔려였다. 가지마다에 연록색 이파리들이 새파랗게 뒤덮였다. 늙고 병들고 지쳐서 이 봄에도 과연 다시 살아 이파리들이 피어났을가 은근히 걱정스럽던 늙은 향오동나무가 변함없이 푸르싱싱한 새 이파리들로 단장한것이 그지없이 장하게 여겨졌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땅속깊이 뿌리를 내리고 청청한 활기로 새봄을 맞은 그 늙은 향오동나무너머로 수십개의 궤도우에 일매지게 늘어선 열차들이 광장에 정렬한 열병식대오마냥 장엄하게 안겨왔다. 어느때없이 들볶이운 한밤이었지만 맡겨진 일들을 다 끝낸 공지와 자부가 가슴 그득히 실렸다. 한밤 정신없이 일에 치웠다가도 이런 아침을 맞는 것에 평생 조차장에 뿌리내렸는지도 모른다.

문득 책상우의 무선전화가 으르렁대었다.

《사령장동집니까? … 이거 야단났습시다.》

운전지휘원이 바빠맞아하며 말을 더듬었다.

《당장 광복거리로 갈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겠는데 기관차에 와보니 기관사도 조사도 다 없습시다.》

《뭇뭇뭇, 없다는게 무슨 소리요? 국장동지와 함께 온 기관사가 있잖소.》

《무슨 도깨비감투꾼인지… 여하튼 전화를 바꾸겠습니다.》

송수화기가 찌르럭거리더니 걸걸한 음성이 터져나왔다.

《날세, 최승규네.》

권우혁은 어리땡땡해졌다.

《뭇뭇뭇, 국장동지가 어떻게?!… 아니 온밤 조차장에 그냥 있었수?》

《그래 그래, 이런 밤이야 열밤 샌들 꿰라나. 광복거리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정말 고맙네.》

《…》

권우혁은 손바닥으로 뽀죽한 턱만 쓸었을뿐 아무런 응수도 할수 없었다. 참 이런 때는 누가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것인가? …

《어찌 인제 떠나도 되겠나?》

《뭇뭇뭇, 국장동지가 물겠나구요?!》

《그럼, 제 한일 제가 끝장보아야지.》

《그런데 국장동지와 함께 온 기관사가 없다는게 무슨 소리우?》

《함께 온 기관사라니? !》

《뭇뭇뭇, 어제날의 기관사출신의 일군을 함께 데리고 왔는지 않았수?》

《그래 그래, 데리고 왔지. 지금 여기 함께 있네.》

《함께 있다니요? !》

《실은 내가 어제밤 사령장을 좀 업어넘겼네. 내가 기관사노릇을 하했다면 사령장이 필쩍 뛰었을거란말이야. 하긴 젊은 시절을 생각하며 한밤을 조기였으니 까짓것, 그 젊은이도 함께 온셈 치세나.》

그리고 국장은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크게 껄껄 웃었다.

하지만 권우혁은 웃기는커녕 가슴 한복판을 둔한 쇠뭉치에 쿵 되게 얻어맞는 심정이었다.

《이봄세, 사령장.》

국장이 웃음을 걷고 친근하게 건네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어제밤에 이 일이 아예 찌부러지는줄 알았네. 믿고 온 사령장이 맥을 놓고 우는 소리만 하니 일이야 랑패를 본게 아니겠나.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받들어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던 권우혁이 이 성스러운 200 일전투장에서는 아예 뒤걸음친단말인가 하는 생각에 별루 마음이 울적해지더구만. 지금 생각하니 괜한 걱정애 속을 썩였던단말일세. 권우혁이 권우혁이겠지 어디 갈데 있나.》

《...》

권우혁은 슬슬 쓸던 손으로 뽀족한 턱을 콕 움켜쥐고 그만 화석처럼 표정이 굳어졌다. 금시 온몸의 피가 머리로 옥 몰려오르는것 같으면서 가슴이 널뛰듯했다.

국장의 말을 듣고보니 정말 지난 한밤 자신도 모르는새에 젊은 시절의 그 권우혁이로 부활하여 레사로운 생각으로는 당초에 접어들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스스럼없이 해제끼는듯싶었다.

권우혁은 지난 한밤이 놀라우게 돌이켜졌다. 저 5 번선에 길게 늘어진 세멘트렬차가 자신이 해낸 일이면서도 어쩐지 제스스로 해낸것 같지 않기도 했다.

현차판을 탕탕 두드리며 굳이 안된다고 우기던 저 일을 과연 무슨 힘에 이끌려 해냈던가? 이 순간에 그는 그전날 이어달리기경기에서 맥이 빠져 혈떡이던 국장이 지금에 와서는 지쳐서 더 못가겠다고 발버둥칠하는 자신을 한사코 부축해주며 이끌어 가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결코 엉뚱한 생각이 아니였다. 국장과 함께 온 사람이 다름아닌 바로 불비속을 뚫고 사신을 넘나들던 그날의 영웅기관사-최승규관리국장 자신이였음을 놀라우게 깨닫는것처럼 지난 한밤 저처럼 지령에도 없던 일까지 해제낄수 있게 한 크나큰 힘이 무엇이었던가를 권우혁은 건잡을수 없는 충격속에 똑똑히 알수 있었다.

그날의 왕성한 패기와 열정으로 200 일전투장 한복판에 폭 몸을 잠그고 전투의 조직자, 집행자로 투신하는 시대의 산아! 정녕 어제날의 위훈을 더벅찬 전진의 디딤돌로 삼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깨끗한 충성으로 값높게 고여가는 이런 참되고 성실한 지휘일군들이 자기 초소를 책임적으로 굳건히 지켜나가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 성스럽고 보람찬 200 일전투는 조국의 력사에 또 하나의 거룩하고 자랑찬 년류를 빛나게 아로새길것이다.

하다면 언제 포탄이 터질지 모르는 화차에 주저없이 뛰어올라 온몸이 타들면서도 끝끝내 불을 꺼버린 그 용감한 기관조사는 세월과 더불어 자신으로부터 영영 멀어져버렸단말인가? 결코 잃어서는 안될 그 귀중한 녀를 잃을번한 자신을 의식하자 권우혁은 몸서리를 쳤다.

언젠가 최승규관리국장은 《나라가 아는 권우혁》이라고 말했었다. 그랬다. 나라에서는 언제나 권우혁을 잊지 않았다. 정주년명절때면 꼭꼭 기념훈장과 메달을 가슴에 빛내여주었고 관리국장과 같이 동료들은 그날처럼 변함없이 헌신하는 권우혁으로 굳이 믿고있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속에 마음조차 늙어버린 자신이 걱정되어 어제밤 저 국장이 것처럼 우울해졌을것이다. 그리고 이 아침엔 전쟁때의 그 배심으로 일을 해제끼는듯싶은 자신이 못내 미더워 저처럼 국장이 기뻐할진대 실로 지난 한밤이 시대와 인생에 대한 지극히 의의롭고 중대한 진리를 깊이 깨우쳐준 귀중한 순간, 순간으로 여겨졌다.

국장에게 명실공히 시대에 헌신하는 권우혁으로 믿어진것은 천만번 다행스러운 일이였으나 어쩐지 자신이 허상적으로 과장되어 착오를 주고있는것같은 죄스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세월과 더불어 어제날의 위훈철친 권우혁이와 소원해져버린 자신에 대해서 구태여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조건 자신을 굳이 믿어주며 원심을 써오는 국장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것자체가 어리석고 추저운 일로 될것 같았다.

무선전화가 또 으르렁대며 권우혁의 사색을 깨치였다.

《이복세 사령장, 인젠 떠나보겠네, 시간이 급해.》

《뭉뚱뚱 조사도 없이 혼자 어디 가신다고 그러우.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시우.》

권우혁은 덤벼치며 옆에 있는 렬차사령한테 낮교대사령장에게 인계해줄 상황을 중점적으로 여쭙었다. 그리고는 모자를 꼭 눌러쓰고 문밖으로 부랴부랴 달려나갔다.

《부-웅!》

저멀리 세멘트화차들을 늘여단 《붉은기》 506호에서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열창턱에 팔굽을 고인 기관사의 모습이 머리로 희연히 밝아오는 산뜻한 아침하늘을 배경으로 우뚝이 안겨왔다. 그 기관사는 분명 굵직한 은머가 돌아간 장령모를 쓰고 옷깃에 큼직한 소장별이 빛나는 국장이였다. 하지만 이 순간은 모름지기 전진길을 떠나던 그날의 영웅기관사-젊은 시절의 최승규로 생각되였다. 그것은 결코 환각이 아니였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 그날의 혈기왕성한 최승규기관사였다.

그렇게 보는 자신도 심신에 이 밝고 산뜻한 5월의 아침처럼 끝없이 청신한 활기와 욕망이 구름처럼 부풀어오르는듯싶었다. 그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냥 걸어가기엔 무엇인가 성하지 않았고 몹시 조급했다.

《왜 뛰어오나? ... 그러다 넘어질라구...》

국장이 의아한 눈길로 지켜보다가 꺾꺾 웃었다.

《하긴 넘어질번했수다. 그러나...》

권우혁은 그냥 속도를 늦추지 않고 혈금씨금 달
려가 기관차의 철사다다리란간을 틀어잡았다.

《그러나 벌써 넘어질수야 없지요. 나도...》

그는 이 순간 국장에게 많은 말을 하고싶었지만
갑자기 목이 꼭 잠겨져 마른 침을 꿀꺽 삼키었다.

운전지휘원의 출발신호가 내렸다.

《붉은기》 506 호는 경쾌한 기적소리로 아침대
기를 진동하며 출발선을 천천히 떠났다.

빨간 해가 솟아오르는 저멀리 수평선을 향해 끝
없이 끝없이 뻗어나간 두가닥의 레루, 눈이 오나 비
가 오나 찬바람이 부나 한치도 드림없이 궤도를 따
라 즐기게 달려가는 기관차... 권우혁은 난생처음
기관차에 올라보던 그날처럼 자신의 생활에 사변적
인 전환점이 도래한듯싶은 환희에 휩싸였다.

어깨나란히 뻗어간 두가닥의 레루가 해빛에 반
사되어 아롱거리며 눈을 시그럽힌다. 어디선가 취
할듯한 꽃향기가 물씬 풍겨온다.

권우혁은 흥건히 내뺐 얼굴의 땀을 씻으려고 손
수건을 찾았다. 무심결에 주머니속에 집어넣은 손
에 손수건대신 종이장이 잡혀 뻗어터져서였다.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뿔싸!)

이제껏 막내딸의 전보생각을 감감 잊고있었다.
이제 얼마후면 막내딸이 오른 그 려객렬차와 어기
게 될것이다. 이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한채 그냥 역
을 떠나는 딸애의 울적해진 마음이 헤아려져 가슴
이 자못 알찌근했다.

(하지만 보고싶은 딸애야, 오늘은 이 아버지를
원망해도 어쩔수 없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귀중한
걸 얻었는지 난 상상도 하지 못할것이다. 하긴 이제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지금 너희들나이에 절절하게
리해나 되겠는지 모르겠다.)

《이복세 사령장.》

한쪽입귀에 담배를 문 국장이 웃음을 앞세우며
찾았다.

《이자 뛰어오는걸 보니 펄펄 날더군그래. 정전
직후 이어달리기경기때의 꼭 그 젊은 권우혁이 달
려오는줄 알았다니깐.》

(뭘뭘뭘 옛날의 젊은 권우혁!... 그것 참 별일이
다. 신통히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사령장은 지금 기분이 어때?》

《좋수다. 처음 기관차에 올랐을 때처럼 썩 좋수
다.》

《그럴테지. 젊어사는 사령장을 보니 나도 젊어
지는것 같아 막 미칠지경으로 기분이 뜨누만. 노래
라도 부르고싶은걸. 까짓것, 우리끼리데 한번 불러
볼판이지. 뭐드라? ... 그래그래.》

국장은 즐거움에 넘쳐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니
정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을비긴 철길우에 젊은 기관사

석침은 하지만 경쾌하게 울리는 목청이었다.

기적소리 울리며 기차를 몰았네

보통때라면 국장의 음치노래에 배를 그러안고
웃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이 순간은 가슴이 찡 울
리면서 두눈부리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상하게도
전쟁때 불타는 포탄화차에 달려올라가던 그날의 비
상하고 격렬한던 감정이 심신에 꿈틀거리며 되살아
오르는것 같았다.

누를길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도 조용히 노래를
따라불렀다.

포연을 헤쳐온 용감한 그 젊은이

준엄한 그날에도 굴하지 않았네

속담풀이

△ 공부는 늙어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일생 끊임없이 학습해
야 함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 돌도 십년을 보고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무슨 일이나 중단함이 없이 인내성있게 꾸준히
하면 뜻을 이룰수 있다는것을 비유이르는 말

△ 열번 재고 가위질은 한번 하라.

무슨 일이나 신중하게 타산해본 다음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 센바람이 역센 물을 알아본다.

어려운 때에랴야 사람의 진심을 알수 있음을 비
유이르는 말.

당원들 앞으로 !

량덕모

나의 아버지 불비속에서 피흘리고
나의 어머니 폭격속에서 발을 갈던
그 준엄한 날에 울리던 부름소리
세대를 이어 나를 찾는다

당원들 앞으로 !
벼바다 설레이는 앞내벌에 나서도
분수비가 내리는 뒤더기에 올라도
순간순간 깨우쳐주는 소리
200 일전투의 나날이 흐를수록
더더욱 가슴 울려주는 당의 목소리

폭탄구덩이 메우며 이랑을 펴고
허리띠를 조이며 씨앗을 묻던
그 시련의 언덕을 넘어못본
나를 믿어 부르는 당의 목소리

땅과 함께 울고 웃으며
머리흰 로당원들
이런 당의 부름에 나서라고
주먹 들어 나의 입당을 찬성하지 않았던가

바라보면 좋은 땅 좋은 기계
금시 들이당은 금비료 은비료...

무엇이 없고 모자라
푸른 들 푸른 이랑 앞서가며 못다루라

당원들 앞으로 !
내 뚫는 심장으로 받아외우며
오늘도 첫이랑 먼저 타리
언제나 만풍년 안아오리

변덕스런 하늘날씨 맞받아
백가지 농사일 남먼저 하다
때때로 힘이 부치면
나의 입당청원서에
심장으로 다진 맹세를 새겨보리

오, 어려운 날 나의 부모들 썼던 자리
행복한 날 이 아들이 지키여
조국의 국장에 빛나는 벼이삭
그 황금빛이 9 월의 하늘가에 눈부실 때

내 가꾼 이삭의 물결을 부여안고
조용히 불같이 속삭이리라
당원들 앞으로 !
언제든 또다시 불러달라고

그 마음 그 진정에 받들려

김호

내 평양으로
단기 출장가는 몸이건만
광복거리 건설장에라도 가는듯
온 포구마울이 떠들썩하누나

평양역에 내리면
제일 먼저 전해달라고
나어린 아이들도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져오고

건설자 아들을 생각하는
다심한 어머니정인가
한뜸, 두뜸 밤밝혀 누빈
두툼한 솜장갑 안고온 아주머니

부락도 그 몇번

평양으로 간다는 소문 한마디가
불같은 호소로 되였는가
반을 사람의 이름도 없는
지원물자까지 곁쌓여
내 혼자서 가져가기엔
그 지성이 너무도 아름차구나

그보다 더 큰 걱정이여라
광복거리 건설자들에게
이 꾸밈없는 진정
이 불같은 마음
무슨 말로 다 전해줄수 있을것이나

평양으로 가는 사람
 선참 달려가 땀을 바치고
 못가는 사람들도
 지원물자에 담아
 대건설행군에 보조를 맞추는
 광복거리, 광복거리

이렇게 일떠서는것 아니냐
 평양과 먼곳에 떨어져있어도
 언제나 그 거리와 함께 들끓고

언제나 그 거리와 함께 살며 숨쉬는
 인민의 가슴속에 만년초석을 내리고...

아, 우리 당의 원대한 뜻
 건설자들과 함께 빛내려는
 포구마을의 이 진정에 받들려
 온 나라의 이 진정에 받들려
 웅장화려하게 광복거리는 솟아오르누나
 세계의 경탄속에

그날의 그 불굴의 전사들처럼

리광

이밤도 싸운다, 우리는
 필승불패의 우리 당의
 그 엄숙한 전투명령 받들어
 대건설의 장엄한 포성으로
 원썬들의 면상 후려갈기며

이밤도 싸운다, 우리는
 보병삽 틀어쥐고 육박전에 나섰던
 그날의 그 불굴의 전사들마냥
 서리발 미장칼 역세게 틀어쥐고
 원썬의 가슴팍에 불벼락 안기던
 그날의 고지의 중기사수마냥
 용접의 불꽃 세차게 날리며

200 일전투의 불길속에
 낮도 밤도 따로 없는곳
 여기 광복거리 건설장엔
 전화의 날 고지에 낮과 밤이 따로 없었듯
 여기에도 낮과 밤이 따로 없다

오늘의 200 일전투는
 그날의 그 전사들의 불굴의 투지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불타고있거니
 누구의 어깨인들 무겁지 않으랴
 누구의 가슴인들 높뛰지 않으랴

오, 그래서 그날의 전사들
 피흘리면서도 쓰러지면서도
 전승의 광장에 한마음 두고 싸웠듯
 우리 또한
 9 월의 대축전장에

충성의 한마음 없고 싸우는것이여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순간도 잊지 않는것이여라
 50 년대의 그 불굴의 전사들
 전승의 광장에서 수령님께 올린
 그날의 그들처럼 떳떳한 보고를
 그날의 우렁찬 만세소리를

만약 그날의 그 전사들속에
 단 한자욱 뒤떨어진 전사가 있었다면
 원썬의 불구멍 자신이 막기를 주저한
 그런 전사가 단 한명도 있었다면
 그날의 승리의 보고
 그날의 승리의 만세소리
 어떻게 그처럼 떳떳할수 있었으랴
 어떻게 그처럼 우렁чал수 있었으랴

아, 우리도 그들처럼 살리라
 전승의 광장에서
 누구나 다 자신의 목소리로
 위대한 수령님께 승리의 보고 올리고
 조국의 위용을 펼친
 그날의 그 불굴의 전사들처럼

9 월의 대축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보고 올리고
 우리도 그렇게 승리의 만세 부르리
 다진 맹세 끝까지 지킨
 자신의 떳떳한 목소리로!
 자신의 우렁찬 목소리로!

로병의 초상

림종상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새벽에 나는 안골체육촌 건설장을 향해 집을 나섰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듯싶었다. 얼마동안 우산장에서 창작에 몰리다보니 이런 짬을 많이 내지 못했던 것이다. 텔레비존과 신문을 통해 체육촌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한삽의 흙이라도 더 떠놓지 못하면 어쩌랴 하고.

원췌 미제를 격멸하는 조국해방전쟁으로부터 전후 복구건설시기, 천리마대고조시기를 거쳐 속도전의 불바람속에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던 70 일전투에 이르기까지 역사에 큼직한 자욱을 남겨놓은 전투마다 죄다 참가한 나는 비록 이렇다할 위훈을 세우지 못했으나 자기의 량심과 함께 일손을 보태었다는 자부로 하여 생활의 희열을 느끼며 살아왔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광복거리 건설장에 한시바삐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나의 가슴에 용솟음쳤다.

나는 첫 통근차에 올랐다. 나의 심정을 알아주듯 뺨스도 물오리들이 떼를 지어 내려앉은 대동강 반을 따라 패속으로 달렸다.

굽인돌이를 에돌자 룡구공을 런상케 하는 풀색 가로등이 마치 사열받는 병사마냥 짹 늘어선 체육촌거리가 나타났다.

뺨스는 축구장과 송구관을 지나 탁구관앞 광장에서 멎었다.

200 일전투에서 영예의 승리자가 되자고 힘있게 호소하는 대형구호관이 록지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

어데서나 볼수 있는 들끓는 200 일전투장이 한 눈에 안겨왔다.

《야, 이녀석아, 그렇게 엉뚱뚱뚱하지 말고 간간히 살펴가며 모조리 김을 잡아라.》

잔디밭에서 한대의 잡초를 뽑아친 로인이 앞서 나간 아이녀석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들려왔다.

취해진 등만 보이는 목소리의 입자는 이런 대건설장에서는 보기드문 백발의 로인이었다. 분명 장난꾸러기 손자녀석들을 이끌고 온 로인이 아닐가 짐작한 나는 록지쪽으로 다가갔다. 기념비적 대건설장에서 저런 로인을 만나게 된 것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던 것이다.

《수고하십니다. 저 어떻게?》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주름살이 얼굴에 짹 덮이고 귀밑머리에만 내렸던 흰서리가 이젠 눈섭에까지 옮겨져 마치 동화에 나오는 《눈할아버지》 처럼 돼버린 로인은 그전날 우리 중대장이었다.

(공화국영웅을 세명씩이나 배출했던 호랑이중대의 중대장이 벌써 저렇게? !)

나는 제일만 바쁘다고 자주 찾아가보지 못한 옛상관앞에 죄스러웠던 것이다.

《아니 ? ! 작가선생이...》

로인의 얼굴에는 대견한 표정이 어렸다.

《중대장아바이-》

나는 옛상관의 손을 덥씩 움켜잡았다.

호기심어린 애녀석들의 시선을 감촉한 그는 반가움에 젖어오른 눈을 슴벅거렸으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저 손자녀석들이 하두 줄라대기에 따라나왔네.》

그는 핑계삼아 아이들을 여겨봤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군요? 일요일인데 쉬지 않으시구...》

빨간머리수건을 나풀거리며 지나가던 돌격대원 처녀가 깉듯이 인사한다.

《영순이로구나. 집에서 회답이 왔던? 무산에서 오자면 시간이 좀 걸릴게다-》

《고마와요, 할아버지...》

《고맙긴, 어서 가봐라. 바닥깔기는 오늘안으로 끝나겠지?》

《네-》

무산에서 왔다는 처녀는 빙긋 웃고 탁구관안으로 날아가듯 뛰어갔다.

《그냥 설수가 없더군. 별로 보탬은 못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당이 200 일전투명령을 내렸는데 로병이라는게 그냥 있을수 있던가. 오금이 쭈서서 못견디겠더군그래...》

변명이라도 하듯 사실이 길었다.

허나 나는 무심히 들을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마치 351 고지를 탈환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투명령을 접수하자 야전군무자총회의 연단에 달려나가 《351 고지를 피로써 탈환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 우리 전투원들의 충성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전투에서도 저는 지휘관답게 제일 앞장에 서겠습니다 !》고 웨치던 그의 젊은 시절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잘 위장한 색날은 군모에서 반짝이던 붉은 오각 별모표와 신심에 넘쳐 이글이글 불타던 그 눈동자가 불쑥 안겨왔던것이다.

그렇다 !

로병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우리 당이 내린 200 일전투명령을 받아안자 그날의 중대장처럼 젊음을 되찾았으리라. 아니 그보다도 병사의 의리와 량심으로 이 엄숙한 명령을 심장으로 받아안았으리라.

하기에 허리띠를 졸라매던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그날에도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나던 시기에도 질풍처럼 내달리던 70 일전투때에도 그는 언제나 화선에 섰던 병사의 자세로 명령관철의 최선두에서 한생을 하루와 같이 살아왔던것이다.

세대는 바뀌어 어느덧 그도 년로보장을 받았다.

하나 로병은 오늘도 당과 수령의 명령이 떨어지자 전날의 병사처럼 200 일전투장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대를 이을 후대들을 대원처럼 이끌고...

200 일전투원들을 고무하는 취주악선율이 열풍 휘몰아치는 건설장에 울려퍼졌다.

그 장엄한 선율에 맞추어 내달리는 오늘의 벽찬 하루하루는 력사우에 큼직한 자욱, 충성의 자욱을 수놓으며 최후승리에로 육박하고있다.

우리 당이 펼친 200 일전투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량심과 변심을 모르는 충성심에 떠받들려여있기에 벌써 락관적이며 확정적이다.

위대한 령도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선 200 일전투는 이제 또 한고개 조국을 몰라보게 번모시킬것이다. 무궁토록 번영하는 한길에서...

조선사람 그 이름

한철흠

만방의 눈길이 모이는 경기장에
우리의 젊은이들 가슴 펴고 나설 때면
머리 희여진 나이를 잊고
활기로운 그 걸음에
마음의 발걸음 맞추며
내 가슴도 넓어진다
내 힘도 더해진다

그럴 때면
부푸는 궁지가 있어
내 가슴에
이 나라의 인민된 행복이
벽차게 차오른다

높이 솟아오르는
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에 두볼 적시는
그마음에 새겨진 이름
나는 조선사람

이 땅의 샘물
이 땅의 난알로
뼈를 굳힌 몸이어서
위하는 마음인가
이 강토에 태를 묻어
받아안은것인가

바란다고 지닐수 있었던가
만국의 눈길앞에서 배를 갈라
피를 뿌리면서도

철쇄에 묶이운 노예의 이름이었다
넋이 없는 민족의 이름이었다

오, 수령님을 모시어
내 나라의 맑은 아침과 함께
위대한 사상을 안고
세상앞에 당당한 그 이름

우리 당을 받들어
궁지와 존엄 넘쳐흐르는
내 삶의 전부로
간직된 그 이름

그래서 흠어졌다가도 숨어살다가도
찾으며 따르며 안기는것인가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디 가도
떳떳이 가슴펴고 자랑하는것인가

태양이 없이야
항도성 없이야
그 무슨 이 강토의 목숨이었으랴

오, 해와 별 빛나는 나라
이 나라의 공민된 궁지여
나의 피 다 바쳐 숨이 진대도
나의 몸 불속에 재가 된대도
티를 없울수 없는
나의 삶 나의 심장인
조선사람 그 이름이여

한 연구사의 편지

오광호

지배인동무,

지배인동무는 아마 이 주현민이가 보낸 편지를 받고 놀랄것입니다. 수학공식이나 연구논문만 쓰던 조종기계연구소 연구사가 수십대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보내니말입니다. 더우기 나는 《실패한 과학자》, 《기업소에 막대한 손실을 준 연구사》로 지배인동무에게 불쾌한 인상만 남기고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 역시 지배인동무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고 다시는 대상하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때문에 이 글을 보내는가? 그것도 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3년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날은 아주성치는 눈보라로 온 제철소구내가 뿌연 눈가루속에 묻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지배인동무는 《교 13 호》 도입을 중지하고 파철더미로 실어가라는 최종적인 지시를 주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전자계산기 화면만 들여다보고있었습니다. 허나 어느 한 수자도 똑똑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무엇때문에 가는지 의식하지 못한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나 있었던듯 몰아치는 광풍이 온몸을 휘감았고 모래알같은 눈가루가 얼굴을 후려갈겼습니다.

(파철더미? ...파철더미로 보낸단말이지 흥! ... 그런데 이건 뭐가, 바람은 왜 이 야단인가...파철더미라...)

나는 어느덧 지배인동무의 방앞에 가 서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눈앞으로는 지난날 그 방에서 만났던 지배인동무의 모습이 바람처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첫 모습은 내가 《교 13 호》를 싣고 제철소에 도착하던 날, 방안을 거닐다가는 나를 보고 그러다가는 또 눈살을 찌프리며 연구소에서 보낸 공문을 들여다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식경이나 지나서야 지배인동무는 《종소, 한번 해봅시다. 우에서도 지시가 있었소.》라고 말했었지요.

다음은 그때로부터 몇달후 내가 필요한 자재를 보장받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부지배인에게 전화했는데 아직 못받단말이요? 알겠소. 래일 자재과에 다시 가보오.》라며 탁상일력에 신경질적으로 몇글자 적어넣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재를 열흘후에야 받았습니다. ...

드디어 나는 문을 열고 그 낮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가루가 녹은 차디찬 물방울이 관자노

리로 쭈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배인동무는 나를 한번 바라보았을뿐 더 이상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 다. 나는 마지막으로 청원했습니다.

다른것은 다 무시한다고 해도 그 설비에 바친 한 과학자의 5년이라는, 결코 짧다고 할수 없는 그 시간만이라도 고려해달라고요. 지배인동무도 알지만 나는 그 《교 13 호》에 5년이라는 세월을 바쳤던것입니다. 허지만 나의 그 청원에 지배인동무는 랑소로 대답했습니다.

《5년? ...동무는 자기의 5년은 계산하면서도 우리가 본 손해는 생각 안하오? 제철소는 국가기업소고 나는 나라앞에 생산을 책임졌단말이요. 생산을...》

《그러나 이제 한두달만 더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본 손해는 물론... 리익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리익? ...참》

지배인동무는 책상우의 생산일보를 집어들었습니다.

《동무야 1년내내 그 소릴 하잖았소? 여기 온 첫날부터...난 애당초 믿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도 않겠소.》

《지배인동무...》

《그리구 또...》

지배인동무는 손을 들어 내 말을 제지하며 《털어놓고 말해서 난 오늘까지 20년나마 지배인노릇을 해오지만...》 하고는 생산일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기업손실을 내거나 계획을 못해 목이 떨어지는 건 봤어도 새 기술을 남보다 먼저 도입하지 않았다고 자릴 낸 사람은 못봤소.》

지배인동무는 육중한 몸을 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기대고 내려놓았던 일보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배인동무, 이것이 바로 우리 두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주했던 그 일입니다.

그후 연구소로 돌아온 나는 자신에 대한 환멸과 지배인동무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모든것을 포기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어가고말았습니다. 나는 몇몇 친지들과 마주않게 될 때면 현실도입이라는 전제가 없이도 그 학적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는 기초과학을 전공하지 못한것을 탄식하였고 또 그들의 연구과제를 토론하게 되면 《날 못봤나.그건 안되네.》라며 그 도입이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

들에는 될수록 손을 대지 않도록 은근히 권고하곤 하였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이 몇년간 그 어떤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해도 그 도입에는 일체 낯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혹 연구소에서 지시하거나 대상공장들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간이 없다》거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적당한 이유를 대고 깎듯이 사절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배인동무, 우리의 생활은 역시 한 인간이 그렇게만 살도록 결코 외면하고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난해 초, 《전국기술혁신전시회》를 앞두고 새로운 형의 단조로보트를 설계하였습니다. 로보트는 연구소와 학계의 일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그 로보트의 경제적 효과성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만은 별로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배인동무도 기억하겠지만 《교 13 호》도 한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하기에 나는 우리 연구소와의 계약에 따라 그 로보트를 제작하게 된 《B기계공장》에 나가 약 두달동안 일하면서도 그것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시회가 끝나자 곧장 연구소로 돌아와 그에 대한 연구론문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B기계공장》에서 손님 한분이 나를 찾아왔다고 접수에서 알려왔습니다.

《<B기계공장>?...》

나는 무엇인가 짚어는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는 이미 그 공장에서 로보트를 가져다 설치하였으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습니다. 접수실로 향하는 나는 은근히 마음이 긴장해졌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아마 그곳에 가 낯을 익힌 어느 기사나 현장일군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실의 면회자들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나는 접수원에게 묻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대학생교복차림의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저, 주현민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렇소. 그런데 동문?...》

옷차림을 보면 대학생이 분명한데 어떻게 B공장에서 왔다고 했는지 리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전 <B기계공장> 3대혁명소조원입니다. 그래서...》

왜서인지 나는 더 긴장되었습니다. 보통기에 이마가 넓고 눈빛이 류달리 조용해보이는 소조원은 《저, 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라고 하며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좀 조용한곳에 가 이야기하고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소조원과 함께 연구소 뒤마당 포도넝쿨밑에 놓인 긴 의자에 가앉았습니다. 넘적한 포도잎새를 짚으며 초여름의 선명한 해빛이 흘러내려 우리들의 무릎과 발치에서 어그러졌습니다.

소조원은 자리에 앉아서도 얼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망설이는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야 그는 결심이 된듯 천천히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될수록 침착하게 조리있게 이야기하려고 애쓰는것이 알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두달전에 파견됐습니다. 이름은 최영남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대학졸업을 앞두고 동무들과 함께 기술혁신전시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생님이 설계한 단조로보트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착상의 기발함이나 그 동작의 정확성과 유연성보다도 우리가 놀라고 감탄한것은 경제적 효과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명서에 적힌 선생님의 이름과 <B기계공장>이라는 명칭을 몇번이나 읽었고 그후 소조에 파견되면서는 그 공장에 보내줄것을 희망했습니다. 정말 전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장에 가 단조직장을 담당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로보트는 도입되지 못하여 포장을 도로 씌운채 한쪽 구석에 서있었고...》

한줄기 바람이 지나가며 발치의 해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직장장동지를 만나 로보트도 입문제를 알아보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직장장 박상길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사나와보이는 거뭇거뭇한 얼굴이 아니라 그가 오른쪽 팔목에 입묵한 총창을 쫓은 보병총과 《1951. 7.10》이라는 수자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박상길은 내가 공장에 가있을 때 한두번만 아니게 찾아와 《여보 선생, 그 로보트가 되면 우리 직장에 제일먼저 도입되겠지요?》라며 담배 한대를 천천히 피우고 돌아가곤하였습니다. 로보트가 전시회장으로 떠날 때에는 정문밖에까지 따라나와 《꼭 기다리겠다》고 몇번이나 말했었습니다...

소조원의 출현은 나에게 박상길의 그 부탁을 톡 톡히 상기시켰습니다. 그러고보면 이 소조원을 보낸 사람도 그일수 있었습니다.

소조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시간이 바쁠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로선 선생님의 방조가 꼭 필요하기에...》

나는 발치에서 흔들리는 해빛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정지해있기도 하는 해빛, 마치 그것은 소조원의 억양과 표정에 따라 움직이는듯싶었습니다.

문득 나의 귀전에서 눈보라치던 그날 지배인 동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울리는듯했습니다.

《…새 기술을 남보다 먼저 도입하지 않았다고 차릴 낸 사람은 못났소.》

그리고 열일곱번째 시운전을 앞두고 겪었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몇달만에 (그것도 지나가던 길에 잠깐) 도입장에 들어선 지배인동무는 이것저것 훑어보다가 《이번엔 또 몇번째요? 차라리 여기에 드는 돈으로 이런 설비를 사오는게 더 경제적이 아니요?》라며 퍽 웃었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라의 경제에 보탬을 주지 못하는 과학자에겐 그 무엇을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다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

소조원은 나를 보며 대답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대답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배인동무, 그것이 어떤 대답이었겠습니까.

《그럼 소조원동무, 내 한가지 묻겠소. 동문 소조원이니까 공장사람들을 잘 알겠지. 그래 동무 생각엔 그곳 일꾼들이 앞으로 그 도입이 몇달, 지어 1년이상 걸려도 끝까지 지지해줄것 같소?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고 기업소가 손실을 내도말이요?》

《그거야…》

소조원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처녀들처럼 얼굴을 붉혔을뿐이었습니다.

나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아직 생활을 책과 강의에서 배운 그대로 믿고 보는 순진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소조원은 키도 더 작아보이고 얼굴도 더 어려보였습니다.

눈엔 질은 그들이 져고 앞으로 조금 빠져져나온 넓은 이마엔 어울리지 않는 굵은 주름살들이 패여져있었습니다. 아마 그 어울리지 않는 주름살과 표정이 그를 더 어려보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소조원은 일어설념을 하지 않고 발치만 내려다보고있었습니다.

《어쨌든 안됐소. 찾아까지 왔는데…》 하고 말하며 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우리 공장에서 로봇도입을 끝까지 하겠다는것만 담보하면 오겠습니까?》

나는 웃고말았습니다. 확실히 그는 모든것을 단순하게 보는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

소조원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도록 그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는 그가 다시 돌아올것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랐다고 할지, 아니 체철소에서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싶었던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수 없었고 종시 손에 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절름발이연구사》, 《빛을 보지 못하는 창조물》…

×

지배인동무,

지배인동무는 혹 이 편지를 읽으며 《이건 뭔가? 녹거리 참회인가 아니면 나에 대한 비난인가?》 라고 기분나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웁습니다. 나는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이 지배인동무에 대한 비난이기전에 나자신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하기에 그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그대로 적으려고 합니다.

소조원동무가 왔다 간 날로부터 한달쯤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집에서 화분의 흙을 바꾸어주고있던 나는 복도에서 울리는 《계십니까?》 하는 말소리에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나는 흙이 묻은 두손을 벌려든채 엉거주춤 일어서며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문을 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에도 복도에 한달전의 그 청년, 3대혁명소조원이 서있는것이었습니다.

《아니?! …》

나는 진심으로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어서, 어서 들어오오. 내 이 손이,》

나는 서둘러 하던 일을 한쪽에 밀어놓고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소조원은 서가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다.

《왜 서있소. 어서 앉지.》

《책이 정말 많구만요.》

소조원은 여전히 서가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전자공학과 기계공학에 대한 입문서들을 열심히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조원은 얼마후에야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만나볼수록 순박하고 꾸밈새없는 청년이였습니다. 나는 그의 앞으로 방석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전엔 참 안됐소. 리해해주오.》

《…》

소조원은 그날일을 돌이켜보기라도 하는듯 잠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오히려 미안한듯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실 전 오늘도 방조를 좀 받자고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

《전 그동안 많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 저라도 그 로봇트를 도입해보려고…어쨌든 누구든지 해야 할게 아닙니까.》

소조원은 옆에 놓은 가방에서 문건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첫눈에 그것이 내가 그린 도면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단조직장 생산흐름에 맞게 일부 개조하려고…》

《…》

소조원이 내앞으로 도면을 밀어놓았으나 나는 그의 얼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 동무가 정말 그걸 하겠단말이요?》

《예.》

대답은 낮고 짙막하였으나 결심은 확고한듯싶었습니다. 나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나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눈앞으로는 소조원이 앞으로 꺾어야 할 고통과 시련들이 일시에 떠오르는듯했습니다. 더우기 그는 아직 시련이 무엇이고 생활이 어떤것인지 잘 모르는 단순하고 순박한 《햇내기》가 아닙니까!

나는 잠시 소조원을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동무 전공은 뭐요?》

《압착가공입니다.》

《음...》

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단조직장을 담당했는지?》

《예.》

《졸업논문은 뭘 썼소?》

《단조형타의 새로운 재질에 관한 문젠...》

《그럼소?!》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소조원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라면 학술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치있는것이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요.》

나는 흥분했습니다.

《그래 완성은 했소?》

《변론은 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소조원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야 그럴수 있지. 그건 몇번의 시험이나 한두 달에 끝낼 일이 아니요.》

《그래 이번에 대학에서도 소조에 나가있는 기간 논문완성을 위한 준비를 꼭 하라구...》

소조원은 겸손하게 웃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생각해보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분명 그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만들자고 했을것이고 소조원 역시 그것을 희망하였을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전공도 아닌 로봇도입에 손을 댄다면...

《지금 몇살이요?》

《스물다섯입니다.》

《스물다섯...》

나는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혹시 동문 자기를 어리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 ...》

《과학자로서말이요.》

《...》

《소조원동무, 같이 과학을 하는 사람의 립장에서 말쭙 해도 좋겠소?》

《말씀하십시오.》

《글쎄...난 사실 동무의 결심을 반대할만한 근거가 없소. 오히려 고맙고 미안할뿐이요. 그리고 동무의 능력도 민소.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에게엔 전공이라는게 있지 않소? 더우기 동문 아주 훌륭한, 한번 해볼만한 연구과제가 있소. 조건도 좋고... 단조직장을 담당했다니까 그건 시험공장을 가진거나 같지. 그래 동문 그 도입과정이라는게 또 하나의 창조과정이라는걸 모르오? 시간을 아껴야지 시간을...털어놓고 말해서...》

《선생님》

소조원을 바라본 나는 당황하고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연구소뒤마당에서 만났을 때와 같은 늙은이를 련상시키는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떠올라있기때문이었습니다. 순박한 모든 사람들이 항용 그러듯 소조원 역시 자기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섭섭합니다. 전 그래도 오늘 다시 찾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알수 없었습니다.

《...》

《무엇때문에...무엇때문에 너는 그런 객적은 소릴 했는가. 피눈물이 나는 실패와 고충을 당해보기 전에는 리해할수조차 없는 말을...》

《미안하오.》

《안녕히 계십시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고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날 나는 그동안 준비하던 논문도 당분간 중지하고 새로운 연구과제 확정을 위해 동해안의 한 기업소로 출장가고말았습니다.

×

지배인동무,

그때로부터 아홉달이 지나갔고 나는 지금 이곳 《비기계공장》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소조원과 함께 한 달나마 로봇도입을 진행했고 3일전에는 그것을 성공시키고야말았습니다. ...

그러나 지배인동무, 나는 오늘 이 편지에서 성공의 기쁨에 대하여 말하려는것이 아닙니다...

그때 동해안의 한 기업소에 나갔다 몇달만에 돌아온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비기계공장》에서 최영남소조원이 로봇도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라지! ...》

나는 애써 그 일에 대해 무관심하려고 했지만 생활이란 그렇게 단순한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문득 로봇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 안정을 잃곤하는 자신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창

조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지 아니면 그 어떤 위구심이라고 할지 때로는 당장 전화를 걸어 알아보고 싶기도 했고 눈을 꼭 감고 그곳에 한번 다녀오고 싶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번째로 만났던 소조원의 얼굴이 앞을 가로막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비기계공장》에 출장갔던 한 연구사가 로보트도입이 마감고비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 만나본 소조원에 대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였습니다.

《난 놀랐네. 아니 그저 놀랐다가보다 3 대혁명 소조원들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것 같네. 글썄 만나는 사람마다 소조원얘기들이더라니까. 하긴 그럴 수밖에... 내가 가서 며칠이 되던 날이었네. 듣나?》

《계속하계.》

《아직 로보트의 제동장치랑 완성되지 않아 자꾸 오동작을 하고있는 형편인데 다른 공장의 3 대혁명 소조원들이 참관하러 온다는게 아니겠나. 공장에선 다 반대하더구만. 괜히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좋지 못한 인상이나 줄수 있다고 말이야. 누구던가...오, 단조직장장이라고 했지. 그 사람은 시운전은 그만 두고 그저 보여주기만 하자고 하더군. 그런데 그 소조원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나 참...<시운전은 계속합시다. 그래야 부족점을 빨리 찾아낼수 있고 완성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구 사실이야 부족점을 숨기는것보다 그것을 남들앞에서 그대로 내보이고 바로잡는 사람이 더 힘있고 앞을 내다볼줄 아는 사람이지요>...이러는게 아니겠나.》

나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허나 지배인동무, 나의 마음속에서는 소란스러운 격랑이 일어나고있었습니다. 소조원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는가 하면 부족점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더 힘있고 앞을 내다볼줄 안다고 한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일종의 패배감같은것이 나를 괴롭혔고 이름할수 없었던 위구심이 현실적인 압박감으로 사정없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마 그곳에 내발로 찾아갈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고 그것으로 하여 더욱 피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소장이 나를 찾았습니다.

《답답하오. 뭘 주저하고있소. 논문을 완성하세요. 그래 또 연구소 립장도 생각해야 할게 아니요.》

《...》

비난도 아니고 추궁도 아니었지만 나는 얼굴을 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오. 소적으로도 이미 토론했으니 빨리 끝 떠나오.》

소장동무는 내 의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 다.

하여 나는 《비기계공장》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장 정문에 와서도 한참이나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선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몰랐 습니다. 소조원을 만나자니 미안했고 직장장 박상

길이를 찾자니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내가 두번째로 소조원을 돌려보냈을 때 이미 나라는 인간을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지배인이나 부기사장을 만나 그들의 안내로 현장에 가볼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서성거리는 죄지은 자식마냥 정문앞에 서있기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뒤로 다가오는 발자욱소리와 동시에 《연구사선생이 아닙니까?》 하는 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를 돌리니 의외에도 소조원이 웃으며 서있었습니다.

《웁군요. 글썄 모습이 어딘가 낯익다 하면서도 ...》

나는 당황했습니다.

《잘 있었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서계십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아, 아니 난 출장가던 길에 그저...》

나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미처 의식하지 못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 뭘 이러십니까. 어서 들어갑시다.》

소조원은 나의 팔을 끌며 앞섰습니다.

나는 문득 소장이 공장에 이미 연락했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혹시 소조원이 나를 보내달라고 연구소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도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무엇때문에 소조원이 지금 와서 까지 나를 찾는단말인가! 명백한것은 내가 공장에 온다는것을 소조원이 벌써 알고있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단조직장앞에까지 왔습니다.

쇠 - 쿵, 쇠 - 쿵...

지심을 울리는 공기함마소리에 쇠내, 기름내가 풍기는 대기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가요? 아무래도 로보트부터 먼저 보셔야지요. 주인이니까요.》 라고 하며 소조원이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주인》이라는 말이 몹시 거북했습니다.

《글썄 ...》

이렇게 대답하며 그의 뒤를 따라 도입장에 들어선 나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듣고 상상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로보트가 훌륭하게 설치되어있었던것입니다. 첫눈에 벌써 성공하였다는것이 알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됐습니까?》

소조원이 물었지만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거기에 바친 소조원의 노력이 가슴을 허비며 상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계산기기관 하나, 소자 하나하나에도 그의 손이 닿지 않은것이란 없을것이며 지어 어떤 부속품들은 몇백리 걸음을 걸

어서 해결해왔을것입니다. 더우기 전공도 다른 이 청년이 전자공학분야에 이토록 깊이 침투하였다는 것은 재능에 앞서 그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고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소조원이 연구소에 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을수 있다고 생각한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 미흡한데가 많지요?》

《아니요. 동문 참...》

《어쨌든 됐습니다. 이젠 선생님까지 왔으니.》

《...》

나는 소조원을 이윽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스물다섯살밖에 안되는 청년이 어떻게 되어 이런 놀라운 일을 할수 있었을가?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듯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고 태연히 나를 맞을수 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소조원과 함께 도입장에서 나오던 나는 문열에서 직장장 박상길씨와 마주쳤습니다. 직장장은 내가 인사하자 마치 못해 하는듯 《예...》 하고는 소조원과 몇마디 나눈채 그대로 지나가버렸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것 같았습니다. 피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에 침실로 들어와 자리에 누운 나는 잠들수 없었습니다. 소조원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공장에 도착하여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것들이 하나, 둘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였는가? 무엇보다 나에게 놀라운것은 그가 어떻게 되어 공장의 모든 일군들을 로봇으로 도입에 발벗고 나서도록 마음을 움직여놓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털어놓고 말하여 이 공장이라고 왜 당장 새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도 계획은 하고 계획만 하면 평가도 받을수 있고 자리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군들이 없었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이 제기한 자력갱생구호가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이라는것을 망각하고 낡은 기술, 낡은 설비를 대담하게 교체하자고 해도 《혁명성이 없소》, 《남을 쳐다보는 위험한 사상》 이요 하며 얼굴을 붉히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 어린 소조원은 무슨 힘으로 그 사람들을 움직였던말인가?

나의 눈앞에는 또다시 지배인동무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날 한 그 마지막말이 다시금 쟁쟁히 울려왔습니다.

지배인동무,

다음날아침, 숙소에 찾아온 소조원을 맞이한 나는 전날보다 더 긴장되어있었습니다. 전날은 비록 웃으며 맞아주었지만 자신의 정력을 쏟아부어 키운 값비싼 열매를 보여준 이상 이제는 계산하자고 할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소조원이 두번째로 왔던날 몇살인가 물으며 시간을 아끼라고 충고했던 일이 상기되었고 그가 왜 그토록 실망하였겠는가 하는것이 어느정도 이해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그날 모욕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였습니다!

소조원의 얼굴은 그사이 무척 변한듯했습니다.

애리가 돌던 동그스름한 얼굴은 꺼칠하게 좁아지고 넓은 이마엔 가는 주름살들이 잡혀있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것은 부드럽고 조용해보이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어서 도입장으로 갑시다.》

착잡한 나의 심리를 들여다본듯 소조원이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의 진정에 또한번 놀랐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때문에 지금 이 순간 가지도 나에게 손을 내미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무엇때문에 나를 반기는가?...

나는 끝내 의문을 풀지 못한채 소조원을 따라 도입장으로 나갔고 마지막 작업을 다그쳤습니다. 나는 모든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애착이 가는 이 청년을 도와주고싶었고 그것으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싶었습니다. 허지만 마감과 비에 이른 도입은 좀처럼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봇의 체동장치는 우리들의 애간장을 다 말리우는듯싶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작용하지 않는가 하면 어떤 날은 신동히 움직이기에 《이젠 됐구나》 하고 환성을 올릴라고 보면 또 오동작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박상길직장장이 《젠장 그제 정말 로봇트는 로봇트로구만.》 라고 말하여 모두들 쓰겁게 웃었겠습니까. 그리고고 직장장은 안되었는지 흠뻑이 된 소조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일없수다. 고생이 크면 보람도 크다는데 너무 초조해 말구 천천히 하슈. 누가 생산을 걸고 시비하면 내가 막을테니 이담 장가갈 때 큰상에 놓았던 닭이나 내게 보내주구려》 라며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나는 그의 거무스레한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지배인동무를 상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나에게 는 여전히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그였지만 우리 생활에는 역시 저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이 주류로 되고있다는 의식으로 가슴이 후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소조원과 나는 로봇의 체동장치는 물론 전자제산기의 설계와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결심하고 그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그리고 또 삼일...

우리는 밥도 현장에서 먹었고 잠도 현장에서 잤습니다. 그런속에서도 소조원은 짬만 있으면 책을 읽었고 새로 나오는 과학통보자료들을 빠짐없이 연구하였습니다. 하루는 계산기기관을 검사하다가 묻득 《제가 선생님에게서 제일 부러워하는게 뭘지 압니까?》 라고 묻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아하여 《동무가? ...동무가 나한테서 뭐가 부러울게 있겠소? ...젊었지, 재능이 있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소조원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많이...》

《!》

《난 앞으로 시간을 내어 선생님 서가에 있는 책들을 기어이 몽땅 가져다 보겠습니다.》

《...》

소조원은 마치 시간을 따져보듯 벽에 걸린 《1988》이라는 수자가 두드러지게 씌여진 월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따금 습관적으로 그 월력을 보았는데 그때마다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는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말은 비록 안해도 그라고 왜 자신의 론문준비가 늦어지는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그를 더 도와주고싶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습니다.

소조원은 잠깐 어디론가 나가고 혼자 앉아 설계 문건을 검토하던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탕》하고 힘껏 내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나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소조원이 내가 설계한 로봇트를 생산흐름에 맞게 개조하면서 제동장치를 전기식이 아닌 기계식으로 바꾸어놓은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로봇트의 특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단순한 착오였지만 결과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나는 소조원을 찾아 단조직장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허나 방에는 직장장밖에 없었습니다.

《뭐요?!》

내말을 들은 직장장은 무척 놀라는듯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나는 이곳에 와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

직장장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얼마후에야 나를 유심히 지켜보더니 의외에도 《모르겠소...》라고 통명스레 말하였습니다.

《모르다니?》

나는 어안이 병병해졌습니다.

《혹시 연구사동문 자기가 만든걸 개조했다고 그래서 그러는게 아니요?》

《예? ...아니 직장장동무...》

나는 순간 모닥불을 뒤집어쓰는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물론 내가 이곳에 다시 나타난 그날부터 쯔외보듯한다는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하고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내판에는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그들을 도와나서지 않았습니까. 나는 가파스로 자신을 자제하며 겨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장장동문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는가요?》

직장장은 쓰겁게 입을 다셨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수 없는듯 《좋수다. 그럼 우리 말 좀 합시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빠개놓고 말해서 난 당신처럼 로봇트는 잘 모르지만 사람은 제대로 보오. 그래 잘 때는 언제고 오는건 또 뭐요? 두번씩이나 찾아갔을 땐 왜 외면했소? ...홍, 쇠가 다 익으니 찾아와 가지구...》

나는 얼음물을 뒤집어쓴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

직장장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

《난 그래도 당신을 보내달라고 연구소에 전화할 때 기분은 나빴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소.》

직장장은 책상서랍을 요란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름자국이 어지럽게 찍힌 편지를 와락 꺼냈습니다.

《아마 소조원의 이 편지가 아니었다면 오늘까지도 난 당신을 찾지 않았을게요.》

《? ...》

그는 내앞으로 편지를 뚝 집어던졌습니다.

《자, 보오...당신도 아마 소조원이 어떤 고생을 했으리라는걸 짐작할게요. 쇠덩이를 두드려 바늘을 만들었다말이요, 바늘을! ...그래 소조원은 수고만 하는 사람이요?》

《...》

나는 허청허청 그 방을 나왔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채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정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체험한 모든 일들이 살피에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뚜렷한것이 없었고 자신으로서도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명백한것은 내가 이 공장에 다시 나타난 그자체가 벌써 체면이 없는 일이라는것, 내가 없어도 소조원의 그 성실성과 노력, 재능으로 로봇트도 입을 훌륭히 결속하였으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가자! 이제라도 가자! ...)

남의 성과를 넘겨다보는 비렬한 인간이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직장장도 바로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대했을것입니다.

일단 결심하고나니 마음도 가벼워지는듯했고 직장장에 대한 노여움도 한결 가라앉는듯싶었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가 체때에 충고를 주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고 책상위의 자료들과 세면도구 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조원을 만나 제동문제를 이야기해주고싶었으나 직장장이 알고있으므로 단념하고말았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방안을 한번 돌아본후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출입문이 열리고 소조원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벌써 모든것을 알고있는듯 어느때와는 다른 심각한 얼굴로 묵묵히 의자가 앉았습니다. 나도 침대에 걸터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참고 견딜수 없었습니다.
《미안하오. 아마 내가 또 주판에 빠졌던가보오.》

방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소조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절 위해 간다는겁니까?》
《글쎄... 정확하게는 날 위해 간다고 해야 옳겠지.》

왜서인지 나는 또다시 노여운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뻔뻔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소조원은 어둠에 잠긴 창밖을 오래도록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혼자소리처럼 뇌였습니다.

《섭섭합니다.》

《...》

《선생님은 그때 저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말했지요? 그대 그 시간이 누구 위해 필요합니까?》

《...》

《물론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전 사람들이 80년대라는 말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80년대가 어떤 년대라는걸 알고있는가 아니면 당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말로만 되받아 외우는가 해서 말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 80년대가 한순간만 담보하고 한결음만 늦잡아도 래일은 남보다 우리가 10년, 20년 지어는 영원히 뒤떨어질수도 있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 선생님도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제기한걸 모르지는 않겠지요? ! ...》

저는 전원회의 보도를 들으며 80년대를 가장 빛나게 결속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결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그 말에 머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이 외곡되게 그려지는듯싶어 더이상 침묵을 지킬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오...나도 당에서 공불 시켜준 사람이요.》

《아니 ...》

소조원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전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접수할수 없습니다. 물론 난관도 있었을수 있고 또 피로움도 있었을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제는 그 난관과 아픔때문에 오늘은 또 자신은 남의것을 넘겨다 보지 않는다는 그 체면때문에 ...》

소조원은 나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대 그 체면은 그토록 귀중하면서도 한 공장의 아니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가 늦어지는건 가슴 아파지 않은가요? 더우기 지금은 전당이 200일전투를 벌리고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체면때문에 전투장에서까지 물러서겠다는거지요. 분합니다...》

《?!》

지배인동무, 나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더 이상 그를 마주볼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소조원이 거울이 되고 그 거울에 자신의 전면모가 그대로 드러나는듯싶었습니다...

지배인동무,

나는 그제서야 소조원이 무엇을 위해 살며 그가 무슨 힘으로 사람들을 당에서 가리키는 현대화, 과학화의 한길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는가를 똑똑히 알게 된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나 지배인동무가 자기 아픔, 자기 자리만 생각하며 구태의연하게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결정되고있다는 자각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 자존심도, 명예도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려는 투철한 각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문에 소조원은 습관처럼 월력을 보았고 그때마다 낮빛이 무거워졌던것입니다.

하기에 3일전 것처럼 바라던 도입이 성공한 마당에서 직장장 박상길이도 소재를 물고 돌아가는 로보트를 보며 《나도 이제 낡은것 같습다. 소조원이 받아야 할 평가는 생각하면서도 그가 뭘 위해 것처럼 애쓰는지 그 마음은 몰랐으니...참, 전쟁관에까지 나갔다 왔다는 놀이. 사실 전쟁때 먼저 간 사람들이 영웅이 되자고 죽었겠소.》 라고 목갈린 소리로 자기를 꾸짖었던것입니다.

지배인동무,

이제는 이야기를 다 한것 같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출장길에서 소조원이 박상길직장장에게 보냈다는 그 편지로 끝내려고 합니다.

《...아마 직장장동지는 저의 이번 출장길에서 것처럼 우리의 속을 태워주던 직류전동기가 해결되었다는것이 제일 기쁘겠지요. 그러나 저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공장에 주현민연구사가 돌아왔다면 몇배로 더 기쁠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보며 직장장동지는 또 말할수도 있습니다.

연구사가 오지 않으면 못하겠는가, 이제는 다 되지 않았는가고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가 없어도 로보트는 도입될것이며 모든것은 잘 결속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장동지,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은 로보트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현민연구사를 끝내 데려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로보트도입은 성공할수 있지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것입니다... 주현민연구사와 같은 사람은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이 밀천을 들여가며 키운 귀중한 재부입니다.

부탁입니다. 주현민연구사를 꼭 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언젠가처럼 직장장동지는 또 저에게 물을수도 있습니다.

<동문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요? 자존심도 없소?! ...>

직장장동지, 저는 그 물음에 한마디로밖에 대답할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과결한 3대혁명소조원입니다.>라고말입니다...》

...

주현민 보냄
1988년 4월

빛나는 세대

전병구

영웅발전기앞에서

바라보면 눈시울 뜨거웁고
쓰다듬으면 이 가슴 목메여지누나
영웅메달을 동채우에 번쩍이며
음향도 고르로이 전류를 일으키는 발전기

네가 아니더냐
해방된 강산에 불구름 휘몰아치던
준엄한 전쟁의 그 삼년세월
하루도 멈춤없이 박동을 높여가던 발전기
금별메달 빛나는 너를 마주하니
네우에 얼른거리는 잊지 못할 얼굴들...

밤하늘을 찌는 적기의 소음
마을은 불에 타도
어깨성을 쌓고 네결을 아니떠나던
그 미더운 모습들

심장의 박동은 멈춰도
조국의 불빛은 끝수 없어
언제 우에, 발전소 지붕우에
내려쫓히던 시한탄을
생을 내대고 안아내던 그들

그대들은 지금 여기에 없구나
작별의 인사도 없이
울부짖는 폭음속에 웃음을 남기고
그렇게 발전기결을 떠나간 사람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그날
자기의 숨결을 너에게 이어주고 간
그대들의 고결한 그 정신
오늘도 온 나라의 창문들에 어려
행복의 불빛으로 빛나지 않느냐

아, 전화의 그날을 못잊으시여선가
너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
영웅이라고
영웅발전기라고 불러주실 때
그네들의 심장과 함께
영원한 박동을 지닌 발전기여

아, 영웅발전기
수령님 너에게 달아준 금별메달은
조국에 영원한 불빛을 밝혀주고
조국의 맥박을 영원히 뛰게 해준
그네들의 심장의 빛발이 아닌가

그날의 맹세

전승의 광장
높은 연단우에 오르시였던
어버이수령님 영상
그날 나는 몸가까이에서 뵈웠네

오신다는 기별도 없이
소연이 불어오는 압록의 강바람에
가벼이 옷깃을 날리시며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수령님

푸른 하늘가로 등등
물탈바가지 날아가고 날아오는 타임장
두손을 허리에 지르시고 바라보시던 그이
손짓으로 나를 불러주실 때
까마득한 줄사다리를
내 어느새 타고 내렸던가

아직은 군복차림인 나 어린 제대병사
나의 등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고향도 이름도 물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우러러
내 그날 두볼을 적시던것은
눈물이었던가, 땀물이었던가

백두산의 풍상 비껴간
아버이의 그 안색
장군님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들으며...

아, 이 나라의 푸른 강줄기마다를
나의 가슴에도 안겨주시는듯
딩은 동무들을 믿고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그렇듯 믿음을 주시던 그이 앞에

진정을 터쳐올리던 맹세

-수령님 발전소건설은 넘려 마십시오-

감격의 환호성과 함께 불갈던 그 맹세
마음속에 신념의 산악으로 높이며
내 얼마나 높은 령도 단숨에 달려 넘었고
물살 빠른 계곡의 물줄기도 헤쳐건넌던가
조국땅의 불빛을 심장으로 켜놓으며
강계,
운봉,
서두수로...

사람마다 평생 몇번 있으랴
수령님께 직접 올린 그 맹세
다지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험치 않아
귀밑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도
가슴속에 쟁쟁한 목소리를 안고
이 땅우에 나는 새겨가노라
청춘언제, 발전소건설자의 발자욱을

오, 부풀은 희망을 안고
달리는 세월을 향해 나는 웨치노라
그날에 다진 그 맹세가 있어
영원한 청춘의 념을 안은 삶이라고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어머니 품에서 배운
《엄마》란 그 첫 말
한평생 부르며 살듯이
청춘을 시작하던 그 시절에
당의 품에서 익힌 첫 말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
약동하는 삶의 노래처럼
정깊이 울리던 그 물음
어느새 너와 나 인사말로 주고받았고
낯선 친구도 구면처럼 가까이 주고받았더라
천리마휘장을 가슴에 단 사람이라면

누구나 쉬이 부르는 말이였어도
누구나 수월히 부르진 않았더라
달리는 세월을 앞질러
천리마의 고삐를 마음속에 다잡기 전에는...

결혼을 서둘러
정작 맞선을 보러 나섰다가도
가슴에 없는 천리마휘장을 두고
내 스스로 돌아서기도 몇번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고
치너도 물을것만 같아서

그래서 하루밤 자고나면
산도 들어올릴 새힘을 안았던가
찾는듯 부르는듯 그 물음
나의 집 문고리를 잡고있어
어둑새벽길을 나서군하였던가

아, 세월은 흘러도
어머니 품에서 배운 그 말처럼
가슴속에 부드럽게 새겨진 그 말
내 한생의 발걸음 채찍질해주는 구호여
-동무는 오늘도 천리마를 탔는가-

늡을수 없는 세대

귀밑머리에 흰서리를 엮고
지금은 그 어느곳에 있느냐
전후의 그날에 청춘기를 맞이한
나의 동갑세대 잊지 못할 벗들아

세월은 흘러
어느덧 선고개를 넘었어도
우리의 젊음이 시작되던
전후의 그날 그 모습으로
추억속에 새겨진 벗들아

정깊은 고향집 마당가에
아직은 원쑤의 파편장이 덩굴던 시절

폐허의 재더미우에
삶의 보금자리를 펴야 했던 우리였기에
조국이 시련을 겪던 그 나날
가장 어려운 일터를 택할줄 안 세대여

전쟁을 이긴 승리자의 환희가 있어
비물에 질퍽한 진창길도 닦할줄 몰랐고
힘에 부치는 일이 앞에 나설 때도
선뜻 목고채를 웃으며 잡지 않았더라

하늘 멀리 호방한 웃음을 날리며
철주높은 구름속에 날아올랐던
그대 발전소건설의 외선공도

오늘은 어느 기업의 책임일군으로
 지나온 나날을 더듬느냐
 힘은 겨웠어도 생활은 즐거웠더라
 땀내 풍기는 작업복차림으로
 《옹헤야》 출판에 뛰어들었던 그밤
 수집어 얼굴을 붉히면서도
 내 손길 놓을줄 모르던 그 처녀와
 내 한생을 같이하고있지 않느냐

아, 잊지 못할 추억이어서 모두 아름답다더냐
 간고한 그 시절에 시작한
 우리의 젊음이었기에

투쟁속에 바친 위훈의 그 나날들을
 오늘도 뗏뗏이 말할수 있고

고운 색깔의 화려한 저 집도
 구름새에 어깨를 펼친 철탑도
 가슴펴고 바라볼수 있거늘

세월은 우리의 머리위에 흰서리를 엮어도
 그 추억으로 하여 늙을줄 모르는 우리
 오늘의 위훈속에 그날의 청춘기를
 이어가는 행복이여!

그때 우리는...

레사로운 나날
 오늘의 복된 삶을 누릴수록
 때없이 문득 가슴치며 떠오르는
 잊지 못할 전후의 나날

그때 우리는
 포연에 끄는 군복을
 가림복처럼 입고 다녔어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더 좋아질 조국의 오늘을 그렸다

때없이 바지날도 세우고
 선을 보려 처녀들앞에도 나섰고
 공장회관의 연탁앞에서
 불같이 토론도 했고...

그때 우리는
 합숙의 간소한 식탁앞에서도
 풍요해질 조국의 살림을 그려보며
 언제 한번 얼굴에 그늘 지은적 없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구수한 된장에 킷고추를 찍어먹던 일도
 사감아바이 품ध्ये 낚아온
 그 쫄갸리맛도

토굴집을 털고 나와
 단 한칸의 벽돌집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그것이 좋아
 아이들의 재롱섞인 노래에
 어머니의 주름살도 퍼지던 그때

아직은 부족한것이 많았고
 요구되는것이 한두가지 아니였어도
 나라에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만 따르는 그 길에
 꽃피는 생활의 아름다운 노을이 피어남을
 그 누구나 심장으로 믿었기에

고난도 우리 힘으로 이기고
 부족한것도 우리 손으로 메꾸며
 우리스스로
 환희로운 생활의 언덕에 올라섰거니

아, 이 땅엔 레사로운 나날이 흘러도
 레사롭지 않고 평범하지 않았던
 전후의 그 생활이여 추억이여!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그때
 우리가 바친 로력의 그 대가우에
 오늘의 락원이 솟아올랐어라

위훈속에 행복이 있다고...

위금실

모두 떠들썩 모여듭니다
 방금 영예게시관에
 신혼부부 혁신자사진 나붙었다고

부끄럼없는 신혼부부 모습에
 처녀들은 놀란듯 서로 손잡고
 총각들은 웃으며 바라봅니다

나이 지숙한 아바이는
 작업복차림이 장한듯
 연송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 살림 꾸린 아담한 집에
 가장 고운 웃도 정히 개여놓고
 작업복차림한 모습입니다

물결 출렁이는 유보도 뒤에 두고
무리등 밝은 극장도 뒤에 두고
함께 땀흘리는 모습입니다

광복거리에서 꽃피는 사람
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참말로 부끄럼없는 모습입니다

혼합경기에도 함께 나시고
미장경기에도 함께 나가는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혼부부는 말이 없어도
건설자들은 모두 듣습니다
위훈속에 행복이 있다는 말을...

신혼부부의 그 말이 고마와
건설자들의 일손은 더 빨라지고
미장하는 일손은 더 고와집니다

아, 장엄하고 화려한 광복거리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그 마음이
어디나 비끼는 건설장입니다

감사를 드린다, 나의 병사시절에

박세일

군복을 벗은지도 해를 넘겨
이제는 제깬옷이 제법 어울리건만
그래도 나에게는 그중 자연스러웠다
땀에 젖은 병사복을 입었던 그때가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
지금처럼 마음드는 처녀를 만나
유보도를 거닐어보지는 못했어도
타드는 입술을 허끝으로 적시며
하루밤에 백리씩 달리던 그때가

책상우에 따로 붙인 우리 중대 집체사진
차례로 떠오르는 이름들을 끄느라면
그들결으로 가고싶구나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싶구나

대오의 끝이라도 좋으니
《나란히》 구령에 어깨를 맞추며
아침검사에도 참가하고싶고
숙영지의 시내물에 쌀을 일어
내 손으로 밥통에 밥도 뚫이고싶고...

생각하면 그 시절에 무엇을 두고왔기에
다시금 그 시절에 살고싶은것이냐
군화끈도 풀지 않고 쪽잠자는 법도 익혔고
어깨를 누르던 배낭의 무게도
걸으면서 이길줄 안 그 시절

조국이 두고두고 기억해주는
그러한 낮과 밤을 그 시절에 보냈어라
사시절 바람부는 북방의 초소에서
갑문을 일떠세운 날바다우에서

바쁘게 사는 법을 그 시절에 배웠어라
동지가 누군지를 그 시절에 알았고

원췌가 누군지도 똑똑히 안 시절

그래서 나에겐 그 시절의 모든것이
별치 않은것이라도 소중한것인가
당원이 된 그날 분대장이 권한기에
난생 처음 피워본 담배맛이며
소박한 나의 시를 처음으로 기억해준
나어린 전사의 인상깊은 눈빛까지...

정말이지 그 시절을 거치지 못했다면
길지 않은 인생에 무엇이 남았으랴
사랑에선 뜨겁고 증오에선 얼음같은
남다른 심장을 지닐수 있었으랴

감사를 드린다 !
나의 병사시절에
나를 인간으로 키워주고
전사로 조국앞에 내세워준 시절이며
수령님을 위하여 당을 위하여
꽃나이 청춘이 복무한 시절이며

그 시절에 배운대로 나는 살려니
거짓과 비겁을 용서치 않으리
당이 준 명령앞엔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 ! 》
이 하나의 대답을 충성인양 남기고
총알처럼 주저없이 앞으로만 달리며

하어 만일에
인생을 총화짓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오늘보다 더 뜨거운 말을 골라
나는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련다

한생의 자랑인 나의 병사시절에 !
참되게 사는 법을 배워준 그 시절에!

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애정윤리문제의 설정과 그 해명

리창유

공산주의인간학으로서의 우리 문학은 애정윤리 문제를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애정윤리문제는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의 아픔담고 승화한 정신세계를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로 승화시켜 보여줄수 있는 중요한 주제영역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참담고 진실한 사랑이란 어떤것이며 어떻게 맺어진 사랑을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 애정윤리라고 말할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을 가꾸고 꽃피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 해명을 주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연애를 위한 연애를 그려서는 안됩니다. 연애를 위한 연애는 한갓 자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교양적가치가 없을뿐아니라 도리어 해로울수 있습니다.

새형의 인간들의 연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참다운 애정윤리는 혁명동지들간에 맺어지는 진정한 사랑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러므로 청춘남녀간의 사랑은 연애를 위한 연애로 그려져서는 안되며 당과 혁명이 준 임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공감되고 결합되는것으로 되어야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던져줄수 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애정윤리선을 설정하고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며 대한 창작실천상 요구는 흥미진진한 연애사건이나 결혼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사로운 이야기를 통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돋구어주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높은 정신적 미를 보다 생활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한데 있다.

일반적으로 애정윤리선의 설정은 장중편소설창작에서 거의 필수적이다. 그것은 애정윤리가 인간생활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며 인간의 사상정신세계가 애정윤리를 통하여 숨김없이 드러나는 사정과 관련되고있다. 때문에 인간생활을 주인공들의 운명선을 통하여 다면적으로, 포괄적으로, 분석적으로 그려낼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장중편소설에서는 애정윤리문제의 설정을 외면할수 없으며 기본주제인가, 부주제인가 하는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생활영역의 하나로 어차피 그리지 않을수 없게 된다.

애정윤리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어느 위치에 세워놓고 어떤 자세와 관점에서 대하는가 하는 작가의 미학적 안목과 세계관의 높이, 현실생활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 많이 달려있다.

과거 계급사회에서 가난하고 무권리한 사람들은 신분상 차이, 직업의 귀천과 빈부의 차이로 애정윤리에서도 심각한 비극적 운명을 겪게 되였다. 때문에 이 시기 진보적 문학에서는 당대 사회제도가 빚어낸 비극적 후과로 청춘남녀들의 사랑이 결렬되고 무참히 짓밟혀지는 과정이 다분히 반영되게 되였으며 인간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신분의 높낮음과 빈부의 차이를 두고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그려지게 되였다. 이러한 애정윤리는 대체로 《완결된 정신적 및 육체적 미》를 소유한 한쌍의 젊은이들이 서로 화합할수 없는 사회계급적 처지나 빈부의 차이 혹은 화해할수 없는 개인적 알뜰관계에 놓여있는 부모들과 가문의 장애로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실현할수 없는 생활의 심연속에서 심각한 우여곡절을 겪어야 하였으며 마침내 비극적인 길을 걷는것으로 끝나군 하였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의 사회현실은 인간의 애정윤리를 속박하고 유린하던 각종 사회악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으로 튼튼한 뉴대를 맺게 하며 서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굳건한 사랑을 맺을수 있는 전제를 지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춘남녀들의 사랑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그들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튼튼히 맺어지는 참다운 애정윤리로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때문에 현실주제의 작품에서 애정윤리의 문제를 반드시 꼭결있게 그려야 한다는 굳어진 기준관념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애정윤리문제를 아무런 곡절이 없는 과정으로만 그린다면 그것은 이러저러한 인물들의 다양한 애정관계와 생활을 하나의 똑같은 기준에서 보여주는것으로 될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찾아보는 청춘남녀들의 생활을 파고들면 그들의 애정관계도 결코 순탄하지 않다. 비록 그들은 생활의 목적과 지향에서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로 표현되는 사상, 의지, 미학적정서적 견해 등의

모순과 불일치, 일시적인 오해가 있을수 있으며 이로 하여 이미 약속된 사랑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다시 결합되기도 하면서 사랑선의 굴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생활의 우여곡절을 거쳐 재결합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시 화해하지 못하고 결렬되어 나가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는 이러한 극적 요소를 체현한 인물들의 애정생활을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로 승화시켜 보여줄수 있게끔 깊이 탐구하고 특색있게 그리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것이다.

최근시기 우리 작가들이 창작한 적지 않은 장중편소설들에서는 애정륜리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그려나감에 있어서 일련의 성과들을 거두었는바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사회적 문제성과 밀착시켜 대담하게 새 세대 주인공들의 사랑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한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그중에서도 장편소설 《청춘송가》(남대현 작)는 문제제기의 적극성과 예술적 기교의 측면에서 볼때 적지 않은 긍정적 시사를 던져주는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할수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진실하고 참다운 사랑은 그것을 쟁취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창조하는데 있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주인공 진호와 정아의 형상을 통하여 이를 잘 풀어어나가고 있다.

여기서 먼저 지적할수 있는것은 작가가 작중인물들의 애정심리를 발전과정속에서 진실하고 심도있게 묘사하고있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애정심리는 인간의 애정생활에만 고유한 심리의식이다.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애정심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그리고 애정생활속에서만 체험되는 심리로서 다른 그 어떤 심리정서적 체험과 명확히 구별된다. 따라서 애정생활과정을 통하여 작중인물들을 산 인간으로, 구체적이며 분석적으로 그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애정생활에 고유한 심리정서적 체험과 그 표현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발전과정속에서 심도있게 그려야 한다.

애정심리표현에서 기본은 이성에 대한 견해와 관점에 대한 문제이다. 애정심리의 외적 표현들인 말과 행동, 지어 얼굴표정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것들은 중요하게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심리의식의 반영이며 애정심리와 행동은 다 이성에 대한 견해 즉 연애편의 지배를 받는다.

장편소설 《청춘송가》의 주인공 진호는 자기의 대상자가 될 처녀의 징표로서 총각일반이 가지고있는 견해 즉 매력적인 용모와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기준을 초월하여 이밖에도 자기의 포부를 진심으로 리해하고 모든것을 거기에 바칠수 있는 자질과 성품을 갖고있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그러한 대상으로 대학동창생인

현옥을 지목하고 사랑하였다. 하지만 현옥은 생산현장에 나가서라도 대학때부터 꿈꾸어오던 기술혁신안을 성공시켜보겠다고 결심한 진호의 위훈에 찬 생활을 호기심을 가지고 동경한 처녀였다. 이들의 사랑은 진호의 생산현장진출로 인한 일순간의 오해로 결렬되고 말며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될 계선에 머무르고만다.

작품의 첫 부분에 그려진 진호의 연애편은 생산현장에서 만난 처녀기사 정아에 비하여 훨씬 뒤떨어져 있다.

진호의 눈에 비친 정아는 옳은것을 위해서라든 자기의 모든것, 사고와 행동은 물론 지어는 의지까지도 복종시킬줄 아는 담대한 기질과 그것을 위해서슴없이 내달는 열정을 갖고있는 녀성이었다. 사실 그러했다. 정아는 이러한 성품으로 하여 진호의 새 기술혁신안이 자기가 짝사랑하는 현장책임기사 기철이의 기술혁신안보다 훨씬 우월하다는것을 의식했을 때 단호히 뒤떨어진 《중유절약안》을 버리고 국내연료에 의거하는 기술혁신안에 심신을 바칠 각오를 다지며 결국 스스로 진호의 조수가 된다. 이런 녀성이야말로 진호가 바라던 처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자기 요구에 맞는 대상을 고르는것을 응당한 일로, 그런 사람을 찾는것을 행복으로 여기》던 진호의 연애편은 정아의 연애편에 부딪치자 저항할 아무런 타당성도 갖지 못하게 되며 그리하여 새로운 높이로 승화되게 된다.

정아는 진호가 《진정한 사랑이란 두 사람이 주고받는 애정의 량이 같을 때라야 제대로 꽃필수 있다》고 하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한다.

《만약 사랑을 동무처럼 생각한다면 꽃들이 만발한 화원이나 열매들이 주렁진 과원에서 제 마음에 드는 꽃을 꺾거나 입에 맞는 열매를 따는거나 다를게 뭐예요?

그래 그걸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 진실한 사랑이라면 그런 꽃과 열매를 따기전에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가꾸야 한다고 봐요...

사람은 누구나 사소한 부족점들은 다 가지고있는 법이 아니겠어요. 서로의 부족점을 서로가 도와주어 고쳐가는 과정이 곧 진정한 사랑이 아닐가요? 그래서 행복이 창조과정에 있다는 진리가 생김게 아닐가요?》

사랑도 창조해야 빛을 뿌릴수 있다는 정아의 정신세계는 애정륜리관의 견지에서 볼 때 주인공 진호의 견해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하여 진호는 자기가 바라던 녀성의 《본보기》로 정아를 생각하게 되었으나 그의 높은 애정륜리관을 알게 되면서부터 비록 적지 않은 부족점은 있다 하더라도 현옥이와의 애정을 재생시킬 결심을 갖게 된다.

작품에서는 이렇듯 다양한 인물들의 연애편과 애정심리를 매개 사람들의 성격과 생활에 기초하여 심도있게 개성적으로 그리고 발전과정속에서 그려나감으로써 소설이 제기한 애정윤리문제를 비교적 새롭게 해명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아 역시 진호와 같은 연애편을 갖고있는 인물로 규정하고 그가 기철을 짝사랑하였기때문에 할수없이 진호와 결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물선들을 매듭지었다라면 이것은 작중인물들의 생활과 성격론리, 지향 등을 무시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갈라놓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것이다. 또 진호가 현옥이를 애초에 대하던 연애편의 건지에서 끝까지 생활의 반려자를 택하게끔 애정심리를 그렸다면 이들의 결렬은 불가피하며 그이상 진척될수 없었을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정아와의 관계속에서 진호의 연애편을 발전과정에 놓이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이미 결렬한 사랑을 다시금 재생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의 연애편과 애정심리를 하나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포착하고 호상 결렬과 대조과정에 놓고 그려나감으로써 작중인물들의 애정생활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에 취급된 애정윤리문제가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흥과 여운을 주는 요인의 하나가 있다.

최근시기 창작된 장중편소설들중에는 또한 청춘남녀간의 사랑윤리를 구체적인 혁명임무실천과정에서의 높은 정신도덕적 미의 발현과 그에 대한 지지와 공감, 일시적인 우여곡절을 거쳐 리해하고 찬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오히려 자라나고 결실을 맺는 관계로 새 세대 주인공들의 성격을 생동하게 그려내고있다.

장중소설 《야금기지》(허춘식 작)를 보면서 독자들은 처음부터 제강소 현장기사인 주인공 강기석과 대학을 갓 졸업한 과학원 연구조수 최혜영의 관계에 주의를 집중한다.

주인공 강기석은 사업상 파오로 철직되어 다른 제강소 로동자로 조동된 전지배인의 아들이고 최혜영은 새로 부임되어온 이 제강소 지배인의 딸이다.

이들의 관계는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 작품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가면서부터 독자들은 은근히 이 문제에 마음을 쓴다.

아마도 새 지배인은 전지배인의 아들에게 외동딸을 시집보내려 하지 않을것이고 그 딸도 자기가 사랑하기 시작한 대상자의 아버지가 철직되었음을 알고 고민하게 될것이다. 독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가리라고 예상한다. 그것은 이루어한 애정선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독자들의 이러한 예상을 뒤집어엎는다. 혜영이의 정신적 미는 여기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 여자야말로 매사에 솔직

하고 말은바 임무수행에 성실하며 열정적인 기석이와 능히 결합될수 있다는 공감을 찾게 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전될수록 이들의 사랑은 곡절을 겪게 되며 일시적이거나 결렬되게 된다.

이들의 결렬, 그것은 강기석이 무엇때문에 술한 기술자들과 과학원의 이름있는 연구사들도 인정하지 않는 기술혁신안을 내놓고 스스로 고생을 사서하며 무모하다고 할만큼 완강하게 도입하려고 애쓰는가. 자기가 내놓은 이전의 기술혁신안으로 수도평양의 상급기관에 소환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남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부득부득 제강소에 남아있으려 하는가 하는 혜영이의 짧은 생각때문에 생긴것이였다.

《좋은 생활이 보장되어있는 직급의 총계를 툴아 올라》가라고 절절히 당부하는 혜영이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기 주견에 따라 떳떳하게 사는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 강기석의 생활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차이는 이들의 사랑을 결렬어로 이끌어간것으로 되였다.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남들의 눈치를 잘 여겨보며, 아버지의 완고한 성미도 꺾을만큼 주견이 있으면서도 주위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나약한 혜영이의 마음, 바로 여기에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그의 성격의 부정면이 드러나있으며 혜영이와 기석이의 사랑이 일시적으로나마 결렬되지 않으면 안되였던 심각한 극이 있다. 하지만 혜영이의 성격은 긍정면이 부정면을 능히 타개할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있었다. 이런 관계로 그의 성격은 어딘가 호감이 갈뿐아니라 그닥 밍지 않게 보이며 장차 기석이와의 재결합이 가능할것이라는것을 예상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작가가 만약 작품에서 이들의 사랑을 가정주위환경때문에 곡절을 겪도록 만들려 하였더라면 이 경우 이들의 가정주위환경의 복잡성이 본인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될수 있게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작중인물들의 운명적인 사건으로 논의되게끔 인간관계를 심화시켰어야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영화문학 《보종》의 경우처럼 이들의 가정주위환경문제가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에 관한 문제로 제기되었어야 하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강기석의 아버지의 철직사건도 기석의 사회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주리만큼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지 않으며 따라서 혜영이 자신도 그와 아버지가 사업상 파오로 내리먹은것쯤은 큰 문제로도 삼지 않는다.

이렇듯 작가는 새로운 당적 안목으로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애정윤리관을 형상적으로 해부하고 그들사이에서 생겨나는 우여곡절에 주의를 돌리면서 생활을 미화분식함이 없이 파고들으로써 마침내

이들의 애정륜리를 통하여 생동한 성격이 드러나게 하였다.

최근시기 창작된 일련의 장중편소설들 가운데는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생활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생동한 애정관계를 그려나간 작품들도 적지 않다.

중편소설 《여덟시간》(리희남 작)에서 그려진 주인공 철우와 수련이의 애정관계며 장편소설 《탄부》(김문창 작)에서 나오는 중대사로청위원장인 미순이와 복잡한 가정출신인 최진호와의 애정관계가 그러하다.

《여덟시간》의 작가는 긍정인물들인 철우와 수련의 애정선과 부정인물들인 순기와 탄심이의 대조되는 애정선을 설정하고 작품의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생활세부를 통하여 성격적으로만 대조시키다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평범한 생활속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인물의 긍정면이 확 드러나게 함과 동시에 이와 반대로 일상 생활에서 돋보이기가 일쑤이던 인물의 눈에 띄이지 않는 부정면이 로출되게 함으로써 청춘남녀들의 애정륜리에서 어떤것이 진짜이고 어떤것이 가짜인가를 형상적으로 잘 안겨오게 하였다.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두쌍의 애정선의 대조로 이야기줄거리를 구성하고 그 절정을 예리화된 정황속에서 찾은 작가의 의도는 전적으로 성공할만하다.

왜냐하면 평범한 생활속에서는 긍정인물의 영웅적 행동은 물론 특히 부정인물의 부정면이 잘 나타나지 않는 사정과 관련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말겨진 혁명임을 눈에 뜨일만큼 태공하는 부정인물은 거의 찾아볼수 없으며 부정인물의 부정면도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기본으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에 부정인물의 부정면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으며 위선과 요령으로 감싸인 《성실성》이 작품의 지배인과 같은 일부 일꾼들의 인정을 받을 때가 있고 탄심이와 같이 경솔하고 허영심에 들떠있는 처녀들의 호감을 살 때도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정인물의 부정면을 생활의 본색이 드러나도록 날날이 까밝히고 말없이 묵묵히 혁명임을 성실히 수행해나가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아름다운 정신적 미, 무한히 성실하면서도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애정륜리를 품위있게 그려내기 위하여 진실과 거짓을 명백히 가려낼수 있는 긴박한 정황을 설정하였던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애정륜리문제가 공감이 되도록 그려진 비결이 있고 작품의 구성을 특색있게 짜고든 작가의 높은 예술적 기교가 있는것이다.

이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장편소설 《탄부》에 그려진 미순이와 진호와의 사랑관계가 독자들의 가

슴을 뜨겁게 하여주는것은 무엇보다 이들의 사랑이 깨끗하고 진실하게 잘 그려졌기때문이다.

진호로 말하면 몇몇치 못한 자기 아버지의 과거사를 놓고 고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모범로동자였고 새 기술혁신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진실하고 소박하며 변심을 모르고 일하는 청년이다.

그의 불타는 충성심과 깨끗한 량심은 미순이의 심장을 틀어잡았고 마침내 진호에게 자신의 녀를 의탁하고 일생을 같이할 굳은 결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순은 주위사람들이 자기들의 사랑을 반대하여나설 때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며 진호마저 떨리는 목소리로 《동무네 집에서 찬성한다면 몰라도 반대하는 결혼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소... 난 동무를 가정에서 눈총을 받게 하면서 자기의 리기만을 생각할수 없단말이요.》 하고 한결음 뒤로 물러서자 《제발 나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를 힐책한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곁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물러선다면 그게 무슨 량심을 지키는 일이고 량심대로 하는 일이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에서 량심적이라는게 뭐겠어요? ...최동무는 진짜 량심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라 신념을 잃었기때문에 그러는거예요.》

미순에게는 진호 아버지의 몇몇치 못한 과거사보다도 진심으로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진호의 현재가 더 귀중하였으며 따라서 그는 진호와 일생을 같이할 자기의 결심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굳세고 량심적인 사랑인가!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 시대 청년들이 본받을만한 진실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당이 준 신임을 타고난 《팔자》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남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기던 나머지 진심으로 당을 따르며 일하는 사람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리해하기에 앞서 애정륜리에서 출세의 발판으로 될 《터전》부터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과는 달리 그 무엇보다 당을 진심으로 따르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마음을 다 바쳐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애정륜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되여야 하는가, 또 진심으로 당을 받드는 청년들의 앞길에는 어떤 행복이 차례지는가 하는 문제를 미순이와 진호의 참다운 사랑을 통하여 대담히 제기하고 잘 그려내었다.

리기와 타산, 공명에 들뜬 너절한 《사랑》과는 인연이 없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애정륜리의 세계로 육박해들어가 그것을 깊이 파헤친 작가의 깊은 탐구의 세계는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애정륜리문제의 설정과 그 해명에서 중요한것은 청춘남녀들의 사랑관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활의 심각한 교훈을 주고 참된 사랑이란 바로 《이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깊이 주는것이다. 이를 위해서 두말할것없이 애정윤리문제의 취급에서 문제성의 제기로부터 형상화의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새로와야 한다. 새롭다는것, 이는 작가의 깊은 탐구의 세계가 놓여있다는것을 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시기 창작된 일련의 장중편소설들에는 애정윤리문제의 설정과 그 형상방도에서 새롭지 못하거나 생활의 윤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게 그런 부족점들이 의연히 발로되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애정윤리문제를 심각히 파고들지 않고 작중인물들의 생활윤리와는 관계없이 사랑의 성숙, 결렬, 행복의 대안원으로 표시되는 하나의 류형적인 틀속에 밀어넣는것이다.

생활에는 사랑이 순조롭게 맺어질 때도 있고 성숙되었다가도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작품에서 사랑이 반드시 결합되는것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런데 일부 작품들에서는 사랑에 응한 상대자가 애인의 리상과 포부를 알리고 하지 않고 자기의 리기만을 추구하면서 일방적인 결렬을 선포한후 애정심리의 변화발전을 조건지어주는 생활적 계기가 없이 이들을 적당히 재결합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

중편소설 《버꽃》을 보자.

시루메농장 분조장 창운이와 도농업설계사업소 실험공 은희의 사랑은 대학기간에 무르익게 되었다. 남다른 미모를 가진 은희는 창운이의 성실성과 학구적인 태도에 반해버린것이었다.

그런데 은희는 졸업후 창운이가 자기 농장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자 자기는 그 의견에 찬동할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들의 사랑은 결렬되고만 다.

《농사와 관련은 되지만 좀 고상한》 직업, 《흙을 묻혀도 학구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도급 농업기관같은데 취직하기를 원하면서 줄을 꺾려고 눈치만 살펴오던 은희는 창운을 따라 농촌으로 가기 싫어 그를 배반한것이다.

그러던 그는 그후 연구실부책임자가 되었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창운에게 농촌을 뜰것을 권고한다.

그후 은희는 농촌동원에 나갔다가 창운이의 성실성에 재삼 공감되어 농촌에 나올 새로운 결심을 품게 된다. 그리고는 창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고 《저를 때려주세요. 어서어서 실컷실컷 사정을 두지 말고 때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린다.

보는바와 같이 작가는 은희의 애정심리의 변화과정을 보여줄 성격발전의 계기를 설정하지 않고 창운이의 성실성에 감복하였다는 등의 세부들만 주고 주관적 의도로 이들을 다시 결합시키는데로 이야기를 비약시키고있다. 이것은 한낱 인위적인 강요이며 독자들에게 충분한 납득을 줄수 있는 해결이 아니다.

애정윤리문제의 설정과 그 해명에서 또하나의 중요한 부족점으로서는 사상정신적 높이에 있어서나 윤리도덕적 면에서 도저히 결합될수 없는 인물들을 작가의 《억지》로 결합시켜놓은것이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생활에서 자기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부정인물들이 없지 않다. 이런 인물에 비하여 긍정인물의 정신세계가 비할바없이 높고 그들간의 사상정신적 차이가 너무나 현격한것만큼 그들간의 사랑이 결렬되는것은 불가피한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생활그대로를 그려야지 억지로 공부정인물들을 결합시키면 이러한 사랑이 독자들에게 사상미학적 공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자아내게 된다.

이러한 부족점은 앞에서 애정윤리문제를 진실하게 그렸다고 본 장편소설 《탄부》의 경우에도 찾아볼수 있다.

작품에서는 도시로 시집가기를 원하는 들뜬 처녀인 옥심이와 도시의 연구소에 배치되었다가 탄광마을인 자기 집으로 돌아와 탄부가 되는 중국이와의 애정관계를 그리고있다. 옥심이로 말하면 중국이의 사랑을 배반한후 다시 그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만한 사상정신적 준비를 갖고있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들의 결렬은 사실상 불가피하고 또 필연적인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사랑에서 인간보다 직업이나 도시를 더 중시하고 《나라구 뭐가 모자라서 여기 탄광마을에만 배겨있어야》 하는가고 하면서 《연구소마을》, 《합흥이나 평양같은데 가서 산다면 그이상 소원이 더 없겠다》 고 생각하던끝에 이미 약속한것도 헌신짝 버리듯한 처녀이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옥심이의 생활에서 이렇다할 미학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개변의 계기가 없이 그가 고민끝에 이곳저곳으로 들떠다니는 생활과 정신적으로 모대기는 세부를 주고 마침내 순직한 아버지의 친구인 갱장 김형석과 애인이었던 그 아들 중국이의 관대한 용서로 결합되게끔 이야기를 펼쳐나가고있다.

작가는 도대체 이들의 결합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것인가. 열렬히 사랑하던 애인마저 차버리고 도시로 시집가려고 다른 남자를 넘겨보면서 너절하게 행동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탄부의 깨끗한 《량심》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라는것인가.

물론 용서할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은 작중인물들의 객관적 생활윤리로부터 규정되는 문제이며 작가의 창작적 권한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옥심이와 중국이의 결합은 독자들에게 미학적으로 공감되고 수긍되는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진실을 배반한, 그것도 옥심이처럼 너절하게 행동한 인간의 운명은 교훈적이어야 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애정윤리문제에서 사상정신세계의 측면에서나 윤리도덕적 면에서 그 결합

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 작가는 그것을 대담하게 잘라놓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시기 창작된 장중편소설에서 왕왕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있는것은 창작에서 도식적인 틀을 낳게 하며 독자들에게 교훈적의의로 충만된 애정륜리문제를 보여줄수 없게 한다.

우에서 언급한 《청춘송가》에서 진호와 현옥의 결합도 비록 그 농도에 있어서는 약하다고 볼수 있으나 아직도 형상적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진호를 의심하고 그를 잊으려고까지 하던 현옥이가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고민과 자책의 세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인물로 그려졌기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것은 작품에서 현옥에 대한 진호의 애정심리와 기철이에 대한 정아의 애정심리는 애착을 가지고 깊이있게 그렸으나 현옥이의 애정심리에 대하여서는 그 발전과정의 전모를 예상할수 있게끔 심리정서적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그리지 못한 사정과 관련된다. 이런 관계로 진호가 현옥을 찾아가는 장면은 어딘가 모르게 《부족점이 있더라도 이끌어 주어 사랑을 창조하자》는 작가의 계시에 따라 작중인물의 행동선이 서둘러 주어진듯한 인상을 준다. 이것은 작가가 현옥이의 애정심리를 변화발전과정속에서 깊이있게 그리지 못하고 진호와의 결합을 서둘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다.

이상에서 나는 최근시기에 나온 장중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애정륜리문제의 구현에서 나오는 일련의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우리 시대의 애정륜리는 재능이나 사업의 성과 보다는 인간의 성실성을 보아야 한다는 《야금기지》의 애정륜리의 문제성이나 사랑은 꽃을 끌라따듯 할것이 아니라 창조해야 한다는 《청춘송가》의 애정륜리의 문제성과 같이 작가에 의하여 착상되고 발견된 문제성을 들고나올 때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릴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작가들은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애정륜리를 사랑의 성숙, 결렬, 결합 등으로 이야기줄거리를 전개하던 《틀》을 없애고 보다 풍만한 생활과 사건, 특색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다양하게 그려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작품들을 보면 청춘남녀간의 사랑관계를 작품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다보니 애정선은 있으나 단조로우며 뚜렷한 문제성이 담겨져있지 않고 순수 사랑이야기만 있거나 사회생활의 전모가 안겨오지 않는 좁은 가정적 울타리속에서 그려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것은 장중편소설창작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애정륜리문제의 설정과 해명에서 생활론리에 맞게 이야기를 끌고나가는데 보다 많은 힘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다.

가사

들국화 핀 고향의 언덕에서

리찬영

정다운 산촌의 푸른 들판에
향기를 머금고 웃는 들국화
골깊은 두메에 피여났어도
뿌리내린 산촌에 향기 풍기네
아, 들국화 속삭이네
고향을 사랑하라고

꽃피준 그 품이 소중하여서
고운 꽃 송이로 장식하는가
사람들 즐기며 반기여줄

드넓은 화원도 부럽지 않다네
아, 들국화 속삭이네
고향을 잊지 말라고

찬서리 내리는 그 아침에도
들국화 꽃송이 곳곳이 피네
좋은 철 다 가도 변함이 없이
고향을 위하여 피는 꽃이여
아, 들국화 속삭이네
고향을 꽃피가라고

안골의 새 경치

리광령

우리는 얼마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 200 일전투의 불길높이 마지막 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광복거리 안골체육촌을 찾았다.

광복다리로부터 15 리구간에 이르는 100 메터 폭의 좌우에 하늘높이 솟아오른 덩지 크고 형식이 다양한 고층, 초고층 살림집들과 문화시설들, 편의 봉사시설들을 가슴흐뭇이 바라보며 우리가 칠골립 체다리를 가까이하고있을 때였다.

왼쪽으로 새로 뻗은 곧고 넓은 아스팔트포장도로 저쪽 멀지 않은곳에 웅장화려하고 시원스러운 건축물이 우리의 시야에 불쑥 안겨왔다. 그 건축물이 다름아닌 수영경기관의 일각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차를 멈춰세우고 걷기로 하였다.

소나기 내린 뒤의 무지개 비낀 시원스런 초원에 나선듯 가슴 한껏 들먹이게 하는 길, 그 좌우의 깨끗이 정리된 언덕에서는 진귀한 나무들과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푸른 잎새 흔들고 향기를 풍기며 우리를 반겨맞았다. 그 길이 바로 두해전까지 안골로 넘어가던 좁은 고개길자리에 그리고 올해봄까지만 해도 군인건설자들이 발파소리를 높이 울리며 넓히던 길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감개무량하였다.

수영경기관을 가까이함에 따라 안골체육촌의 전모가 더욱 선명히 안겨왔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경대지구에 체육촌을 형성하고 경기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체육시설을 갖추며 룡라도와 양각도에는 경기장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 정력적인 지도속에 만경대 안골의 수려한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일떠세운 경기관들과 경기장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은 어느것이나 다 새롭고 독특한 자기의 양상을 가지고있었다.

강한 수직요소와 경쾌하고 튼동적인 선의 처리로 하여 수영관은 보기만 해도 물에 뛰어들고싶도록 시원하고 통쾌한 감을 준다.

그리고 우산을 펴놓은듯한 지붕에 8 각형으로 된 몸통의 벽체마다 병풍식으로 되어있는 바드민 톤경기관은 가볍고 우아한 감을 주고 중경기관의 기백있는 룡형건축미는 남성적인 억센 기상이 그대로 안겨왔다.

그런가 하면 경경기관은 기계체조와 예술체조 여러가지 룡상경기도 하게 되는 특성을 살려 부드러운 타원형의 곡선미로 하여 녀성적인 맛을 주고 있다.

줄식구조로 된 지붕에 력기짜를 포개놓은듯한 원형으로 되어있는 력기경기관, 룡구대를 방불케 하는 룡구경기관, 12 개의 경사진 큰 기둥들이 좌우에서 건물을 받쳐주어 그 모양이 배구경기장면을 펼쳐놓은듯한 배구경기관, 상대편 팔문안에 공을 힘껏 던져넣는 순간의 송구선수의 담찬 모습 그대로 강한 지향성을 안겨주는 송구경기관...

한꺼번에 20 종목에 대당할 40 가지의 경기를 할수 있고 근 5 만명이 같은 시간에 경기를 볼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경기관들을 바라보느라니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 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건물들의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쌓으며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를 벌리던 청년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모습들이 영화의 화면처럼 우리의 눈앞에 펼쳐졌다. 안골체육촌에 일떠선 경기관들가운데서 그중 덩지가 크고 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물을 다루는 경기관이여서 그 시공이 여간만 까다롭지 않은 수영경기관건설을 맡은 평안남도 청년건설자들은 그 어느 전투원들보다도 힘겨운 전투를 벌린 사람들이였다.

그들이 벌린 전투치고 어렵고 치열하지 않은것이 있으랴만 취재의 나날에 우리가 직접 목격했던 경기수조와 훈련수조, 물에 뛰어들기수조공사는 더욱 선명하게 안겨왔다.

수영경기관 수조건설 전례를 보면 일체식 충막을 치고 방수미장을 한다음 철관을 놓고 또 방수미장을 해야 하는 등 시공공정이 어렵고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렇게 타산해보니 천여미터의 휘틀을 비롯한 술한 자재가 있어야 했고 로력도 많이 들어야 했으며 공사기일도 문제였다.

이런 때에 청년건설자들은 당의 의도, 당의 요구를 되새기며 혁신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강도높은 철판들을 제창 그 기둥위에 얹히고 그안에 방수미장을 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수조들을 시공하자는 대담한 안이 나오게 되었다.

수조건설장들에서는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낮과 밤을 잇는 치열한 사회주의 경쟁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수조건설속도는 대뜸 2배이상으로 뛰어올랐다.

그것은 전반적인 공사기일을 그만큼 앞당기는 돌파구를 여는것으로 되었었다.

다른 나라들의 수영경기관들과는 달리 훈련수조까지 있게 그리고 주체적인 공법으로 수조탱크들을 지하실의 기둥보우에 공중 띄워 시공함으로써 물이 새는 경우에 제때에 손쉽게 보수할수 있게 되어있는 수영경기관은 바로 그들의 이런 련속적인 돌격전에 의하여 일떠섰고 오늘과 같이 완공의 날을 눈앞에 보게 되었었다.

수천석의 관람석을 가진 탁구경기관건설을 맡은 함경북도 청년건설려단전투원들도 대중적 영웅주의의 창조자들이다.

처음 와보는 사람들이라면 그저 《굉장하군!》 《대단하군!》, 《정말 훌륭해!》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할것이지만 건설의 나날 이곳에 자주 나와본 우리들로서는 완공을 눈앞에 둔 탁구경기관의 림름한 모습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한낮에도 개구리들이 합창을 벌리며 훌쩍훌쩍 뛰어다니던 진펄에 허리를 잠그고 피약벌아래서 기초파기전투를 벌리던 때며 산처럼 파울린 흙이 장마비에 무시로 무너져내리는속에서 기초콩크리트 치기전투를 벌리던 나날...

그 어느 나날의 갈피속엔들 함경북도 청년건설려단전투원들의 불굴의 투쟁이야기가 깃들어있지 않았으랴만 그들이 경기관전투우에 대형강철티라스를 올리던 때의 것처럼 대담하고 것처럼 통이 크고 것처럼 치열하던 투쟁모습은 목격자라면 누구든 다 가슴속에 길이 간직해야 할 그런 영웅서사시적 화폭이였었다.

그들이 조립한 대형강철티라스는 건설장이면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러루한 정도의것이 아니라 기차에 싣는다고 해도 기차굴을 통과할수 없는것들이였고 제작한 공장에서 항까지 나가는것도

길을 새로 내고서야 운반해서 1만 4천톤급 《강동》호에 실어서 남포까지 들어온 그런 거물급 대형강철티라스였다. 그들은 이런 요란한 강철구조물 4로막을 땅우에서 각각 두로막씩 이어 대형자행기 증기로 경기관 오른쪽 만장에 올려 다시 하나로 이어 길이 72미터에 무게 40톤짜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대형강철티라스를 집을 지을 때 들도리우에 보를 건너놓듯 다섯개를 차례로 무었다. 그 무게는 200톤이 넘었다. 그들은 그런 중량물을 끌기공법으로 왼쪽 만장터까지 끌어갔으며 그것으로 탁구경기관 천정절반을 덮었다.

다음에는 7개를 같은 방법으로 한군데 무어 나머지 공간을 모두 덮었다.

이것은 말로 하거나 글로 적기는 쉽고 간단한것이지만 그때의 그들의 그 영웅적 투쟁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담이 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도망을 쳤거나 까무라쳤을것이다.

그때 그들이 벌린 투쟁은 것처럼 대담하고 통이 큰것이였으며 아직 세계건설력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시공법이였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 청년건설자들이 이처럼 대담하고 통이 큰 전투의 련속으로 일떠세운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은 또한 내용에서 질적 수준이 높고 현대적이였다.

안골체육촌의 경기관들과 경기장들은 모두가 경기홀의 빛조절과 온도조절, 공기의 정절도보장을 자유자재로 하고 경기의 조직과 운영, 심판을 과학적으로 하며 경기실황보도를 텔레비존과 라디오로 아무때나 할수 있게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을뿐아니라 경기관들과 경기장에서는 또한 종목별 훈련실, 심판원실, 지도원실, 선수휴게실, 회의실들이 알뜰하게 꾸려져있으며 경기종목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영양식사를 공급하는 식당과 치료실, 목욕탕, 한증탕 등 후생시설들도 훌륭히 갖추어져있었다.

이밖에도 안골체육촌에는 체육인들을 위한 피로회복관과 체육인식당, 천여명의 수용 능력을 가진 안골려관 그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수백명의 수용능력을 가진 관광려관까지 훌륭히 꾸려져있었다.

안골체육촌에는 도로망도 현대적으로 훌륭히 꾸려져있었는데 100미터폭의 광복거리 중심도로 상에 있는 칠골립체다리쪽에서와 만경대갈림길쪽 그리고 안산다리쪽에서와 안골립체다리쪽에서 안골로 들어오고 나가는 도로가 사방으로 뻗여져있다.

우리가 체육촌을 떠나기에 앞서 오른 안골립체 다리는 말로서는 이루다 형언할수 없으리만큼 훌륭하고 아름답다.

만경봉의 수려한 기복들과 함께 대동강의 우아한 자연풍치와 조화를 이루는 이 다리는 평양시중심에서 안골체육촌으로 들어오는 다리와 안골체육촌에서 시 중심방향으로 빠지는 다리 그리고 안골체육촌에서 남포방향으로 빠지는 다리와 남포에서 안골체육촌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포함하여 모두 4개의 특색있는 자매다리들로 구성되었다.

안골립체다리의 모든 자매다리를 놓고 볼 때 건축미학상 견지에서도 완전히 독특하다. 특히 종단, 횡단, 평면물매처리가 재치있게 되어있으며 곡선 직선처리도 보다 원만하게 됨으로써 자동차운행에서의 안전성은 물론 이 립체다리를 통하여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빠질수 있게 되어있으며 립체다리의 신축이음부분을 종전보다 절반이상으로 감소시키고 그에 대한 처리를 기발하게 함으로써 다리건설에서는 물론 현대구조물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대동강물속에 뿌리를 박은 원통형기둥들을 포함한 수십개의 반침기둥들은 참으로 볼수록 경쾌하고 우아하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재, 우리의 힘으로 일떠섰다는것으로 하여 더욱 귀중하게 여겨졌다.

각종 체육시설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규모가 크고 완전무결한것으로 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국제올림픽경기대회 행사들도 원만히 할수 있게 건설된 안골체육촌은 그 어느 대륙, 그 어느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이건 누구나 다 최상의 수준에서 휴식과 훈련을 하며 최상의 경기성적을 거둘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기지였다.

하기에 1987년 여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한 성원까지도 안골체육촌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세계의 그 어디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나라는 없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오래전부터 혁명의 수도 평양에 웅장화려하고 현대적인 체육촌을 일떠세우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여러차례에 걸쳐 체육촌 형성도안을 보아주시고 그자리까지 일일이 잡아주신곳에 그이께서 나라의 설계가들속에서 설계현상모집을 조직하시고 하나하나 골라주신 설계대로 일떠선 그 체육촌을 안골립체다리우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시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겁게 젖어올랐다. 그것은 바로 일요일의 휴식마저 미루시고 수십여차례나 광복거리 건설장을 찾아주신 못잇을 나날들에 안골체육촌 건설정형을 료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장마에 길이 질적이고 가물에 먼지이는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현장에 오시기도 하시면서 경기관들의 외장재 색깔까지 정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지도가 가슴뜨겁게 헤아려져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골이란 이름을 가진 고장이면 골 어귀와 골짜기, 그 량옆에 산이 있고 그 산기슭들에 밭이 있고 골 가운데로 실개천이 흐르며 그 골짜기에서 다른 골짜기로 넘어가는 령길이 있기도 하다는것을 상식적으로 알고있다.

만경대 안골 역시 2년전까지만 하여도 그런 고장이였다. 그런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들이 웅장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며 하늘높이 솟아오른 오늘 안골에서 찾아볼수 있는 그전 모습이란 소나무 푸른 산들뿐이다. 말그대로 천지개벽의 새 경치가 펼쳐진것이였다.

안골의 새 경치, 이것은 위대한 주체건축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 불면불휴의 정력적 지도속에서 펼쳐진 인간사랑, 인간행복의 새 경치, 조국의 무계를 천만배로 더해준 만년재부의 새 경치, 로동당시대의 새 경치인것이다.

우리는 벽찬 환희로 가슴을 들먹이며 귀로에 올랐다.

뒤에서는 안골 동산기슭에 푸른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여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안골려관과 안골어귀 오른쪽 산봉우리에 우아하게 일떠선 관광려관이 우리를 오래도록 지켜보고있었다.

마치 우리 인민이 누구나 다 가슴깊이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하늘땅 끝까지,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목청껏 노래불러 찬미할 로동당시대의 영원불멸의 기념비처럼!

전변의 날에 외 1 편

윤기찬

낮도 밤도 없이
언제 한번 뜰해질줄 모르는
발동소리, 호각소리
서로 엇갈리며 불비는
카리비료공장 건설장

여기로 왔구나
키 후리후리한 교통안전원처너
번창한 도시의 네거리를 떠나
아직은 포장길도 아빠트도 없는
구봉산 기슭의 새 구내길로...

줄줄히 꼬리물고 들어서는
그 적재함엔 세멘트인가 철골인가
물탈 한삽이라도 더 이기고 싶어
마음 앞세우며 서로 다투는데
어느새 또 물고기차 꼬리무누나

설계도면을 말아쥔 장령도
차판 가득히 전동기 싣고 달려온
북방의 머리 흰 지배인도
작전 좌지에 급히 들어서야 하는듯
저마다 서둘러지는 마음이어라

누구를 먼저 보내고
누구를 뒤에 세우랴
생글생글 웃음 지으며
상냥하던 얼굴에 엄한 빛이 어렸구나
명령대신 구령대신
높이 추켜드는 붉은 지휘봉

이마에 흐르는 땀물을 흠치며
우로! 좌로!
불러들이고 불러내는
야무진 호각소리여
오르내리는 지휘봉이여

순간을 멈추라
하늘에 땅우에 철골을 이어가며
불꽃 날리는 용접의 일손을
순간을 지체하라
소성로의 동체를 싣고오는
그 무쇠바퀴의 걸음을

별빛 눈을 반짝이며
구내의 동서남북으로
바쁜 길 열어주는 초병아
어느 명절날의 도시 한복판에선들
그렇게 맴돌며 땀흘려봤던가

내 나이 오십고개를 넘기며
지휘봉을 든 초병은
도시의 네거리에서만 보아왔건만
너는 대건선행군으로 들끓는
새 구내의 초소로 옮겨왔구나

아, 전변의 날에
단 한초라도 늦어질세라
그리도 날랜 춤가락으로
철의 흐름을 지휘하는 처녀
땀물에 젖는 너의 지휘봉과 함께
대굴지의 화확기지가 솟아오르누나

가촌벌의 종다리야

구내에 울리는
첫 기적소리에 잠을 깨였느냐
발파소리에 놀랐느냐
우거진 숲속에서
하늘에 날아오르는 종다리

발갈이철에 씨뿌리는철에
뜨락또르소리와 정들은 새야
이제 이 가촌벌에 넘쳐흐를
소성로의 열풍소리 멀리
너의 깃자리 옮기려느냐

하늘에 흩어지며 놀라지 말아
여기 키숫구는 굴뚝과 철골들
화력타빈의 우람찬 시동소리...
그 모든것이 카리비료산을 이룰 때
그때면 여기에도
풍년벌의 새 노래 울려오려니

종달새야
멀리 멀리로 날아가도
정녕 이 기슭을 떠나지 말아다오
네 삶의 노래인
이삭 열매 예서 무거이 주렁지우고

에서 만풍년 안아올리리니
종달아, 가촌벌의 종다리야

다시 다시 이 가슴을 찾아와다오
예 와서 풍년노래
사철 불러다오

나는 평양의 아들 외 1 편

한원균

세월은 흘러도 가슴엔 뜨겁다
그날의 개선광장
감격의 환호성이 터져오를 때
민족의 태양이신 장군님을 우러러
어머니의 눈가에 맺히던 이슬은

잊을수 없노라
해방된 이 땅에 처음으로 일떠선
창광산기슭의 아담한 유치원
꽃향기 흘러드는 요람가에서
기쁨에 목매여
무심히 나를 안지 못하던 어머니 모습

시련 많던 전후 온 나라가 허리띠 졸라맬 때도
그대 손길에 받들려
소년궁전 전망대에 높이 오르면서도
나는 미처 다 몰랐구나
그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그대를 지켜 새워가던
변방초소의 밤에
황홀한 새거리 건설의 나날에
나는 내리는 눈비도 맞았고
귀한 땀 아낌없이 흘리기도 하였다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안해와 저녁길 걸을 때면
물보라 아름다운 유보도를 내어주고
늘어나는 살림이 비좁을세라
문수거리 새집에 옮겨주고도
오늘은 먼먼 미래를 앞당겨
창조와 건설의 음향 펼쳐가는 평양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랑의 태양이
온 누리에 빛발쳐가는곳

축포가 오르는 경축광장에 세워주며
인생의 값높은 행복을 꽃피워주고
그저는 오를수 없는 대성산마루에서
영생이란 무엇인가 뜨겁게 깨우쳐준
그대는 영원하고 위대한 혁명의 품!

그대 품에서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삶의 첫걸음 내디딘 이 몸
그대와 함께 향도성 우리리
존엄높은 한생을 빛내가거니

아, 나는 영원한 그대의 아들
그대만을 받들어 드립없을
그대의 성돌이며 초석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내 그대를 받들어 사는 아들
나는 평양의 아들이노라

전쟁의 간고함 다는 몰라도

소년은 보았네
대동교 철교는 끊어지고
거리와 집집은 불탔어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대동강 나루터를 건느는
당보실은 우편차들, 포탄차들, 후방차들...

소년은 들었네
하늘엔 미국놈 비행기 날치여도
낮이면 낮, 밤이면 밤
시간마다 어김없이
전선소식 전하는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가슴의 피 끓게 하는 결전의 노래를

소년의 심장 불탔네
장군님께서 싸우는 용사들에게
콩나물까지 보내주신다고
특무상사운전수 눈시울 적시던 날
군무자축전에 올라온 둘째형을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만나던 날

아, 소년은 알았네
전선과 후방을 한품에 안고
3년세월 불굴의 힘과 신념
소중한 노래를 준
평양에서 전승의 아침이 밝아왔음을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8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아이를 업은채 어푸려져있는 아낙네, 피투성이 된 허연 머리를 메치고 쓰러진 로인, 주먹을 부르짖고 눈을 부릅뜬채 젖혀누운 청년, 소담한 머리채를 눈무지우에 산산이 풀어던지고 어푸려져있는 젊은녀인, 시체를 돌아보며 허둥지둥 걸어가던 리철범이 우뚝 멈추어섰다.

이것은 리철범정치위원의 소부대일행이 살인마 마에다부대에 의하여 참변을 당한 량강구마을사람들의 시체들을 돌아보는 장면의 한 문장이다.

숨겨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마지막순간의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륙의 치참상을 절통한 감정으로 물들여놓았다.

렬거한것은 뜯어본것이며 거기로부터 전체의 산 화폭과 함께 감정정서적 색깔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자림토없이 반점으로 렬거되었다.

이러한 렬거법의 리용 역시 분석적인 세부묘사에 이바지하는 수법의 하나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보충법으로 표현한 실례

보충법이란 움직임의 모양이나 성질, 정도를 눈에 보이듯이 귀에 들리듯이 피부에 감촉되듯이 생동하게 표현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또한 음악적 톨동으로 감정정서를 돋구어주기도 한다.

보충법의 조성방법은 네가지이다.

우선 《첨병》과 같은 본판말로 조성할수 있고 다음은 《살랑거리다》, 《경충하다》, 《건들바람》과 같이 본판말로 이루어진 동사, 형용사, 명사로 조성할수 있다.

그다음은 《정성스레》와 같이 본래 명사이던것이 형태가 변하여 부사로 된 말로 조성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과 같이 부사적으로 쓰인 몇개의 단어결합으로 조성할수도 있다.

이 네가지중에서 장편소설 《준엄한 친구》에는 주로 어떤 조성방법이 리용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밤에는 어데서 그렇게도 술한 벌이 쏟아나왔는지 크고작은 벌들이 바글바글 끓는다. 술쩍 하

굽만 건드려도 벌무리는 와르르 찌락느처럼 쏟아져 내릴것만 같았다.

단풍잎이 몇개 팔랑팔랑 나비처럼 날아서 순녀의 머리우에 내려앉는다.

양철주전자 꼭지에서는 실실 단김이 뿜겨나오고 곱돌장그릇에서는 보글보글 장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

며칠째 날이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해질무렵이라 강판에 매운 바람이 살살 일기 시작하였다.

불길충천하는 경찰대본부 언덕쪽에서 불어오는 후끈후끈 단바람에 김정숙동지의 단발머리와 옷자락이 퍼덕퍼덕 날렸다.

이상의 레문들에서 빨간 색의 글자들은 본판말이다. 즉 본판말로 조성한 보충법의 리용이다.

제비초리같은 노랑머리꿩맹이를 달랑거리며 해진 짚신을 찰찰 끌고다니던것이, 만나기만 하면 동동 매달려

《성주오빠, 나 옛말, 나 창가 배워줘.》 하고 조르던 철부지, 어쩌면 저렇게도 번진단말인가?

...이따금 바깥에서 우우 바람소리가 지나가고 풍막의 천정이며 바람벽들이 훌렁거릴 때마다 초불은 거불거불 춤을 추었다.

아침설것이를 끝낸 칠성이 어머니는 허드레물 버치를 안고 마당으로 나서는데 집앞의 들메나무 가지우에서 까치가 풍지를 출씩거리며 깹깹 울었다.

이 세개의 레문에서 빨간 색의 글자들은 본판말로 이루어진 동사로 조성한 보충법이다. 거기에 본판말 《찰찰》, 《동동》, 《우우》, 《거불거불》, 《깹깹》이 어울렸다.

인관은 잠시 묵묵히 어둠속을 바라보더니 후리한 몸집을 경정경정 옮기어 조경춘을 앞서 올라갔다.

돌로 깎은듯이 **맹맹하던** 얼굴이 어쩌면 한달사이에 저렇게 **주글주글해지고** 눈곱에 로인처럼 진물까지 고이었을가?

예감 그대로 산모통이에 모여앉았던 수심호의 동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번번한** 벌판에 불타넘어진 집터들만이 얼룩덜룩 널려있었다.

서장놈은 시커먼 털이 부르르 덮인 큰 손으로 골뎂질같이 피부가 **송글송글한** 턱주가리를 술술 문지르면서 무슨 궁리엔가 꼴뿔하여 인판을 건너다보았다.

이상의 레몬들에서 빨간 색의 글자들은 본판말로 이루어진 형용사로 조성한 보충법이다. 거기에 본판말 《경정경정》, 《얼룩덜룩》, 《부르르》, 《슬슬》 등이 어울렸다.

보는바와 같이 보충법은 문장에서 동사와 련결되면서 그것을 의미적으로 보충해주는 단순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대상, 현상의 움직임을 모양으로, 소리로, 색깔로, 성질로 본따는것으로 하여 형상의 생동성, 정서성을 높이는데서 큰 역할을 한다.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서 보충한다는것은 그 특징을 본따보는것이다.

창작실천에서 개성화된 본판말을 리용하면서도 자기대로 새롭게 만들어내면 낼수록 그 작품의 생동성, 정서성은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대상, 현상에 대한 작가의 관찰이 남다른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에서 개성은 더욱 살아나기마련이다.

남다른 관찰력을 가진 작가치고 개성적인 문제를 가지지 못한 작가는 없다. 반대로 남다른 관찰력이 미미한 작가치고 개성적인 문제를 가진 작가는 없다.

그러므로 작가의 문제에 관한 문제는 언어형식에 관한 문제이기전에 작가의 관찰력에 관한 문제이며 예술가적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남다른 관찰력을 가졌다면 그는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를 갖춘 작가이다.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로서의 남다른 관찰력과 개성적인 문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밝히기 위하여 지금까지 주로 명문장을 중심으로 표현수법리용측면을 고찰하였다.

그러면 명문장을 중심으로 주로 표현수법리용측면을 고찰한 리유는 어데 있는가?

그 리유는 바로 작가가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을 보고 받아들이는데서 얼마나 독창적인가 하는것이 명문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새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는데서 얼마나 창발적인가 하는것이 표현수법리용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데 있다.

명문장을 통하여 표현수법을 연구하는것은 남다른 관찰력을 키우고 언어형상의 개성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여기로부터 모든 작가, 문학통신원들이 《명문장집》을 가지게 된다.

《명문장집》은 《관찰자료》와 《어휘수첩》과 함께 작가, 문학통신원들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이 밑천을 발판으로 하여 작가, 문학통신원들은 상승하고 도약하며 비약하게 되는것이다.

《명문장집》을 리용하는 방법에서는 물론 차이가 있을수 있다. 그 차이를 종합해보면 대략 이러하다.

어떤 작가, 문학통신원은 새로 나온 책을 놓치지 않고 읽으면서 명문장을 발취해넣는다.

또 어떤 작가, 문학통신원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작품만을 읽으면서 명문장을 발취한다.

혹 어떤 작가, 문학통신원은 자기가 선택한 작가의 창작계렬을 따라가면서 명문장을 발취한다.

가장 리상적인것은 이 세가지 목표를 다 설정하는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자면 험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품들인 그만큼 소득도 커진다. 그 소득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창작을 험하게 하면서도 작품의 풍격을 보장하게 된다는것이다. 창작을 한생의 업으로 삼는 작가에게 있어서 창작을 험하게 하면서도 작품마다 풍격을 갖추게 된다면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물론 이 세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저절로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가 갖추어지는것은 아니다.

명문장을 발취할뿐아니라 그것을 부단히 음미하면서 자연리치와 생활철리를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해나갈 때만이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가 갖추어지게 된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인간과 그 생활의 의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기 위한 작가의 노력은 결국 자연리치와 생활철리를 리해하고 그 기초우에서 자기의것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이다.

그러므로 작가, 문학통신원들은 명문장집을 창작실천 전과정에 리용해야 한다.

새 작품의 취재과정에 그 생활세계를 무르익히는데 암시가 되고 계시가 되게 명문장을 새겨보고 창작과정에 막힌 고리를 푸는데 암시가 되고 계시가 되게 명문장을 새겨보며 추고과정에 산 숨결을 주는데 암시가 되고 계시가 되게 명문장을 새겨보아야 한다.

작가는 사전을 쥐면 자기가 찾으려는 단어가 있는 바로 그 장을 펼쳐야 한다. 그것처럼 작가는 명문장집을 쥐면 자기가 찾으려는 명문장이 있는 바로 그 장을 펼치게 되여야 한다.

작가에게 있어서 사전이 새 단어의 뜻을 익히고 어휘군을 늘여나가는 참고서로 된다면 《명문장

집》은 다양한 표현수법을 익히고 새것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나가는 참고서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명문장집》도 작가에게 있어서 사전과 같은 것이다.

한 작가가 자기의 《사전》을 어떻게 만들고 리용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편집자는 많은 작가들의 《명문장집》을 보아왔다. 그중에서 《명문장집》의 가치와 의의를 깊이 깨달은 작가의것을 하나 소개한다.

그 작가의 《명문장집》에는 두가지 표식이 있었다. 하나는 표현수법에 밑줄을 친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것의 발견에 점선을 친것이다.

. 배는 여울락을 가로질러 왼쪽기슭으로 향했다. **부락으로부터 그들을 따라오듯이 님을음소리가 울려와 물우에서 메아리쳤다.**

. 종전까지 순결하던 처녀의 이름을 **새 대문에 골탄칠하듯** 더럽혀놓았다.

. **나무에 매달린채 겨울을 나는 서리맞은 돌배처럼** 시퍼렸다.

. **치면 살얼음 깨지는 쟁그렁 소리가 날것 같은** 차거운 하늘의 뽕기뿐이다.

. 더럽고 치사스러운 마디마디가 **돌맹이처럼** 날아왔다.

. **덕지가 앉지 못한 부스러미를** 아버지가 굶은 것이다.

. **나이 많은 동무들은 이해에 소녀시절과 작별한 그를 자기네의 한동아리 처녀패에 받아들였다.**

. 땅은 하나이지만 풀은 여러가지 액즙을 빨아올린다.

. **은방울소리같은** 테노르는 애끓어 통절한데 **바스는 비로도처럼** 부드러운 애상을 퍼놓았다.

. 전투가 있는곳에서는 침울한 **땅의 얼굴이** 포탄에 패여 곰보딱지가 되고 그속에서 강철파편이 사람의 피를 **그리워하면서** 녹슬어갔다.

. 피기없는 해는 **남편 잃은 녀편네처럼** 쓴웃음을 보이고 **жал끔하면서** 정결스럽게 푸른 하늘은 **가까이할수 없으리만큼 말짱하고 교만스러웠다.**

. 길은 인적도 없이 아득히 보이지 않는곳으로 흘러가고있었다. **거기서는 먼지를 흠날리며 바람이 독판치고있었다.**

. 말은 **돌우에 떨어지는 비방울처럼** 쳐뚱거렸다.

. 수천의 말발굽이 마치 **땅속에서라도 울려오는 것 같은** 웅글은 소리를 퍼놓았다.

. **불붙는 고간의 쥐모양으로** 안절부절을 못했다.

. 《**령감이 무슨 말을 속에 돌맹이 품듯** 간직하고있는걸 모르는줄 알아요. 팔매질 하면 어때요?》

. **채 솟아오르지 못한 해가 지평선너머에서 애틋** 태우고있었다.

. 처녀의 무릅없는 **생글웃음은 가시풀처럼** 미지까를 콕 찢었다.

. **겨울을 앞두고 쟁하니** 춥고 **얼음이 흥겨운 소리를 내는** 그런 날이 찾아와서 신랑신부를 치장시켰다.

. **승승 구멍이 난 3월달의 얼음을 타고 강을 건너는** 봄처럼 발돋움하며 조심히 마음속을 더듬었다.

. 그의 눈에서는 **그리스가가 놓았던 불에서 남은 등걸불이 공포의 재에 묻혀** 보일가말가하게 그물거리고있었다.

. **바로 문지방에 당도한 새 생활에** 놀라고 알지 못할 앞날에 시달리었다.

. 높은곳에서 솟하고 총알이 지나가는데 길게 꼬리를 그는 그 **휘파람소리가 유리같은 하늘의 수정통을** 갈았다.

. **금강석으로 유리를 깨듯이** 그리고리의 뇌리에 새겨져서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이것이 한 작가의 《명문장집》에서 발췌한것이다.

이 작가의 《명문장집》에는 새로 나온 작품과 이름난 작품, 한 작가의 작품계렬에서 발췌한 명문장이 다 들어있었다.

편집자는 작가와 담화하였다.

《선생은 자기의 <명문장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뒤에 오는 사람도 생각해 하며 길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가는 웃으며 잠시 생각하였다.

《내가 사랑하는 문학청년이 세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보여준것 같습니다.》

《적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시다. 우선 이 내용을 가지고 경험을 쓰기로 저와 약속하셔야 하겠습니다.》

작가는 손을 내저었다.

《이게 무슨 경험이라고 쓰겠습니까.》

편집자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어찌 경험이 아닙니까. 선생은 많은 작품을 쓰고도 경험은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작품과 함께 창작경험을 남겨야 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없는것이면 몰라도말입니다.》

제가 어떤것을 목격했는지 압니까. 한 작가는 문학통신원들에게 사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옮겨쓰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 얻는 리득이 무엇이겠는가고 말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을것입니다. 어휘를 많이 소유하게 될것이고 작가로 되기가 결코 험치 않다는 각성을 가지게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얻는 리득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 대가입니다.

제가 또 어떤것을 목격했는지 압니까. 다른 한 작가는 문학통신원에게 장편소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옮겨쓰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을 옮겨쓰

게 한것보다는 좀 낫기는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얻는 리득에 비해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작가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문학통신원에게 이름있는 장편소설을 지명해주고 거기서 명문장을 뽑아오라고 과제를 준다음 그것을 검토해줍니다.

정확히 뽑지 못하였을 때는 자신의 <명문장집>을 내어주며 놓친것은 무엇이고 아닌것은 무엇인가하는것을 문학통신원자신이 가려내게 합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서 표현수법과 새것의 발견에 표식을 한것을 익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학통신원은 작품에 담긴 인간생활과 자연현상의 깊고 폭넓은 세계를 압축하고있는 생활철리와 자연리치를 깨닫게 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명문장을 통해서 새것을 발견하는 눈을 틔워나가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생산적이고 능률적인것으로 해서 작가에로의 길을 단축시켜줄것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작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명문장집》에 담긴 자기의 의도를 이해해주는 의사소통에서 오는 기쁨이었다.

《작가가 쓰는 편집자가 쓰는 꼭 쓰기는 써야 하겠습니까.》

작가와 편집자사이의 담화는 이렇게 끝났다.

이제는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라는 장에서 소설부분을 결속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에 대한 호상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창작실천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그것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남다른 관찰력은 개성적인 문체의 기초로 된다는것이다.

남과 구별되는 사고방식과 사유내용이 그에 알맞는 표현의 전제로 되니만큼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남다른 관찰력을 키워야 한다.

남다른 관찰력은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로서 자유분방한 환상과 고상한 사상미학적 리상, 언어의 개성화를 위한 넓은 길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에서 폭넓은 관찰과 부단한 습작은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된다.

폭넓은 관찰과 부단한 습작이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예술적 환상의 넓은 마당을 마련해준다는데 있다. 관찰과 습작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예술적 환상의 한계는 무변광대해진다.

폭넓은 관찰과 부단한 습작이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고상한 사상미학적 리상을 세워준다는데 있다. 관찰자료와 그 축적과정은 계급적 성격을 띤 시대와 현실, 생활과 인간에 대한 사상적 립장과 미학적 견해에 의하여 분석평가하는 로정으로 된다.

다음으로 폭넓은 관찰과 부단한 습작이 풍부한 예술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종합훈련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언어의 개성화를 위한 길을 열어준다는데 있다. 관찰과 습작 과정에 어휘군이 늘어나며 표현능력이 증대된다. 그에 따라 언어형상에 대한 개성화의 경험이 한층두층 쌓아지게 된다.

둘째로, 작가는 창작실천을 통하여 자기의 개성적인 문체를 부단히 련마하고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작가는 성장한다. 그것을 문체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언어형상의 개성화에서 일어나는 발전이며 다른편으로는 언어발전의 시대적 추세에 따르는 발전이다.

한 작가의 문체발전과정을 보면 이미 가지고있던것중에 버리는것이 있는가 하면 계속 견지해나가는것도 있다. 버리지 않고 계속 견지해나가는것은 그 작가에게서 하나의 경향성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전에는 없던것이 새롭게 보충되는것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보충된것중에서도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있다. 이것 역시 그 작가에게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경향성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10년 혹은 20년을 사이 두고 창작초기의 대표작과 창작성숙기의 대표작 그리고 창작말기의 대표작을 대비해보면 그 작가의 문체적 특성의 발전정도를 도출해낼수 있다.

그것을 한 작가의 창작과정을 놓고 더듬어보았다.

소설가 김병훈의 문체의 특징은 깨끗하고 시원하며 아담하고 활발한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특징은 먼저 작가의 말투에서 나타나고 있다. 말투란 그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를 종합적으로 특징짓는 말이다.

그 작가의 말투는 서정적인 말투이다.

작가의 창작초기 대표작들인 《길동무들》, 《해주-하성서 온 편지》들이 다 1인칭소설이라는 데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나》라는 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앞세우는것은 서정적 사유방식이다. 이러한 서정적 사유방식이 그의 서정적인 말투를 낳게 하였다.

이 작가에게 있어서 서정적인 말투는 3인칭소설을 쓴 경우에도 견지되고있으며 그리고 창작 전 과정에 계속 견지되고있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감정과 느낌을 놓치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있으며 그 인물에 대한 작가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즐겨 표현하는데서 나타나고있다.

이 작가의 말투가 서정적인 말투라는것을 표현수법리용측면에서도 실증할수 있다.

앞에서 이미 분석한바와 같이 표현수법측면에서 보면 작가의 초기작품에는 주로 직접비유와 성구속담리용수법에 국한되어있었다. 그러나 창작성숙기의 작품들에는 표현수법리용이 매우 다양해지고 왕성해졌다.

물론 표현수법리용이 다양해지고 왕성해졌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서정적 말투를 설명할수 없다. 문체는 표현수법들 가운데서도 운물적 효과를 내는 대조법, 렬거법, 점층법, 대구법, 부정법 등을 활발히 그리고 즐겨 리용하고있는데 있다.

이 표현수법들은 큰 범주에서 볼 때 반복의 원리와 통하고있다. 시문체에서 운물이란 동일단위성을 가진 성음의 규칙적인 반복에서 생겨나는것으로서 그의 본질적인 속성은 반복이다. 소설문체에 리용된 대조법, 렬거법, 점층법, 대구법, 부정법 등은 내용을 강조하고 생동하게 하는데 이바지할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반복률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이 작가의 말투가 서정적인 말투라는것을 문장조직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으로도 실증할수 있다.

이 작가의 작품들에는 이음로 《더니》로 짜진 문장이 눈에 띄일정도로 많다. 이것은 창작초기에

나타난것이지만 창작성숙기에까지 계속 견지되고 있는것이다. 원인을 나타내는 이음로 《더니》는 이미 본 사실이 근거로 되어있다는것을 나타낸다.

이 작가는 다른 한편 억양의 톨동을 조성하는 수단으로도 리용하고있다.

즉 《더니》를 마루로 삼고 오르고내리며 내리고오르며 톨동을 나타내고있다. 뿐만아니라 《더니》를 마루로 삼고 앞의 단위와 뒤의 단위 길이가 같게 혹은 앞의 단위가 짧고 뒤의 단위가 길게, 반대로 앞의 단위가 길고 뒤의 단위가 짧게... 다양하게 엮바꾸면서 톨동을 나타내고있다.

이외에도 한 문장안에 같은 성분의 반복이 많고 다른 소설에 비해서 수사학적 물음과 감탄이 많은 것도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있다.

이상의 모든 사실은 이 소설가의 문장이 시인적인 호흡톨과 숨결에 따르는 독특한 억양의 문맥으로 특징지어진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작가들은 누구나 자기의 뚜렷한 개성적인 문체를 가지고 그것을 높은 경지에서 완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관찰자료》와 《어휘수첩》, 《명문장집》의 축적과 그 리용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생활의 의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는데로 지향시켜야 한다.

그것은 우선 어느 한때의 일시적인 축적과 리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창작년조에 따라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것으로 발전시키면서 일생동안 하루도 쉬임없이 축적하고 리용해야 한다.

여기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란 말은 귀로 듣는것보다 눈으로 보는것이 낫고 눈으로 보는것보다 몸으로 체험하는것이 더 낫다는 요구를 의미하며 풍부한 지식의 축적으로부터 높은 예술적 가치의 축적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의미한다.

작가는 집필로 하루의 흔적을 남기든 《관찰자료》에 하루의 흔적을 남기든 《어휘수첩》에 하루의 흔적을 남기든 《명문장집》에 하루의 흔적을 남기든 정신을 버린 흔적을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창작에서 부진을 면할수 없다.

(다음호에 계속)

딸애의 운명을 안고

김승길

러객기 《보잉》의 은빛날개는 망망한 대공의 변덕많은 기류속을 누비고있었다. 비행기의 날개밑으로 흐르는 숨뭉치같은 구름들은 지평선에서 비치는 해살을 받아 불붙는것 같은 장관이다.

비행기의 둥근 창구를 내다보는 민석은 일본땅이 가까와올수록 이제 반겨맞을 딸애에 대한 생각으로 기뻐다. 머리우의 공기조절기를 돌리니 차거운 바람이 내뿜기며 와이샤쓰속으로 스며들어 온몸을 시원하게 감돌았다.

민석은 일본의 X X 도시에서 방직회사들을 경영하고있었는데 총련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단》계도 아닌 조선인실업가였다. 그는 지금 미국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인기업가와와 섬유원료계약을 성공시킴으로써 불경기에 이른 기업을 취세워볼 심산과 함께 보다는 서방음악계에서 피아노의 왕자라고 떠드는 미스켈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떠났던길이었다.

이번 러행에서 원료계약문제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거액의 돈으로 놓아진 다리를 건너 그 유명한 피아노수와의 상면은 성공시켰다.

민석은 앞으로 녀류피아노수로 키울 딸애를 미스켈에게 소개하고 그의 수업을 받게 하자는것이였다. 사실 기껏 12살밖에 안되는 딸애가 피아노왕자를 만나 간단한 수업이라도 받게 된다면 그자체가 미구에 차례질 딸애의 성공의 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것을 타산한 그였다. 민석은 상품의 질보다 포장에 신경을 쓰고 내용보다 빛갈, 광채로운 선전에 더 머리를 써야 하는 자본주의철리를 잘 알고있었다. 민석은 자기 딸을 만나줄것을 약속한 미스켈의 호주머니에 두툼한 화폐몽치를 선금으로 《투자》하였다.

어느덧 비행기의 선체가 착륙점을 향해 서서히 기울어지고있었다. 점차 민석이의 육중한 체구가 허리를 감고있는 안전띠에 팽팽이 실리웠다. 껌을 씹던 입안이 메스메스해지더니 기압의 심한 차이였던지 비행사의 서툰 조종이었던지 하강하는 비행기가 고공에서 몇십미터씩 수직으로 떨어질 때 온몸은 천길나락으로 잣아드는듯하였다. 이어 비행기는 바퀴가 땅에 닿는지 쿵 하더니 썩-하고 수평으로 내달리고있었다.

《에이 살았군.》

옆의 스물안팎의 젊은이가 긴숨을 후-하고 내쉬며 하는 말이였다. 뜻하지 않은 추락이나 공중폭

발 사고로 (하늘중천 그 어디에 시신을 뿌릴런지) 하고 생각하는것은 비행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늘 습관된 생각이다. 항공 젊은이의 저 나이때는 위험한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모험심도 크지만 구만리같은 앞길을 놓고 삶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큰 법이다. 민석의 마음도 다들리 없었다. 다만 본능적인 삶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딸애의 운명을 책임진 아버지의 의무감으로부터 오는 생에 대한 애착이였다.

민석이가 비행장을 나서자 딸애가 나와있었다.

...

려장을 풀고 한잠 폭 자고난 민석은 딸애의 방으로 들어갔다. 식모와 함께 아버지가 새로 사다준 피아노를 치는 원송이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정신이 팔렸던 수란이가 아버지의 품에 달려와 안겼다. 식모는 일어나 인사하고 방을 나오려 하였다.

《그동안 우리 애가 어떻게습니까?》

민석은 식모에게 물었다.

수란은 손끝으로 식모의 치마주름을 가만히 당겼다. 아버지에게 잘 말씀드려달라는것이였다.

《네... 주에 한번씩 다계오교수님이 오셔서... 사장님이 안계시는 사이에 피아노 재간이 펍... 어제 두 교수선생님이 오셨었습니다.》

민석은 기뻐다.

《그동안 펍 늘었던말이지요? 그래 좀 불가. 어디 한곡조 쳐봐라.》

식모는 방에서 조용히 나갔다.

민석은 소파의 등받이에 몸을 맡기고 두눈을 감았다. 딸애는 물나리같은 손끝으로 쏘나타의 맑고 류창한 선율을 가볍게 쳐나갔다.

민석은 딸애의 음악을 위해 모든것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피아노수업이 진행되는 이 방을 가장 품위있는 연주실로, 서재로 꾸리는데 술한 돈을 들이밀었다. 채광이 잘 드는 통창결에는 값비싼 화초가 특유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기원전 3천년경부터 인간의 애용으로, 화목한 평화의 상징으로 일러온 동부지중해 변두리에 무성한 그 올리브의 아름다운 잎새들이 오늘은 이 창가에서 금빛해살을 받아 유표한 빛갈을 반사시키고있었다. 또한 그결에는 패랭이꽃과에 속하는 카네이션꽃도 흰색갈과 붉은색갈을 띠고 피여있었다. 책장에는 딸애의 음악수업을 위한 책들이 가득 꽂혀있었다. 민석은 모짜르트, 슈베르트, 바하, 베토벤, 차이콥스키, 쇼팽 등 고전음

악가들의 작품으로부터 현대의 유명한 음악저서들을 닦치는대로 사들여 서재를 채웠던 것이다.

그는 가끔 동료들에게 딸자랑을 즐겼다. 딸에 대한 지나친 선전에 동료들은 하품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매번 쿵쿵 장단을 쳐주었다.

《수재입니다.》

《만중의 박수를 독점할 앞날의 무대는 수란이의 것입니다.》

이쯤되면 예견치 않던 푸짐한 식탁이 펼쳐졌다. 식탁에는 거품이 진하게 이는 샴팡, 얼음을 탄 도수 높은 위스키, 코카콜라, 코코아향미가 도는 초코렛, 우유를 충분히 넣은 비스케트, 과자탑들로 채워졌다.

해폰것 같으면서도 평생원인 민석이가 나중엔 것처럼 아껴 건사해둔 프랑스의 해묵은 포도주의 단긴 마개도 열었다.

《아, 이걸 누굴 위해 마실가요. 그렇지요. 수란이의 천재적인 재능을 위해 마십니다.》

친지들의 손에서 샴팡은 축포처럼 터졌다. 샴팡의 축포같은 폭발을 두고 딸애의 장래를 축복하는 동료들의 심정이라고 폭주가들이 덧붙여 말할 때면 민석이의 기쁨은 그지없었다.

...

식모의 말대로 민석이가 없던 한달사이에 딸애의 연주기술은 달라진것 같기도 하였다.

이윽고 쏘나타 뒤곡을 가볍게 쳐버린 수란은 아버지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버지, 어때요?》

《음, 많이 늘었구나, 아주 훌륭해!》

수란은 피아노의 촌촌한 건반들을 드르륵 기분 좋게 훑고나서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핀 하얀 카네이션꽃 한송이를 꺾어들었다.

《아버지, 나두 인젠 엄마만큼 치지? 엄마가 있으면 한번 멋있게 거뤄보구실네.》

제멋에 들떠 으쓱해진 수란은 카네이션꽃을 아버지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민석은 꽃을 열결에 받아안고 잠시 어쩔줄을 몰랐다. 민석이의 눈가엔 눈물이 피잉-하고 고이였다.

수란이의 어머니는 어느 개인이 경영하는 극장의 피아노수였다. 민석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애호가였으며 향유자였다. 그의 이런 본능적인 애착은 피아노수를 안해로 삼게 하였다.

수란이의 어머니는 미모의 녀성이었다. 민석은 안해를 무척 사랑하였다. 안해의 음악은 목가적인 슈베트의 음악과 폭풍같은 베토벤의 음악, 이슬들의 속삭임같은 쇼팽의 음악들을 자유분방하게 연주하는 하얀 손끝이었고 음악에 심취하여 건반우에 뜨겁게 떨어지는 구슬같은 눈물이었으며 음악에 매

혹되어 아득한 초원에 들꽃같이 피어웃는 그의 깨끗한 미소, 뿔뿔은 사슴이 칼끝같은 벼랑가에 올라 창공을 향해 서글피 우는 그 저물녘의 별같은 눈동자였다. 흔히 아름다운 부인의 용모는 사내의 눈을 즐겁게 하고 선량한 처의 덕행은 사내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한다. 사실 민석은 자기 안해의 미덕이 이 두 장점에 향수까지 친것으로 하여 민석을 만족케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안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던니 딸애가 여덟살 때 이 세상을 떠났다. 수란이의 외할머니로부터 유전받은 원자병의 세례였다.

사랑을 잃은 민석은 딸애를 안고 슬피울었다. 그후 민석은 딸애에게 안해를 향해 퍼붓던 그 사랑까지 다 안겨주었다. 그는 재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딸애의 곁에 계모를 데려옴으로써 딸애에게 가해질 그 박해의 근본을 없애자는 것이었고 딸애에게 넘겨줄 재산이 계모의 손에 축나는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

민석은 카네이션꽃을 보며 자기의 조그마한 성공을 어머니에게 자랑하고싶어하는 딸애의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고싶었다.

《수란아, 이 꽃을 피아노앞에 놓고 엄마 앞이다 하고 다시 멋있게 한곡 더 쳐보자꾸나.》

그는 보면대우에 꽃을 놓아주었다.

수란은 어느 고전의 《팡상곡》을 쳤다.

민석은 음악을 들으면서 6년전 어느 남방나라의 해변가를 추억하였다.

그해 여름 민석은 황마와 목화 계약차로 휴식도 할겸 안해와 딸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었다. 그때 그 나라의 접대원, 안내원들은 수란이가 알아듣지 못할 말들을 통역을 거쳐 아버지, 어머니와 주고받곤 하였다.

이때 수란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말이 다르나?》

민석은 대답해주었다.

《응, 여긴 다른 나라여서 그렇단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말이 다르단다.》

딸은 머리를 까닥거렸다.

이튿날 폭양속에서 해수욕을 하고난 민석이의 가족은 시원한 레몬수를 마시며 공작새꼬리같은 잎사귀들이 그늘을 드리운 나무밑에 앉아있었다. 이때 황금빛 피꼴새 한마리가 나무가지에 날아와 앉아 울었다. 수란이는 피꼴새에 홀린듯 한동안 두눈을 깜박이며 바라보더니 갑자기 엉뚱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아빠, 나라마다 사람들의 말은 다 다른데 피콜새는 다른 나라에 있어도 다 같은 말을 해요. 우리 집 침대초롱속에 있는 피콜새도 쪼리쪼리 뽕뽕 피콜피콜 피꼬르르... 저 나무에 앉은 피콜새도 쪼리쪼리 뽕뽕 피콜피콜 피꼬르르...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노랫 불러요.》

무심결에 딸애의 말을 듣던 민석은 깜짝 놀랐다. 처음은 놀라고 다음은 딸애를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다.

《아니, 이 애가?!...》

딸애가 얼마나 신통한 발견을 했는가? 대체로 언어의 구별로 민족을 규정하는데 딸애의 말대로 하면 이 세상의 피콜새들은 모두가 한 《민족》밖에 없다는 말이였다.

민석은 가슴이 터질듯 흥분하였다. 그는 안해에게 소리쳤다.

《여보, 들었지? 수란이가 방금 한 말을!... 이 애는 수재요. 수재! 글썄 얼마나 기막힌 발견을 했소. 또 얼마나 정확한 리듬과 예민한 음감을 가지고 있소, 피콜새가 것처럼 분주하게 울조리는 류창한 멜로디를 하나도 빠짐없이 외우는 우리 수란이의 두뇌가 얼마나 놀라운가말이요. 여보, 우리 수란이를 당신처럼 피아노를 시킵시다. 이 애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음악가가 될게요.》

확실히 딸애의 영특한 지능과 예민한 음악의 촉감은 앞날 재능있는 음악가로의 천품을 엿보게 하였다.

민석은 작열하는 태양을 향해 어린 딸애를 버쩍 들어올렸다.

《태양이여! 우리 수란이의 밝은 앞날을 위해 너 빛발치라! 축복하라!》

그리고 그는 딸애에게 이야기하였다.

《수란아, 너는 세계에서 가장 황홀한 피콜새가 될게다.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 세상의 그 누구도 들을수 있는 하나의 언어인 아름다운 멜로디로 세계를 놀래우자. 너는 이 아버지의 황금보호를 받는 피콜새가 될게다!》

이때 이들의 거동을 한동안 곁에서 지켜보고있던 화초원의 한 늙은 원예사가 붉은색과 흰색갈의 카네이션꽃 두송이를 들고와 수란이에게 주며 통역을 거쳐 말하는것이였다.

《애야, 너의 장래를 축복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꽃을 드려라.》라고 하면서 그는 꽃의 유래를 간단히 설명해주었다. 이 꽃은 유럽에서 자식들이 어머니의 날(5월의 두번째 일요일)에 어머니에게 드리는 꽃이라는것이였다. 붉은꽃은 산사람에게 주고 흰꽃은 죽은 사람에게 준다는것이였다.

민석은 그후 돌아간 엄마를 잊지 말고 엄마처럼 훌륭한 피아노수가 되라고 이 화초를 사다가 딸애의 서재를 장식했던것이다.

남방에서 돌아온 안해는 정력을 다해 딸애에게 피아노를 배워주었다. 령리한 딸애는 빨리 음계를 익혀나갔다. 그런데 안해가 원자병의 세례를 당했으니 민석이에게 얼마나 충격이 컸으랴. 그후 민석은 엄마의 손때묻은 딸애를 성공시키기 위해 유명한 피아노교사를 물색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자기 자식의 장래를 위한 부모들의 경쟁심은 교사를 교섭하는데 드는 사례금과 예약금을 하늘끝을 모르고 오르게 하였다. 그러나 민석은 끝내 만사람의 혀를 털만한 예약금을 주기로 하고 이름있는 음악대학의 교수 다게오를 교섭하였던것이다. 그는 딸애의 높은 연주기교는 가정교사의 노력의 결과이며 딸의 성공에 바치는 아버지의 가장 큰 뒤바라지는 아낌없이 들이미는 황금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 안해와 딸의 음악에 심취되면서 한생을 모은 재산의 목적이 다만 자기 권세의 향유와 배부른 세월의 포만으로 끝난다면 아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인간은 인생의 속물이라고 생각하였다.

...

수란은 연주를 마치고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훌륭하구나. 네 엄마가 있었다라면 너의 연주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니...!》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인젠 저녁식사나 할가...》

민석은 딸애와 함께 식사가 준비된 방으로 갔다. 식탁에는 식모가 주인을 위해 마련한 특식이 놓여 있었다. 식모는 특식들속에 주인이 좋아하는 니기리스시를 빼놓지 않고 만들어놓았다. 방금 사다잡은 도미의 발그레한 고기토막을 반달칼로 얇게 저며낸후 넓고 큰 접시위에 만만한 살편들을 개개로 포개놓고 그우에 약간 식을사한 밥덩이를 꼭꼭 주물러 한접의 도미의 살편들을 가볍게 싸서 만든 니기리스시는 첫눈에 식욕을 돋구었다.

민석이가 식사를 하고있을 때 창문으로 입풍금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식모의 딸 은옥이가 부는 입풍금소리였다. 고르롭진 않아도 무진애를 쓰며 건반을 눌러가는 입풍금소리를 듣는 민석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기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딸애와 함께 극장에 갔다 돌아온 저녁이였다. 자기 방에 들어선 민석은 안뜰로 향한 창문을 활 열고 답답한 목단추를 제꼈다. 이때 피아노연주실에서 갑자기 딸애의 짜지는듯한 목소리가 났다. 민석은 딸애의 방으로 급히 갔다. 그런데 방 한구석에

은옥이가 머리를 푹 숙이고 쿵쾅거리고있었다. 그 옆에는 식모가 서있었다.

수란은 식모에게 울며 종알거렸다.

《나 몰라요씨, 은옥이가 내 피아노두 치구 또 이것 봐요. 장난감피아노를 이렇게 다 망가뜨린걸.》

민석은 딸애를 가볍게 책망하였다.

《수란아, 네 동생과 같은 은옥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 좀 쳤는데 그러면 되겠니?... 그까짓 장난감은 내 이번에 미국에 다녀올 때 더 멋있는걸 사다 주마. 미국엔 원숭이가 혼자 피아노를 재미있게 치는 장난감이 있다.》

민석은 금이야 옥이야 하는 딸애의 기분을 잡쳐 놓은 식모의 딸이 은근히 패심하였지만 하찮은 식모앞에서 딸의 앙탈과 맞장구를 친다는것은 체모가 꺾이는것 같아 내속은 깊이 묻어둔채 입을 열었다.

《참, 수란아 너 입풍금 어디 있지?》

《다 낡은것...》

《왜 좀 손질하면 쓸수 있겠는데.》

민석은 딸애에게 입풍금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은옥이에게 주었다.

《됐다. 이걸 불면서 놀아라. 괜히 수란이가 싫다는걸 다치지 말구...》

얼결에 입풍금을 받아안은 은옥은 울퉁한 눈으로 수란이를 쳐다보았다. 정말 수란이가 주겠는가 하는 눈길이었다.

수란은 악의없이 뿌죽한 입을 열었다.

《가져...》

은옥은 그제사 발썩 웃으며 입풍금을 꼭 안았다. 식모도 기뻐하였다. ...

식사를 끝낸 민석은 입가심을 하며 창문걸로로 다가가었다.

불빛이 호박꽃처럼 누런 식모의 방에서 입풍금 소리는 여전히 쉬임없이 흘러나오고있었다. ...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다. 가정교사 다께오를 오래간만에 만난 민석은 그에게 미국여행에서 있었던 경제관계를 간단히 알려주었다. 그러나 미스켈과의 상면관계는 일체 꺼내지 않았다. 그는 교수에게 선물이 되겠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인디안의 얼굴이 묘하게 새겨진 물주리 하나를 선사하였다. 그리고 딸애의 수업에 참석하였다.

다께오는 수란이에게 먼저 연습곡을 몇번 쳐서 손을 풀게 하고는 전번주에 과제를 주었던 피아노곡 《하마치도리》(바다가의 도요새)를 연주하게 하였다. 이 곡은 민석이기도 애곡하고있었다. 민석은 바다가에서 어미를 잃은 애기도요새의 애처롭고도 서글픈 모습을 섬세하고도 정서적으로 울릴 딸애의 연주를 기다리며 조용히 라이터불을 켰다.

딸애는 연주를 시작하였다.

딸애의 연주를 보는 민석은 두눈이 콧끝해졌다. 교수도 미간을 좁혔다. 수란이가 애기도요새의 눈

물어린 정상을 구슬프게 형상할 대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걸뭇을 부리며 온몸을 흔들기 때문이었다.

《가만.》

교수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연주를 중지시켰다.

수란은 교수를 돌아보았다. 왜 중지시키는가 하는 눈길이었다.

《수란학생, 박자와 동작들이 왜 그렇습니까? 음악이 요구하는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며칠전 수란은 교수가 내준 이 과제를 혼련하다가 휴식참에 텔레비존을 틀어놓은적이 있었다. 마침 그때 텔레비존화면에서는 요즘 인기있는 피아노수가 카페에서 이 음악을 아주 광란적으로 연주하고있었다. 그 카페에서는 처음 정서적이며 애상적인 감정으로 이 민요를 연주했었다. 그런데 술에 만취된 손님들이 엇갈리는 불빛아래에서 한바탕 춤판을 벌려야 하겠는데 자기들의 욕망에 충족되지 않는 음악을 놓고 아우성을 쳤던것이다.

《여보, 피아노수 답답하오. 거 쿵쾅, 쿵쾅... 탕고, 탕고...디스코, 디스코장단이 있지 않소...》

손님들의 뜻하지 않은 요구는 피아노수의 자존심을 심히 건드렸다. 결이 난 피아노수는 냅다 건반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려버렸다. 너무도 잘 알려진 민요가 탁없이 변곡되는 희귀한 장면을 하루저녁의 인기있는 뉴스로 포착한 악사바른 텔레비존촬영가가 이 광경에 렌즈를 들이댔는데 수란은 그 장면을 화면을 통해 보았던것이다.

그는 오늘 이름있는 피아노수의 연주법을 그대로 습득하여 교수앞에 연주하면 과제를 아주 훌륭히 수행했다고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뜻밖에 지적을 받았다.

수란은 속눈썹이 긴 두눈을 차갑게 내려깔았다.

《선생님, 며칠전 어느 이름있는 피아노수도 이 곡을 이렇게 연주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란이의 대답을 듣는 순간 교수는 아-하고 입을 열었다.

민석이도 놀랐다. 그는 딸애의 대답에 대한 교수의 발언을 초초히 기다렸다. 그러나 교수는 아무말도 없었다. 그저 머리만 몇번 끄덕거리 보이더니 가타부타없이 새 과제를 수업시켜나갔다.

민석은 가슴속에 그 무엇인가 울컥 치밀어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아니 교수가 왜 함구무언인가? 어처구니없는 딸애의 연주를 왜 바로잡아주지 않는가? 그럼 세계적 무대에 세울 수란이를 그런 저속하기 그지없는 카페 음악가들의 그 잡스러운 연주나 모방하란말인가?...)

어이가 없었다. 가슴속에 무엇이랴 말 못할 의분을 묵새기며 꼭 내려감는 민석이의 눈확에는 검은 그들이 질게 드리워졌다.

민석은 다계오를 이전엔 잘 모르고있었다. 범람 할듯 밀려드는 퇴폐음악들에 항거하고 백지와 같은 순결한 소녀의 뇌리에 음악의 재능을 청결하게 심어준다는것이 일본과 같은 번거로운 사회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것을 잘 아는 다계오는 이미 음악의 본도에서 탈선하여 그저 두툼한 수업비가 들어있는 봉투에만 신경을 쓰고있었다.

민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음악수업을 끝내고 돌아가는 다계오를 바라우며 미닫이문을 열었다.

이때 문밖마루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은옥이가 화닥닥 놀라 일어섰다. 그리고 머리를 숙인채 뿌르르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저 애가 오늘두...》

다계오는 민석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참 불행한 운명이지요. 저 애의 선친이 전생에 무슨 참회 못할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늘 도적수업을 받아야 하는지...》

도적수업이라는 단어에 강한 력점을 찍는 다계오의 말을 듣고있는 민석이의 시야앞에서 얼핏 그림자 하나가 정자나무뒤로 감춰졌다. 찬찬히 살피니 식모가 두손에 얼굴을 묻고 나무뒤에서 흐느끼고있었다. 아마 부엌일을 끝내고 나오다가 다계오의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민석은 가슴이 섬적했다. 마치 못볼것을 본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는 그동안 문밖에 앉아 가정교사의 수업을 몰래 받으며 안타까이 음악을 귀로 익혀왔을 은옥의 애처로운 모습이 가냘픈 초볼처럼 나타났다가 꺼져버렸다.

문지방 하나를 사이두고 부유와 가난을 제각기 안고 음악이라는 하나의 지향을 향해 발뼘발뼘 돌아가는 두 어린 운명을 목격하며 민석은 은옥의 운명은 참으로 가련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일찌기로동판에서 남편을 잃은후 딸 하나를 데리고 이 집 식모로 들어와 때식을 끓여주며 살아가는 처지에 있는 녀인이었다. 돈없이는 그 성공을 기약할수 없는 음악세계에 발을 들여놓고싶어하는 딸을 눈물속에 바라보는 식모의 심정이 헤아려졌다. 그러나 별수가 있는가! ...

...

나날이 흘렀다.

수란은 어린나이에 지나칠 정도로 몸치장에 신경을 썼다.

《아버지, 목선을 길게 뽑은 원피스를 사줘요.》

《향수는 메히꼬향수가 더 좋대요.》

《그리구 구두는 뒤굽이 높을수록 좋아요.》

물론 민석은 딸애의 자질구레한 소청도 다 들어주었다. 그러나 음악을 놓고 이런 지청구들이면 얼마나 좋으랴. 그런데 수란은 어디에 자주 다니는지 피아노뚜껑이 닫혀있는 날이 더 많았다. 딸애는 깊은 밤 텔레비존에 흔히 상영되는 어지러운 장면들

을 보느라고 소리를 낮추었으며 잡탕한 멜로디가 울리는 작은 보청기를 자주 귀속에 밀어넣곤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식모가 니이가다에 있는 몇촌오 빠벌되는 친척한테서 소식이 왔는데 벌이가 괜찮으니 함께 살자고 오란다고 하면서 집을 나갈것을 제기해왔다.

식모의 탈가-자기 집 대문을 나가는 은옥이네를 바라보며 민석은 황금의 가치를 더욱 통절히 절감하였다.

도적수업, 정자나무뒤에서 흐느끼던 식모... 모두 돈없는 수난자들의 불행한 모습이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부럼없는 수란이의 음악수업도 시원치는 않았다.

민석은 요즘 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수록 다계오교수가 더욱 패씹하였다. 세계적인 피아노수로 키우려는 자기의 커다란 열망과는 달리 카페음악의 유치한 연주를 무방하게 허용하는 교사의 요전날 수업을 생각할수록 다계오에 대한 환멸이 더 느껴졌다. 그런데다 근간에 와서 가정교사는 처음같이 딸애의 수업에 정력을 들이는것 같지 않았다. 딸의 성공은 오로지 가정교사의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는것이다. (그런데 다계오는?...) 가슴속을 비트는 고뇌에 번민하던 민석은 갑자기 탁자를 탕 치고 일어섰다. 그의 복잡한 뇌리에 딸애를 위해 들이밀어야 할 황금이 아직 부족했음을 재인식함과 함께 뉴욕의 검은탑-마천루가 구세주처럼 장엄하게 일어섰던것이었다.

(그렇지. 황금이면 다 되는게지... 수란이를 미국으로 보내자. 내 이미 약속했던 피아노의 화신 미스켈에게로!)

그는 답답한 가슴이 확 열리는것 같았다.

곰보딱지같은 바람벽의 담쟁이넝쿨을 스쳐비치는 저녁노을빛은 통창을 거쳐 피아노연주실에 두툼히 깐 융단위의 돛우보이는 고전 무늬를 더욱 진한 붉은 색깔로 채색하고있었다.

민석은 수란이의 피아노연주회를 마련하였다.

근 3년에 걸쳐 미스켈에게 수업받고 돌아온 딸애를 본때있게 자랑하고싶었던것이다.

이채롭게 새로 꾸러진 연주실에는 이름있는 뮤지들, 음악가들, 실업계의 인사들, 금융투자의 리익을 타산하며 거래하는 갑부친지들, 신문과 잡지의 기자들로 차있었다.

민석은 조금이라도 딸애의 혜성같은 음악계의 출마를 선전할만한 인사들은 직접 찾아다니면서 초대하였다. 특히 그는 연주회끝에 열리게 될 만찬회에 많은 돈을 들이밀었다.

연주회를 앞두고 반나절이나 거울앞에 앉아 몸치장에 여념이 없던 수란이가 아버지앞에 나타났다.

《자, 어때요, 아버지?》

갑자기 앞에 나타난 딸애를 본 민석은 뺨-해졌다. 회색같이 하얗게 바른 얼굴, 퍼렇게 희을 그린 두눈, 마구 산발해버린 머리카락, 온 가슴이 드러날 듯이 패여진 적동색웃옷, 개미허리같이 잘썩이 줄라맨 엑스반도에 까마귀깃같은 치마...

본래 것처럼 아름답고 감쪽하고 귀엽던 딸애의 모습은 어데 갔는지 사라지고 해피망치한 광대가 민석이 앞에 서서 입을 벌리고 웃고있는것이였다.

민석은 울상이 되어 부르짖었다.

《아니, 이게 무슨 몰골이냐? 도깨비같이...》

《도깨비라구요? 아버지진 주세에 떨어졌어요.》

딸애는 코웃음을 치며 그냥 종알거렸다.

《참, 오늘 나의 연주회끝에 아버지진 술한 돈을 벌레지요?》

수란은 녹신녹신 손을 주물러가며 말을 이었다.

《언제인가 미스켈선생님께서 저와 함께 트럼프로 점을 쳐보시며 앞으로 아버지는 저의 음악적 명성을 리용하여 더 많은 돈을 벌게라고 하셨어요. 새로운 연주광고로도 된다면서...》

《뭐라구?!》

민석은 놀랐다. 아니 격분할 지경이였다.

(저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방종스러운?... 철없고 순진한줄 알았던 애가?... 그럼 내가 돈을 벌자구 너를?...)

민석은 서글펐다. 왜서인지 가을날의 작은 독뱀을 무심히 밟았을 때처럼 오싹해지는 예감이였다. 《허...》 그는 허거픈 웃음을 웃고말았다. 연주회를 앞두고 딸애와 가타부타할수가 없었다.

...

수란이의 연주회가 시작되였다. 먼저 민석의 가까운 친구인 가족회사 사장 풀귀알수염의 간단한 사회가 있었다. 이어 방안가득 터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수란은 피아노앞에 나와 오토기처럼 앉았다. 그는 하얀 수갑을 벗어 곁에 놓인 양피의자우에 던지고는 빨갛게 물을 올린 손끝을 건반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잠시 두눈으로 먹거울같이 알른거리는 피아노의 까만벽을 구멍이 날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조그만 손가락들을 한껏 벌려 천천히 건반들을 짚어갔다. 그의 바른손끝은 초야에 홀로 선 교회당의 처량한 종소리로 이름모를 어느한 운명의 경각을 알리는듯 건반의 라음을 지루하도록 반복하였다. 분명 라음이 건반에서 울리기 시작한것은 방금 마당가의 노란 유자꽃들에 외등불빛이 떨어지던 그 무렵부터였다. 그런데 라음은 끝을 모르고 울린다. 외등불빛에는 먼지같은 하루살이때, 무질서한 부나비들이 찾아들어 죽일내기로 불빛을 희롱하고있었다. 그 무리들의 다름질에서 밀려난 몇마리의 곤충들이 연주실의 불빛을 찾아 향방을 바꾸어 성급히 날아들다가 딱-하고 유리창에 부딪쳐 떨어졌다.

이윽고 가슴이 답답하도록 지루하던 라음이 똑 끊겼다.

딸애는 라음의 건반에서 떨어진 손끝으로 무표정한 안면과 도드라진 가슴에 말없이 십자가를 그었다. 그리고 비애의 장송곡을 무겁고 침침한 음색으로 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딸애의 연주를 지켜보는 민석이의 눈앞에 황막한 산야가 펼쳐지였다. 흙혈말거미들이 열기설기 그물을 친 십자가의 무덤들이 솟아올랐다. 캄캄한 밤의 공간을 푸덕이며 날으던 해진 우산같은 박쥐떼들이 푸른 린광을 발산하는 묘지두리에 꽂히였다. 절망과 죽음의 나락으로 먼저 가는 고인과 영별하는 상여군들의 발걸음이 쿵쿵 울리였다. 참으로 끈질긴 눈물의 비곡이 딸애의 손끝에서 끊임없이 흘러갔다.

민석은 시청중을 결눈질해보았다. 못객들의 표정은 천태만상이였다. 풀귀알수염은 수란이의 음악이 마치 편과 많은 경제제에 부딪치며 걸어온 수고 많은 자기를 위로하여주는 자장가처럼 느껴졌는지 요람속같은 쏘파에 깊숙이 묻힌채 세상모르고 잠을 자고있었다. 통창결에서 딸가닥-무엇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못시선들이 그쪽으로 쏠리였다. 바짝 마른 말라꽂이가 감박 줄다가 뺏는지 눈을 바빠 비비고나서 무엇인가 발치에서 부지런히 찾았다. 그가 한참만에 손에 집어든것이 노란테의 안경이였다. 그는 급히 호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안경알을 훑훑 불어가며 닦기 시작했다. 기억보다 기록에 습관된 격자직남방샤쓰를 걸친 기자는 조그만 수첩에 무엇을 쓰고있었다. 그러다가 먼 천정끝을 바지런히 기여가는 바퀴 한마리에 호기심 어린 시선을 쫓으며 주근깨가 앉은 코등을 새끼손가락끝으로 살금살금 꺾고있었다.

딸애의 연주에 가슴을 죄이며 귀를 세우던 민석은 자기 두리에 묵은 부처들처럼 앉아있는 못객들을 보며 기분이 언짢아졌다.

연주는 계속되였다.

민석의 시야에 속눈썹밑으로 동공을 바투 밀어올린 어떤 미친 소녀가 상여군들 앞으로 차츰 가까이 육박해오고있었다. 회열에 미친 소녀는 어깨를 들먹이며 악청의 웃음을 야지러지게 웃고있었다...

딸애의 연주를 지켜보는 민석이의 두눈은 별경게 피발이 섰다. 그의 눈은 공포속에 질려있었다.

수란은 갑자기 발작증이 일어난 광인처럼 피아노앞에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열손가락으로 촌촌한 건반들을 한꺼번에 짹-눌러버렸다. 피상한 잡음이 못객들의 온몸에 닭의 살이 돋게 하였다. 다음은 무엇이 성차지 않은지 불규칙적인 속도의 두주먹을 번갈아가며 건반을 냅다 두드렸다. 그리고 산발한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내리덮인 이마를 건반우에 마구 짓궂어나갔다.

피이한 수란이의 광증에 못객들의 눈은 둥그레졌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렸다.

《미쳤구만...》

《아깝소.》

《아니야. 저게 미국에서 유행되는거라우.》

《그래도 난 좋아보질 않누만...》

《쯔쯔...》

제가끔 쑥덕거리는 소리들이었다.

격자직난방샤쓰가 속알을 밀어넣은 원주필을 수첩갈피에 끼우고, 그것을 넣고 자크를 채워버린 갈색가방을 옆에 낀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하나둘 의자들이 덜컥거리기 시작하였다.

민석은 불돌같이 확 달아오른 머리를 두손으로 틀어잡고 두눈을 꼭 감았다. 가슴속에서 그 무엇이 줄지에 무너져내렸다. 너무도 엄청나게 믿어온 딸애에 대한 기대의 산악이 무섭게 허물어지는 심뇌였다.

《아!》

팅빈 연주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 민석은 너무도 몰랐다.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고독한 존재라는 실존주의철학의 음악적대변자이며 철저한 옹호자인 미스켈은 이미 한두차례 서방음악계에서 《명성》을 펼친것으로 하여 자기를 환상적인 인물로 만들어놓고 멜로디라는 음악의 화려한 거미줄속에 어리석은 동방의 실업가를 휘말아넣은다음 거액의 딸라를 뽑아내고있었다. 그리고 그는 수란이와 같은 음악학도들의 맑고 깨끗한 혈액속에 온갖 단말마적인 패륜패덕의 그 무서운 독소를 사정없이 주입해놓았던것이었다. ...

민석은 밤거리를 홀로 걸었다. 점포, 육고집, 술집... 제멋대로 번쩍이는 광고의 진한 불빛들, 부어라, 마셔라, 소리치며 애어린 매춘부를 찾아 돌아치는 비게덩이같은 사나이들의 만취한 탁성들로 메꿔지는 유흥의 거리... 도깨비의 행렬인듯 금속성의 잡음을 지르며 지나가는 온갖 벌레같은 차들, 빌건 지옥의 불가마 같은 화염에 휩싸인 크고작은 환각 건물들이 무덤속같이 비좁은 골목길에 민석을 세워놓고 유령의 성곽들처럼 굽어보고있었다.

민석은 공해의 질은 먼지가 무수한 못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지워버린 허공에 눈길을 던지며 가슴을 허뻗었다.

《아, 이 내몸의 생존에 일점혈육으로 남긴 어린 운명의 지령점은 어데 있느냐?》

민석은 지금 딸애의 번영과 장래를 위한 출로라면 오직 하나 믿어온 황금과 그것으로 하여 믿지 않던 그 모든 신앙앞에 머리숙여 기도를 드리우고싶었다. 딸애의 음악적 성공을 이룩하여준다면 서로 다른 종교의 이단자가 되어 벼락을 맞는다 해도 죄다 믿고싶었다. 그러나 너무도 파멸의 수렁텅으로 걸잡을수없이 빠져들어가는 딸애를 구원할 길은 막

막하였다. 민석은 온몸의 모든 세포가 조각조각 모래알처럼 산산이 흩어지는것 같았다. 아니 피가 죄다 몸밖으로 뿜어져나가버리고 온몸이 하나의 석고처럼 굳어지는것 같았다. 그는 길센의 나무가지를 으스러지게 쥐고 탁탁한 공기가 돌가루처럼 씹히는 밤하늘을 향해 울부짖고싶었다.

《아, 나는 불행한 아버지!!...》

...

어느덧 민석의 두눈가에 푸름푸름 새벽빛이 비껴왔다. 벌써 잠을 깬 참새무리들이 나무가지에 열매들같이 가득 붙어 제가끔 조그만 주둥이를 열어 짹짹들거렸다. 밤새껏 골목길을 장식하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삭막해지는 기억처럼 어둠의 질은 그림자가 새벽빛에 쫓기어 점점 질은 나무숲과 건물의 구석짐으로 밀려어갔다.

민석은 뻗뻗한 덤불을 손바닥으로 몇번 비비고 나서 우유를 배달하는 손수레가 딸랑거리며 지나가는 우편국 벽돌벽앞에 문득 걸음을 세웠다.

《음? ...》

그의 눈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일본방문에 대한 포스터에 가닿았다.

도교의 엔에취케이홀은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공연을 보러온 관객들로 인산인해였다.

민석은 경쾌한 음악들과 재치있는 무용기교, 아름다운 무대화복들을 보며 이런 아동예술이 과연 인류의 문화속에 존재하고있는가를 생각했다. 그러나 너무도 명백한 현실이었다. 공연은 자기의 황홀한 경지를 한걸의 막으로 감추었다 펼치었다 하면서 참으로 신기하게 흘러갔다.

소개자가 또 나왔다. 까만 머리우에 가볍게 올라앉은 꽃나비리본, 무지개빛 섹동옷을 곱게 입은 포동포동하게 생긴 아이였다. 앵두같은 입이 방긋 방긋 열릴 때마다 소개말이 은방울소리같이 또랑또랑 튕겨져나왔다.

《다음은 피아노독주를 위한 경음악입니다. <봄의 서곡>》 주목되는 연목이었다. 민석은 의자등받이에 기대였던 육중한 체구를 바짝 앞으로 세웠다.

무대가 밝아지었다. 나 어린 연주가들이 밝게 웃으며 앉아있었다. 피아노수와 목금수의 엇바뀌는 박자를 타고 부드러운 음악선율이 흐르기 시작하였다. 아지랑이 꿈을 퍼는 봄, 고드름끝의 락수가 구슬같은 봄, 깜찍한 아기새가 입을 떼는 봄의 음악이 펼쳐지고있었다.

열둠살쪼름 되는 나 어린 소녀피아노수는 무르익는 봄의 정서에 한껏 취해 건반을 질여가고있었다.

유연한 몸가짐, 탄력있는 톨동, 어딘가 천진스러우면서도 동심이 있고 소박하고 꾸밈없는 동작...

소녀의 봄선율은 초롱속에 갇힌 새, 그리도 구슬퍼 소리없는 울음을 울던 어린새가 반갑게 열린

하늘로 까마득히 날아올라 하늘과 땅을 온통 구슬 방울소리로 가득 채워놓는 화창한 봄의 서정이었다.

그 선율은 봄빛이 무수히 반짝이며 부서지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의 유리알같은 대리석기둥에 비스듬히 기대여 방금 배운 콩나물같은 악보들을 외우며 감박거리는 소녀의 맑은 눈동자, 웃음을 감고도는 유희터의 꽃물레를 타고 깔깔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동식물 채집통을 메고 오르던 등산길의 설참에 민들레의 하얀 락하산을 호호 불어 날리는 아이들의 달콤한 꿈의 멜로디였고 야영의 바다가 모래발을 부드럽게 덮으며 구울러오는 물결우에 발목을 묻고 수평선 한끝의 흰돛을 향해 소리치는 그 목소리들, 기슭에 핀 아주 작은 한뼉기의 꼬마꽃이 지구보다 엄청나게 큰 해님과 마주보고 웃으며 어리광부리는 속박없는 기쁨의 음악이었다.

사람들은 맑은 공기를 폐부로 호흡할 때 지나온 길에 호흡한 대기의 오염도를 질색하게 되는 법이다.

딸애의 피상망측한 연주속에 울리던 절망과 비애의 어지러운 음악과는 너무도 다른 삶의 약동과 환희에 찬 봄의 향취를 한껏 풍겨주는 소녀, 돌돌돌 시내물소리, 조잘대는 새소리에 귀를 강구어 가만히 들어보는듯 피아노건반 가까이에 다소곳이 대고 자근자근 건반을 짚어가고있었다...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터졌다. 여기저기서 야! 야! 어린 피아노수의 천재적인 재능에 찬탄들이 터져올랐다. 민석은 망원경을 두눈에 가져갔다.

(대체 어떤 애가 인기를 독점하고있는가!)...

망원경의 초점은 소녀의 안면으로 향해졌다. 순간 민석은 악!-하고 경악에 가까운 소리가 입밖으로 튀어나오는것을 가까스레 입속에 밀어넣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후드득 뛰는 가슴으로 민석은 급히 공연종목 소책자를 번지였다.

소녀피아노수-그는 틀림없이 은옥이었다. 식모의 딸이었다. 길고 가쁜한 속눈썹, 보조개웃음, 약간 들릴사한 코... 꿈이 아닌가? 아니었다. 꿈도 아니고 아일랜드동화의 그 꾀쟁이 요정들이 꾸며놓은 요술도 아닌, 피부로 시야로 청각으로 감득되는 현실이었다.

(그럼 무슨 힘이 몇년사이에 저렇게 은옥이를 천재로 키워 도쿄의 한복판에 세우고 천만조각 철가루들을 죄다 묻어들이는 자석처럼 온 일본땅의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있는가. 돈한푼 없어 겨우 식모살이로 연명하던 그의 딸이, 나의 보잘것없는

자선으로 던져준 그 하찮은 입퉁금을 안고 것처럼 감지덕지하던 애가?... 아, 저 애는 틀림없이 니이가다향으로 갔다가 총련을 거쳐 공화국북반부로 갔다. 그렇다면 저 모습은 우리 집을 떠나 은옥이네가 오늘까지 걸어온 로정의 결과가 아닌가.

한알의 구슬에 우주가 비끼고 한점의 별을 온 세상이 본다고 한다. 지금 확실히 은옥은 그 별이고 그 구슬이었다. 정녕 은옥이의 저 음악은 민석이가 유감없이 투자한 그 황금의 값비싼 대가가 빚어내기를 것처럼 애타게 갈망하던 음악이었다. 그러나 지금 저 은옥의 음악은 사랑하는 딸애-수란이의 음악이 아니었다.

황금의 다리를 건너 미국을 다녀온 수란이...

가난의 눈물을 안고 공화국북반부로 간 은옥이...

문지방 하나를 사이두고 몇해전에 뿌리던 은옥이네의 그 처량한 눈물이 오늘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놓을수 있을까?...

민석은 번뇌속에 움직일줄 몰랐다.

공연이 끝난 엔에취케이홀의 프락은 괴괴하였다. 어둡게 드리운 땅거미를 무겁게 휘감고 프락의 한옆에 과묵히 서있는 고목의 굵은 밑둥에 몸을 맡긴채 민석은 서있었다. 랭습한 밤의 대기가 폐장을 무섭게 적시며 흘러든다.

민석은 지금 인생의 명암을 다 헤치며 아득바득 굽어모은 황금과 재부의 가치에 대하여 공허한 하늘과 랑심앞에 묻고있었다.

(그 뉘가 황금을 만능이라 했던가?)

민석은 은옥이네들이 간직한 그 맑은 웃음과 아름다운 봄의 멜로디를 사랑하는 딸에게는 단 한순간도 사줄수 없었던 무뎡한 황금과 재부의 가치를 절규하였다.

그는 버쩍 머리를 들었다. 은옥이네들의 맑은 눈동자들이 그의 시야에 무수한 별들처럼 반짝이었던것이다.

민석은 한걸음 두걸음 그 별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짚었다. 황금만능에 대한 허물수 없었던 그 《믿음》과 결별하는 그의 발걸음이었다. 아직은 그가 다 알수 없는, 물질세계의 중심을 인간으로 보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받드는곳으로, 인간만세!-그 위대한 주체의 철리가 꽃피는 희망찬 삶의 기슭으로, 딸애와 이 세상 모든 어린 운명들의 확고한 지령점으로 이어지는 참된 인생의 첫걸음이었다.

마음속의 딸애가 아버지의 발자국을 덧찍었다.

수란이의 나이는 아직 어리였다...

200 일전투로 들끓는 광복거리에서

일찍부터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창작적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라고 가르쳐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얼마전에 또다시 작가들이 200 일전투로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혁명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인민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성이 높고 전투적인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번에 하신 말씀은 작가들 특히 시인들의 창작활동에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들끓는 광복거리 건설장에서 현실체험하면서 창작사업을 벌리고있는 조선문학창작사 평양시 창작실 작가 차영도, 황성하 동무들과 시인 리광동무를 찾아갔다.

안골체육촌 수영관건설장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는 방금 휴식참의 시랑송모임이 끝난 뒤였다.

시대의 기념비를 일떠세우는 궁지와 희열을 안고 다시 일손을 잡는 건설자들을 사랑넘친 눈길로 바라보던 시인 차영도동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 건설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많은 시를 쓰고 그들에게 읊어주기도 했지만 실지로 200 일전투의 거창한 숨결을 뜨겁게 호흡하지 못한 자신들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접하자 그들은 당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시를 더 많이 창작할 불타는 결의를 안고 건설현장의 가늌이 아니라 중심에 뛰어들었다.

수영관 건설장에서 시인들은 전투원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스스로 작업량을 말아나섰고 전투장마다에서 기발이 되고 돌격의 나팔소리로 될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시를 창작하고있었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라 방송선전차의 마이크를 들고 전투원들에게 격조높이 읊어주기도 하였다.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주도적 감정과 건설자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깊이 체험하고 쓴 그들의 시는 전투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건설자들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가슴속에 품고있는 좋은 생각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면서 사상예술성이 높은 전투적인 시를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건설자들의 이런 사람과 믿음 속에서 시인 차영도동무는 서정시 《이 사람들에게 묻지 말라》, 시인 황성하동무는 서정시 《밤별이 웃는다》를 창작발표하여 건설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200 일전투의 나날을 충성으로 더욱 빛내어나가도록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긴 이들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문학통신원들의 재능의 싹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현실속에서 문학통신원들이 쓴 작품들을 신문과 방송 그리고 《광복거리 건설 문예작품집》에 더 많이 실리게 하였다.

들끓는 현실에서의 이처럼 보람차고 가슴 벅찬 나날에 시인 차영도동무가 창작한 서정서사시 《집에 대한 이야기》, 황성하동무가 창작한 《여기에 조국의 딸들이 있다》는 《광복거리건설 문예작품집》 1 집에, 리광동무가 창작한 《그날의 그 불굴의 전사들처럼》은 《조선문학》 8 호에 실리게 되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작가들에게 하신 말씀을 심장속깊이 새기고 일하는 이들은 앞으로 건설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할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우리는 200 일전투의 불길속에서 광복거리 건설을 새로운 비약으로 불러일으킬 독특한 시들이 더 많이 창작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곳을 떠났다.

박정애

금 강 산

외 1 편

(쏘련) 뽀또르 그라도브

금노을 피는 이른아침 일곱시
우리는 집을 나서 길을 떠났네
난생처음 금강의 산이라 일컬으는
금강산구경을 떠나갔네

길이 좁아 그 폭이 한메터도 못되리
우리는 종렬로 나란히 서서 걸었네
안내원을 포함해서
일행은 도합 스물네명뿐

차그마한 옥류담은
나무잎 색깔따라 그 빛이 달라지네
연록색의 봄빛 같다가도
금시 진홍색의 가을갈거니

아득한 산상우에
이런 절승있었던가!
이 절경에 그만 도취되어
꿈속을 가듯 걸어온것 나뿐이던가?

얼굴엔 구슬땀이 방울방울
가슴은 두근두근
허지만 귀여운 안내원처녀
날듯이 가벼이 앞으로만 걸어가네

산정에 오르기 수고했노라고
그 무슨 표창처럼 날아드는 비말이여
소리도 요란한 폭포수
우리에게 서늘한 기분을 안겨주누나

어떻게 더 올라가리?
깎아지른듯한 벼랑길을
뒤에는 스무명이 따라섰는데
우리 넷은 앞장에서 걸어가네

내 비로소 여기서
우리 일행 오십명이었음을 깨달았네
오르고 또 올라도
자꾸만 오르고만싶은 마음이어!

...내 그만 황홀경에 온 났을 빼앗기고
벼랑길에 서있음도 까마득히 잊었구나...
여덟개의 계단으로 떨어지는 폭포수
그밑에 고이는 수정같이 맑은 물

나에게 전설을 들려주었네
(어찌 그것을 믿을수 있으랴만!)
이 팔담에서 여덟명의 선녀들
목욕을 하였다누나

산바람소리 노래처럼 들려오는
그 높은 산정을 우리는 기어이 올라갔네
아득한 산상우에
이런 절승 있었던가!

이 안개속에서도
모든것 더 우렷이 안겨오거니
금강산을 보지 못한 이는
조선을 가보았다 말하지 말라

왕 들

평양에 와서
내 사뭇 놀랐노라
조선에는
나어린 왕들이 살고있다는
말을 듣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궁신들도 수없이 많다누나
이 왕들은 아주 순진하고
웃음도 상냥스레 웃는다네
모두들 알고싶어하였네
나는 물론,
살다가 별일 다 보겠네

인민의 나라에
궁신들이라니?
게다가 또
왕들이란 웬 말인가!
그들에게는 생활이란
아주 명백하였네
그들 뒤에는
오직 탁아소
그들 앞날은
광활한 미래뿐
비루스병균들도

그들을 침해 못하네
 그들은 서로들
 화목하다네
 그런데 아직은 왕들이
 너무 어려서
 어머니들이
 업고다닌다네
 내 주의깊이 보았네
 마치 바다에서 수영하듯
 왕이 걸어가네
 아주 점잖게 걸어가네
 허지만 내 솔직히
 그대들에게 고백해야 하리
 왕이기는 하나
 아주 어린 젖먹이들이었다네

그러나 그들도
 영원히 젖먹이로는 있지 않으리
 이제 유년시절이 오고
 금노을이 피어나면
 여름철엔
 소년단야영소
 관저들에 들게 되리
 비록 이 왕들 아주 어리나
 그들에겐
 크나큰 권한이 있거니
 나라의 왕들이란
 이 아이들이라네
 그들의 공신들이란
 온 나라라네

눈보라와의 인사

인훈

우리를 맞이한
 밀림의 첫 인사는
 두볼에 한 가슴에
 우-우- 아우성치며 매여달리는
 눈보라 눈보라

깊숙이 찌어간 호랑이발자국도
 순간에 묻어버리며
 태고의 밀림을 들부실듯
 소리치며 달려가는 눈보라

땅을 하늘을
 흰자락으로 휘익-감싸안았다가도
 온 천지에 휘뿌리는
 북방의 눈보라

숲과 강 대자연을 다 덮어버리며
 우리의 걸음걸음에 감겨도
 우리의 흔적은 묻지 못하리
 우리의 앞길은 막지 못하리

꽃도 푸른 잎도 다 지워버렸건만
 처음 집을 떠난 저 애어린 처녀의
 빨간 능금볼에 핀 웃음만은
 눈보라도 지울수가 없구나

언땅을 까고
 천만산악을 울리는 발파소리
 청춘들의 뛰노는 그 숨결을
 눈보라가 어이 얼굴수 있으랴

이제 우리
 눈보라가 휘감은
 저 산봉우리 한허리를 툭 잘라
 두줄기 궤도를 놓으려니

이 땅의 엄혹한 겨울을
 심장으로 더웁힌 그 숨결로 해
 첫 열차의 차창가에
 부드러운 꽃잎으로 휘날릴
 아, 눈보라
 북방의 눈보라야

읽히우는 시와 읊어지는 두 시의 양상

심상길

특색있는 시로 사람들에게 사색의 나래와 감정의 불을 달아준 시인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는가.

얼마전에 나는 네온등이 명멸하는 대학구내의 잔디밭머리에서 우연중 자그마한 수첩을 얻었다. 아마도 시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대학생이 흘린 《시첩》이 분명하였다. 거기에 써여진 어떤 시들은 너무 오래되어 보풀속에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다. 한데 요즈음 새로 적어넣었는지 유묘하게 진한 잉크로 쓴 두편의 시가 눈에 뚜렷이 안겨왔다. 하나는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이고 다른 하나는 련시 《푸른 언덕에서》이다.

읽고 또 읽어 기억에 새겨둔듯 시줄 밑에 건너간 색줄들이 확연히 안겨오는 한 대학생의 《시첩》을 펼쳐보는 순간 퇴근후에 있었던 얼마전의 일도 깨물어 생각키워졌다.

집에 들어서니 고등중학교 졸업반인 만아들녀석이 옷방에서 열이 올라 무슨 시인가 읊고있었다. 눈에 생생하고 귀에 익은 시구절들이다.

...

달은곳은 하늘의 한끝
빛발쳐가는곳은 온 우주
이곳을 향해 마음의 창문들이 열리고
이 빛발 젖줄기로 세계가 자라거니

...

아아, 너는
비로소 탄생한 땅우의 태양

...

하늘의 태양이여
너는 구석진곳에 그늘을 남긴다만
마음속 깊은곳의 그늘마저 가져줄
인간중심의 새시대 펼치는 빛의 시작점
아, 위대한 삶의 빛발 여기에 있도다!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

내 진정
조국에 바친것 적고
병사 한사람이 귀중하던 때
우리 무력의 한자리를 비웠어도
...
아, 조국에 바친 청춘은
한시절에 끝나지 않음을 선언하는 이 언덕
(련시 《푸른 언덕에서》)

나는 아들에 곁에 다가가 오늘은 어떻게 되어 시공부를 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학교적인 시랑송경연모임이 있다고

했다. 그때 학급을 대표하여 제가 나간다는것이였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시를 골랐는데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홍문수)와 련시 《푸른 언덕에서》(김철민)가 마음에 들어 읊어본다는것이다.

그런데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는 읊어지는데 련시 《푸른 언덕에서》는 마음에는 들어도 읊어지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대학생, 중학생은 물론 교단에서 문학수업을 하는 대학교원의 마음에도 드는 시, 손바닥만한 수첩속에 읊어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순간순간 튕겨주는 향기질은 시를 세상에 내놓은 시인에게 진정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내며 나는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와 련시 《푸른 언덕에서》를 다시 새롭게 읽어보았다.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와 련시 《푸른 언덕에서》가 최근 독자들속에서 읽히워지고 읊어지는 시로 되고있는것은 형상의 독특한 맛과 인상을 돋구어 주는 양상이 뚜렷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형상에서 독특한 인상은 많은 경우에 양상에 의하여 돋구어진다. 양상이 뚜렷한 작품일수록 생활의 특색을 더욱 생동하게 나타낸다.》

시의 생명이 뜻깊은 정서라면 그것을 인상깊게 살리는 요인이 바로 시의 양상이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양상이 뚜렷한 시 작품에는 언제나 독특한 인상과 향기, 맛이 있어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끄당기는 매력이 있다.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아래서》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빛나는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는 시인의 공민적감정을 승고한 사상정서에 담아 사색깊고 무게있는 양상으로 노래하였다면 련시 《푸른 언덕에서》는 인민군렬사탑앞에서 희생된 전사-영웅들에 대한 추모의 세계를 밝고 랑만적인 양상으로 뜻깊게 펼치고있다. 두편의 시들은 탑이라는 기념비적 대상을 시의 소재로 하고있는 점에서 일련의 공통점은 있으나 서정시의 형태인 시초와 련시의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명암과 인상, 향기로서 시형상의 독자성을 잘 살리고있음을 볼수 있다.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창시된 주체사상의 불멸의 의의와 거대한 생활력을 정화된 시편들에 묶어 시화함으로써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의 심오한 원리를 사색깊고 무게있게 노래하고있다.

...

추억을 주는 기념비는
이 세상 어디가도 있더라
하지만 광막한 저 하늘아래
희망을 주는 기념비는 오직 이 하나

사람들이여
조국과 자신과
아들딸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이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라!

(〈시초〉의 시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중에서)

우주의 중심을 떠받들고있는듯 대공을 향하여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며 웅천 시인의 걱정은 우리모두가 하고싶은 심장의 고백이며 신념이다. 누구나 이 탑앞에 서면 탑의 장엄함에 앞서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을 다 바치시어 창조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우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대를 이어 완성하시고 빛내어나가시는 세세계를 그려본다. 우러를수록 탑은 인류력사의 쓰린 추억만이 아니라 조국과 자신과 아들딸들의 보다 황홀한 미래가 안겨오며 희망을 주는 혁명의 기념비로 더욱 빛난다. 그러기에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탑은 있지만 광막한 저 하늘 아래 희망을 주는 탑은 오직 하나라고 한 시인의 주장은 시인자신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말이며 《조국과 자신과》 《아들딸들의 미래가 걱정되는 때 있거든》 《이 주체사상탑을 우러르라!》 고 한 시의 결구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을 생동한 시형상으로 감동깊고 진실하게 부각시킨 시인의 정서적 체험세계와 함께 소박하고 기지있는 시적 발견과 탐구심에 대하여 귀중히 여긴다. 시를 많이 써서 알게 된 시인보다 가슴치고 생각 깊게 하는 몇편의 시로써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소개한 시인을 독자들은 오래도록 잊지 않는다. 읽을수록 새맛이 나고 소리내어 읊어보고픈 좋은 시를 앞에 놓고 충동에 잠기는 독자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바로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의 때 시편들이 사회와 혁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 력사와 인민이 바라는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을 철학적으로 시화하고 시인의 강렬한 주장과 소박한 정서적 충동을 사색깊은 양상으로 일관함으로써 읽히워도 지고 읊어도 지는것이다.

소요하며 다가오는 파도처럼 은근한 무게를 안고 심장의 흥벽을 치는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의 서정은 참으로 숭고하며 양상은 무게있고 사색적이다.

읽어보라, 그리고 소리내어 읊어보라 너 나 없이 우리모두에게 다 같이 접수되고 안겨오는 숭엄한 혁명적 정서가 시초의 때 시편들에 진하게 흐르고있지 않는가.

이 세상 하많은 기념비가 있다 해도 주체사상탑은 온 세상의 뜨거운 눈길 하나로 모아세우는 영광의 절정이다.

시초에 관통하는 숭고한 혁명적 정서의 울림과 여운의 진폭은 커서 사색의 무게가 더없이 크다.

바로 이것이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의 양상이다. 정서가 깊고 양상이 뚜렷한 시일수록 읽히워도지고 읊어도진다.

런시 《푸른 언덕에서》 역시 체험세계가 새롭고 시형상수법이 독창적인 독특한 양상의 시라고 말할수 있다. 즉 런시는 인민군렬사탑우의 병사가 말하는 형식으로 시인-서정적 주인공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하는 혁명적 랑만의 정서적 색깔을 가진 시다. 그래서 읽을수록 생각이 깊어지면서도 새맛을 준다.

해방산언덕의 인민군렬사탑을 찾은 시인은 인민군렬사탑우 영생의 모습으로 서있는 병사들을 바라본다. 어느덧 벽면에 부각된 룡해공군전사들의 영웅조각상이 한눈에 안겨온다. 기관단총을 들어쥔 인민군병사,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돌진하는 영웅병사, 창파를 헤치며 적진에 육박하는 영웅해병들은 30여년전의 그날의 모습으로 나무잎새 푸르고 꽃향기 싱그러운 푸른 언덕에 서있다.

얼마나 다감한 군상들인가, 얼마나 미더운 영생의 모습들인가.

그런데 런시 《푸른 언덕에서》는 읽히워는 저도 읊어지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그것은 런시의 형태적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것과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런시는 서정시의 한 형태로서 하나의 통일된 사상으로 이어지는 이음시다. 그러므로 고유한 맛과 향기를 뿌리는 독자적인 완결성을 가지고있어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시적 주장과 체험세계가 시인의 시점에서 토로되고 펼쳐져야 한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다양한 형태와 양상의 서정시 창작을 위하여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인간정서의 깊이있고 개성적인 시적 추구를 위해서는 도식화된듯한 시창작의 일반적 요구를 강요할수는 없다. 앞에서 강조한바와 같이 런시 《푸른 언덕에서》는 생활의 본색과 시적 소재에 맞게 〈조국과 영생〉, 〈삶과 죽음〉 〈사랑과 청춘〉등에 대한 혁명의 근본문제를 시대의 맥박에 담아 밝고 랑만적인 색깔로 절절하게 노래함으로써 시형상의 새로운 면모를 보인 독특한 양상의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가 어데서나 읽히워지면서도 읊어지는 사상정신적인 시로 되자면 서정시의 다양한 형태적 특성을 살리는 시형상수법을 옹계 적용

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이며 원칙적인 요구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련시 《푸른 언덕에서》의 시편들인 《푸른 언덕》, 《아직은 내 할일 남아있지 않는가!》, 《눈처럼 새하얀 손수건 하나》, 《꽃뭉침은 대돌우에 놓였는데》, 《영생이란 무엇인가》는 하나의 통일된 사상으로 이어지는 시로써 시편마다 깊은 사색과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맛이 있다. 그리고 일정하게 독자적인 완결성도 보장하고있다. 그러나 시적 주장과 체험세계가 시인의 시점에서가 아니라 굴절되어 토로되고 펼쳐지고 있기때문에 시의 강렬성이 보다 완만해지고있다. 독자들은 련시를 읊자면 자신을 탑우의 병사로 보고 또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련시에는 -인민군렬사탑우의 병사는 말한다-라는 부제목이 주어져있다. 이 부제목만 무시한다면 개별적 시편들의 서정적 주인공이 탑우의 병사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읊을 때마다 부제목을 개개의 시편의 앞에 놓아야만 된다.

깊은 체험세계와 남다른 시적 발견을 가지고 서정시문학의 화원에 향기있는 시를 내놓으려는 시인의 의도가 활짝 꽃피나지 못한것이 아쉽다.

나는 읽히워지는 시와 읊어지는 시에 대한 생각을 시초 《탑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와 련시 《푸른 언덕우에서》를 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시단에 시초와 련시들이 많이 창작되는것과 관련하여 제기하고싶은 생각이다.

《시초》와 《련시》의 형태상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문제는 오늘 서정시문학의 양양을 위하여서 뿐만아니라 혁명적 현실의 풍만하고 다양한 사상정서를 특색있게 담아내야 할 서정시의 사명과도 관련하여 절실하게 제기된다.

우리 시인들은 서정시와 함께 시문학의 모든 형태들에서 독자들속에 읽히워지면서도 읊어지는 특색있는 양상의 시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것이다.

처녀들의 꽃이야기

최준경

해지고 노을지는 련포벌의 저녁
하루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한 처녀 문득 노래처럼 뻗네
흥미 있는 수수께끼 하나를 꺼냈네
-멀리서도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이냐?

농장벌 가꿀 땐 일숨씨도 빠르더니
이런 때면 생각도 빨라
서로서로 한마디씩 다투어 말했네
마을길에 높이 자란 해바라기꽃
지붕우에 소담히 핀 호박꽃
장대끝에 방긋 웃는 줄당콩꽃...

이꽃 저꽃 아무리 꼽아도
처녀는 살래살래 고개를 저었네
그렇다면 무슨 꽃일까?
맑은 눈동자 별빛처럼 반짝이며
곰곰히 생각을 더듬던 처녀들
저마다 한마디씩 다시 보랬네

봄이면 흰구름처럼 피어나
온 마을을 뒤덮은 하얀 배나무꽃
여름엔 충충 다락밭에 향기 날리며
개꼬리 살랑대는 강냉이 풍년꽃
가을엔 벼랑가리 등실 쌓으며

너도 나도 피우는 대풍의 웃음꽃

허나 어찌 그 꽃만이라
처녀의 안타까운 마음 나래쳤네
말로는 다 표현할 길 없는 꽃
날새처럼 보폭에 올라 번쩍 가리켰네
저 멀리 울긋불긋 불야성을 펼친
순천비날론공장 건설장-
하늘 가득 비발치는 용접불꽃들을

황홀하고 장쾌하다 말할가!
우리 당의 은덕을 충충 고이며
밤하늘을 물들이는 건설의 꽃보라
부모동생 누나들께 꽃비단 안겨주려
병사들 피워가는 열정의 꽃보라
그보다 높이 돋보이는 꽃 어데 있으랴

아, 창조의 그 억만 불꽃속에
아름다운 꽃에 대한 수수께끼의 답도 있거니
처녀들도 이밤은 그 꽃에 취해
멀리서도 보이는 그 꽃을 향해갔네
온 나라가 바라보는 그 꽃을 향해갔네
뜨거운 지원의 그 마음도
저 하늘을 태우는 창조의 꽃이 되려

영원한 삶

조명기

무시로 쏘아대는 미국놈들의 함포탄을 피하여 바다와 반대쪽인 나팔산 중턱에 자리잡은 방공호, 그것이 전쟁의 나날 우리의 학교였다.

뻑뻑하게 책상들을 맞대놓아서 휴식시간이면 목마처럼 책상을 타고넘어서야 밖으로 나갈수 있는 비좁고 천정낮은 방공호속에서 나의 초급중학교시절이 흘러갔다.

서울해방전투에서 심한 중상을 입은탓에 다시 남진의 대오에 서지 못하고 제대되어 돌아온 영예 군인이 우리의 국어선생이었다.

그는 자그마한 쪽무이칠판에 작문제목의 써놓고는 말 한마디 없이 출입문가에 걸상을 옮겨놓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모름지기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터에서 청춘의 생명을 바친 전우들을 생각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때 아직 철부지였던 우리는 국어선생이 아직 부상당했던 몸이 채 회복되지 않아 수업하기가 힘이 들기때문에 자습을 시키느라고 그런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작문짓기에 별로 열성을 내지 않았다. 더우기 작문제목이 어스름비슷한것이 자주 반복되자 지어 싫증까지 느끼었다.

《영원한 삶》, 《조국과 영생》 ... 이러루한 제목으로 적어도 다섯번이상씩 작문을 지었던것이다.

국어선생은 언제나 작문점수를 매기는데서 지나치게 깔끔하였다. 중학교 2학년생들에게는 퍼그나 아름다운 제목을 내주고도 어찌나 야박하게 채점을 하였는지 당시 최고점수인 5점을 맞아본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국어에서는 학교적으로 내노라고 하던 분단벽 보수필인 나도 4 점밖에 맞아보지 못하였다. 그것도 처음에 4 점을 맞았을뿐 그다음부터는 계속 내용을 보충해 쓰느라고 했지만 매번 3점이상 더 주지 않았다.

그때에 쓴 작문내용을 그대로 되살려낼수는 없지만 삶과 죽음을 정반대의 의미로 생각하고 작문을 지었다는것만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제목을 약간씩 변경하면서 싫증이 나게 반복된, 삶과 죽음에 대한 작문짓기를 끝내면서 국어선생은 퍼그나 긴 시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마치 외국어를 갓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직역을 하듯이 모든 어휘의 의미를 교조적으로, 직선적으로 암기하는 정도의 인식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열네살의 우리들로서는 선생님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수도 소화할수도 없었던것이다.

하기에 그후에도 펍 오래동안 삶이란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의 전제이며 보다 찬란한 미래의 담보인 반면에 죽음이란 비애와 슬픔의 절정이며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것이라는 단순하고 직선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 순박하고 단순한 개념은 퍼그나 공고하게 머리에 자리잡은 터여서 나이가 들면서는 그 표현이 더욱 요란해졌을뿐 펍 오래동안 그 의미에 대한 이해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지 못했었다.

누구나 실제적인 생활체험을 통해서만이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기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외국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애국투사들의 이름은 조국의 청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것은 내가 조군실영웅이 다니던 고급중학교에 입학한후부터이다.

영웅이 공부하던 우리 학교를 《조군실고급중학교》 (지금은 조군실고등전자자동화전문학교)라고 부르게 되었을 때 나의 충격은 컸다.

조군실영웅의 생애와 관련된 그 어떤 크나큰 의미는 책을 통해 읽었거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사실과는 비길수도 없이 나의 뇌리와 심장에 파고들었다.

나는 영웅과 함께 생활해보지 못하였고 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였다. 내가 나팔산 중턱의 방공호 교실에서 작문을 지을 때 영웅은 벌써 조국을 지키

는 성스러운 싸움에 둘도 없는 청춘의 생명을 바쳤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영웅이 공부하던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긍지와 자랑은 자신을 영웅과 가까운 존재로 여기게 하였고 영웅을 따라 송도원백사장을 뛰어다닌 것처럼 생각해 하였다.

교사의 복도에서 아니면 학교운동장에서 어느 때든 문득 영웅과 만나게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좀체로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욕망이라는 것을 느낄수록 영웅에 대한 동경과 그리움은 더더욱 커지는 것이었다. 그럴수록 죽음이란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슴속에 뿌듯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던 내가 제대되어 모교를 찾아갔을 때 정말 영웅이 나를 제일 먼저 맞아주었다. 정문 옆에 영웅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다.

역센 이발로 증기압철을 눌러 원썬들을 쓰러누히는 불사신의 모습!

원썬들을 노려보느라고 나에게 눈길은 돌리지 못해도 영웅은 말과 글로써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값 높은 삶의 진리를 나의 심장에 새겨주고 있었다.

하기에 영웅의 동상이 세워진 모교를 그후에도 나는 자주 찾아가곤 하였다.

명절날 애들의 손목을 잡고 송도원으로 갈 때에도 길을 에돌아 모교를 찾아가서는 애들과 함께 영웅의 동상 앞에 오래도록 서있곤 하였다.

세월은 흘러 학교를 졸업할 때에 《나도 이제 영웅과 동갑이로구나! ... 그런데 나는 조국앞에 어떤 일을 해놓았는가?》 하고 생각해 보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0 고개를 넘어섰다. 그리하여 이제는 중학생을 둔 아버지가 되어 모교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영웅은 오늘도 여전히 열아홉 꽃나이가 그 모습으로 나를 맞아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 내나이 예순이 지나 찾아가도 영웅은 변함없이 열아홉 청춘의 그 모습, 불사신의 그 모습으로 나를 맞아줄 것이다.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의 자식들이 백발이 되어 찾아가도 영웅은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열아홉 꽃나이가 충신으로,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는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이 아닌가!

정녕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조국실영웅은 영원히 청춘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 살아 영생할 것이며 그 이름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그렇다. 죽음이란 결코 그 어느 경우에도 슬픔과 비애의 절정,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웅적인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값 있는 죽음-그것은 영예와 보람, 인간이 그처럼 바라는 참된 삶, 영원한 삶을 향유하는 길인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의 영웅들은 꽃나이가 청춘을 서슴없이 조국에 바친 것이다.

어둡고 천정낮은 방공호속에서 작문을 짓던 그 때에 이 고귀한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된다.

열네살, 나이가 적었는가?...결코 나이가 어렸다고 자신을 위안할 수는 없다. 그때로 말하면 조국이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던 엄혹한 시련의 시기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나는 나와 같은 생활의 길을 걸어온 《인식의 동갑》들에게 말하고 싶다. 때늦은 자책으로 마음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미제와 맞서고 있고 놈들의 침략행동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조건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옳고 정확한 인식은 결코 때늦은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둡고 천정낮은 방공호속에서 지은 작문을 다시 쓰고 싶은 충동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이 글을 쓴다.